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학 박 사 학 위 논 문

「올림픽정신(運動)」과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중국 스포츠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GAO PENGCHENG

이 학 박사 학 위 논 문

「올림픽정신(運動)」과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중국 스포츠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대 희

이 논문을 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5년 8월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GAO PENGCHENG

GAO PENGCHENG의 이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5년 8월 22일

위원장 체육학박사 김 대 환 (인)

위원 도시계획학박사 김 미 옥 (인)

위원 중국어학박사 김 현 태 (인)

위원 체육학박사 서 정 운 (인)

위원 법학박사 김 대 희 (인)

목차

목 차	i
표 목차	iv
국문 초록	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한계	6
4. 본 연구의 주요 개념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5
1. 올림픽 정신	15
2. 올림픽 운동의 윤리 원칙과 성폭력 예방	16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아젠다 2020 / 2020+5」의 ‘굿 거버넌스’원칙	19
4. 국제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합의문(IOC Consensus on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in Sport)」	25
5. 중국 스포츠 현장의 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	34
6. 기타 국가의 스포츠 폭력 대응 정책 및 중국에 주는 시사점	45

III. 연구 방법	54
1. 연구 문제	54
2. 연구 방법 및 문헌 검색 절차	54
3. 체계적 문헌 고찰 중국의 스포츠 폭력 예방 관련 연구	58
4. 중국 스포츠 폭력의 대표 사례 분석	88
5. 선행연구	97
IV. 연구 결과	102
1. 중국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통계 및 유형 분석	102
2. 중국 정부와 체육 사회조직의 역할 현황	104
3. 중국 체육단체의 스포츠 폭력 방지 및 예방 조치	106
4. 스포츠 폭력 발생 및 처벌 현황	108
5. 중국 스포츠 폭력 예방 지원 체계의 현황	111
V. 논의	117
1. 중국 정부와 사회 조직의 역할	117
2.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전략	120
3. 중국 체육 단체의 책임 및 조치	125
4. 모니터링, 신고 및 법적 책임	130
5. 신뢰 기반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	132

VI. 결론 및 제언	137
1. 결론	137
1) ‘가치-제도-역량’삼위일체 프레임워크	137
2) ‘단계+3환경’신뢰 지향형 거버넌스 모델	137
3) 독립 조사 및 강제 보고 제도의 비교 시사점	138
2. 제언	139
1) 법규 및 거버넌스 구조	139
2) 데이터 및 정보 공개	140
3) 훈련 및 윤리심사	140
4) 지원 서비스 및 심리 개입	141
5) 미디어 및 공공 교육	141
6) 국제 연계 및 동태적 평가	142
참고문헌	143
Abstract	153

표 목차

표 1. IOC의 스포츠 폭력 분류 및 해석	12
표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 정의	13
표 3. 《베이징 행동 강령》의 체육 폭력 반대 성과와 도전 일람표	38
표 4. 중국 체육 현장의 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 요약	45
표 5. 중·외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 비교	52
표 6. 중국, 미국, 캐나다의 Safe Sport 체계 비교 연구: 미국 Center for SafeSport 및 캐나다 모델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53
표 7. 중국의 반(反)폭력 대응 메커니즘 비교: 제도적 진화와 보완 경로 (2015-2024)	59
표 8. 중국 스포츠 안전 거버넌스 연구 개관: 주요 문헌의 방법론과 핵심적 발견	62
표 9. 형법상 처벌 가능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개관: 방법론과 핵심 발견	65
표 10. 선수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연구 검토: 연구 대상, 방법론 및 핵심적 발견	68
표 11. 미디어 폭력 효과 및 대응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개관: 미디어 비판에서 통합 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개	73
표 12. 다원적介入과 협력 메커니즘 기반의 운동장 폭력 거버넌스 연구: 연구 방법과 주요 발견에 대한 검토	77
표 13. 스포츠 폭력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양적·질적 및 혼합 연구 전략의 장점과 한계	81
표 14. 위험 식별의 구체적 조치 요약	112
표 15. 올림픽 가치 기반 스포츠 폭력 예방 시스템 거버넌스 청사진	119

「올림픽정신(運動)」과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연구
- 중국 스포츠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

GAO PENGCHENG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요약

본 연구는 올림픽 정신이 스포츠 폭력 통제에서 지향하는 가치와 실천 경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상호 이해, 우정, 단합, 공정 경쟁”과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두 가지 핵심 이념을 바탕으로, 고의적 경기 내 폭행, 관중 소란, 성폭력 등 다양한 스포츠 폭력 상황에서 이러한 영적 가치의 예방·보호 기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갈등 해소 및 인권 보장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규명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국 스포츠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가치 내재 - 메커니즘 고도화 - 문화 선도”의 삼위일체 모델을 구축하였다. 올림픽 정신을 교육 강령, 법률 규정, 여론 유도로 전환하고, 2024년 『사풍사기(賽風賽紀) 방법』에서 상대적으로 미비한 ‘소프트 거버넌스’를 보완하여 가치·제도·역량의 유기적 폐쇄 루프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 본 논문은 제도적·문화적 이중 거버넌스 경로를 더욱 보완하였다. 제도 차원에서는 사전 위험 평가, 독립 조사, 폐쇄 루프 재판 기제를 제안하였고, 문화 차원에서는 ‘도덕 금메달, 스타일 금메달’ 운동을 선도하고 미디어 및 교육 홍보를 연계하여 사회 전반에 “제로 폭력(Zero Violence)”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적 거버넌스’를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2024년 IOC의 『대인폭력 및 보호』 합의문을 참고하여 심리적 지원, 신고 체계, 예방 교육 등을 설계하였으며, 이를 국민체육 및 청소년 대회에서 시범 적용하였다. 폭력 사건 보고율, 관중 문명 점수, 규칙 인식률 등의 효과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여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올림픽 정신을 중심 축으로 하는 다차원적 폭력 억제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고, 문헌 검토, 사례 분석, 비교 연구 및 실천 연구 등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론 면에서는 탁월성, 우정, 존중이라는 올림픽주의 핵심 가치와 그 윤리적 원칙을 정리한 후, 이를 근거로 현대 스포츠 거버넌스에서 폭력 충돌 예방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문헌 검토 단계에서는 CNKI와 Google Scholar의

국·영문 자료를 통합하여 스포츠 폭력의 정의, 통제 모델, 개입 경로 등을 포함하는 문헌 체계를 구축하였고, 중국 학교폭력, 프로리그 충돌, 국제 대회 내 성희롱 등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통제의 사각지대와 실천 요구를 도출하였다. 비교 연구에서는 미국 SafeSport 센터, 캐나다 안전 스포츠 액션 플랜, EU 백서를 참고하면서 중국의 2021년 『행동 규범 의견』 및 2024년 『사풍사기 방법』을 분석하여 중국 현실에 맞는 실행 가능 거버넌스 전략을 추출하였다.

실증 및 실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 (1) 가치 전환 모델이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며,
- (2) Safe Sport CN 거버넌스 경로는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 (3) 문화 조성 메커니즘이 유의미한 효과를 낳았으며,
- (4) 시범 사업의 피드백은 거버넌스 협업의 성과를 명확히 드러냈다.

본 연구는 올림픽 가치를 중국 현장에 제도적 도구 및 공공 동원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첫 사례로, 국내 ‘소프트 거버넌스’의 이론 및 실천 공백을 메우고, IOC의 최신 정책과 연결되며 국제 Safe Sport 논의에 중국 경험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확장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다. 다문화 보편성, 머신러닝 기반 위험 예측, 양형 대규모 데이터는 아직 연구 사각지대에 있으며, 실제 실행의 효과는 행정 협업과 자원 배분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향후 실증 연구를 확장하고 디지털 모니터링 수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올림픽 정신, 스포츠 폭력, 보호 및 예방, 중국 현장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언론의 감시 기능 강화, 공공의 안전 인식 제고, 그리고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현상에 대한 심층 연구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폭력’은 인류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경쟁 체육은 그 기원부터 폭력과 밀접히 얽혀 왔다. 모든 스포츠의 특성상 폭력의 요소가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서 격투는 곧 피의 스포츠였으며, 마야 문명 등에서 스포츠 참여하는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중세와 근대 유럽 시대에는 스포츠를 전쟁을 대비하는 일종의 격렬한 훈련으로 생각하였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예컨대, 기원후 59년 로마 폼페이와 검투사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폭력 사건부터, 영국 힐스버러 참사와 같은 축구 팬들의 폭동에 이르기까지, 폭력은 경기의 ‘그늘’과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현대 스포츠는 경기 도중에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격렬한 신체적 요소가 아니라,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욕설 같은 불미스러운 스포츠 폭력이 나타났으며, 최근 현대에는 제도와 법의 발달로 스포츠 폭력을 더욱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폭력은 끊임없이 단절되지 않으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대한체육회, 2019). 경기장에서의 돌발적인 폭력 사태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체육 사회학에서는 경쟁 체육과 폭력의 관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성폭행, 온라인 유인, 경기장 폭력 등 사건이 뉴스와 토크쇼의 핵심 테마로 다뤄지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체육 분야 내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 관심도 함께 급증하였다. 국가 매체는 올

림픽을 비롯한 주요 경기에서의 폭력 사례들을 빈번하게 다루고 있으며, 코치, 선수, 대회 운영자가 연루되는 사건들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결코 올림픽 정신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예방과 보호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1) 올림픽 정신이 구축하는 핵심 가치 체계

올림픽 이념은 ‘상호 이해, 우정, 연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며, 스포츠를 인권의 한 형태로 보고 차별에 반대한다. 이 정신은 체육이 문명, 평화, 존중, 포용의 가치를 구현하는 통로임을 드러내며, 사회적 조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핵심 가치 체계는 체육 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윤리적 기준 및 ‘정신적 앵커’를 제공한다(Olympic Values - Excellence, Respect and Friendship, 2025).

2) 스포츠 현장의 폭력 문제라는 현실적 도전

경기 내 폭력 충돌, 관중 폭력, 고의적 파울 등은 빈번히 발생하며 경기를 혼란시키고 스포츠의 사회적 이미지를 훼손한다. 예를 들어, 2024년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에서 아르헨티나와 모로코 경기 연장 후 모로코 팬이 경기장 안으로 물병을 던지고 진입을 시도하여 심판이 경기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Olympics 2024: Morocco beat Argentina amid fan invasion chaos, 2024). 또한 같은 대회의 남자 하키 결승에서 네덜란드 선수 Duco 이 경기 후 상대 골키퍼를 도발해 양국 선수 간 집단 폭력이 발생, 현장은 한때 무질서해졌다.(Rossi, P.2024). 중국에서도 스포츠 현장 폭력은 스포츠 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며, 제도적 통제 시스템은 ‘규칙과 자

치'의 상충 논리에 직면하고 있다. 2016년 3월 18일 중국 남자 프로농구 결승 3차전 경기 후, 리닝 팀 선수들과 팬들 간 호텔 앞 대규모 충돌이 발생해 경기 결과가 왜곡되고 중국 농구 전체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신적 가치 기반이 없는 질서회복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연구는 구성원에게 규범 준수를 유도하고 폭력 행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Scmp reporter. 2016, 3, 18).

3)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폭력 대응의 이론·실천적 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는 인권이다'라는 정신을 《올림픽 헌장》에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발표된 IOC '대인 폭력 및 보호' 컨센서스에서는 정신적 가치를 선수 보호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을 강조했다(Tuakli-Wosornu YA, Burrows K, Fasting K et al.2024).

또한 EU의 2007년 백서에서는 '미성년자의 폭력 및 범죄 예방에 스포츠 참여가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스포츠 내 사회 규범(공정 경쟁, 팀 정신 등)이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함양하고 공격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넬슨 만델라가 언급한 '스포츠는 세상을 바꾼다'는 명제가 현실화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07). 따라서 올림픽 정신의 과학적 적용은 중국 스포츠 현장에서 거버넌스의 규범화, 교육화, 예방적 측면에서 효력을 높일 수 있다.

4) 중국의 특수한 체육 문화 및 거버넌스 구조가 제시하는 연구 기회

중국은 ‘전 국가 체제(學國体制)’를 통해 경쟁력과 메달 성과에 집중하지만, 이로 인해 참여자의 보호 및 폭력 예방 체계 구축이 미흡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적 맥락에서 폭력 예방 및 대응 연구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반 한 설계가 필요하다. 대규모 경기, 청소년 대회, 풀뿌리 체육, 학교 체육 등 현장 환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론과 실제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다.

5) 정책 방향 및 사회적 요구에 따른 연구의 현실적 동인

국제 ‘그린 올림픽’등의 정책 기조와 국제 인권 담론은 중국 체육계에 생태적, 인권적, 정신적 측면에서 거버넌스 수준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 체육총국과 각 지방 체육국은 최근 현장 안전, 폭력 방지, 경기장 문명 실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전략 목표에 부합하며, ‘하드 거버넌스’에서 ‘소프트 거버넌스’ 및 가치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는 데 유의미한 기여가 가능하다.

2. 연구 목적

1) 올림픽 정신의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 내포 및 방향성 규명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상호 이해, 우정, 연대, 공정 경쟁” 및 스포츠를 인권으로 보는 가치에 기반 하여, 경기장 내 고의적 상해, 관중 소요, 성폭력 등 다양한 스포츠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보호적 기능을 탐색 한다.

2) 중국 체육 현장 가치 지향 메커니즘 구축

올림픽 가치를 구체적인 교육 규정, 제도적 장치 및 여론 유도 방안으로 전환하여, 경기 현장의 조직자, 심판, 선수, 관중에게 적용함으로써, 2024년 『賽風賽紀辦法』(경기 풍기·질서 관리 조치) 등의 현행 규정 체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소프트 거버넌스’요소를 보완 한다(國家體育總局政策法規司, 2024).

3) 제도 및 문화 이중 거버넌스 경로 보장

제도적 감독 체계(경기 풍기·질서 유지, 위반 행위 제재)와 문화적 교육(올림픽 가치 주입)을 결합하여, 중국 특유의 종합적 거버넌스 경로를 모색함으로써, 규범에 대한 내재적 수용성 및 경기의 공정성 인식을 제고한다.

4)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보호적 거버넌스’정착 촉진

IOC의 2024년 ‘대인 폭력 및 보호 공감’권고를 바탕으로, 전국체육대회, 청소년 경기 등 규모가 큰 스포츠 현장에서 심리 지원, 신고 체계, 폭력 예방 교육 등 보호 장치를 설계·실행하는 방안을 연구 한다(Tuakli-Wosornu YA,Burrows K, Fasting K,et al. 2024).

올림픽 정신을 교육 및 거버넌스 시스템 설계 이론으로 체계화하여 ‘올림픽주의 거버넌스’연구의 관점을 확장 한다.중국 스포츠 관리 기관에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을 제공한다. 예시로, 선수·심판·자원봉사자에 대한 경기 전 교육, 윤리 심사, 현장 문명 안내 시스템 등이 있다. 교육 기반 우선, 제

도적 지지 및 제재 장치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한다. 전국·지역·청소년 대회 등 다양한 레벨의 경기에서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과 “폭력 예방 및 보호” 방안을 시범 적용하고, 폭력 신 고을 감소, 관람객 문명 지수 개선, 선수의 규칙 인식도 향상 등 효과 지표를 수립하고 평가 한다. 올림픽 정신을 통해 국제적 핵심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중국 체육의 문명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내외 스포츠 참여와 관람의 안전에 대한 대중 신뢰를 높인다. 장기적으로는 ‘문명 경기 운영·조화로운 스포츠’라는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 및 학교 체육에도 적용하여 국민 체육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더 나아가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중국 형 운영 경험을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 한계

본 연구는 중국 체육 현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며, 이처럼 특정 국가 맥락에 기반 한 분석은 국제적 일반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올림픽 정신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보편성을 지니나, 단일 국가 사례에만 집중할 경우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성이나 타 국가 사례에의 참고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올림픽 정신(運動)은 다층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내포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해석이나 정의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이론적 완전성과 객관성이 일부 제약될 우려가 있다 .

또한,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자료 종합 등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실증 조사나 장기 추적 연구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스포츠 폭력의 심층적 원인 분석 및 예방 조치의 효과성

검증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스포츠 폭력은 민감한 주제이므로, 폭력 사건의 공개, 신고 및 조사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또는 조사 대상자의 비협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구 데이터의 완전성과 객관성을 제한하며, 연구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올림픽 정신을 통해 스포츠 폭력 예방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책 전환의 효율성', '체육단체 및 관련 기관의 실행 의지', 그리고 '자원 투입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본 연구의 이상적인 정책 제안이 실현되는 속도 및 기대되는 효과의 달성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올림픽 정신과 스포츠 폭력 방지 문제는 분명 시대적 맥락을 내포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 정책 방향, 기술 및 문화 의식 등의 변화에 따라 연구 성과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유용성과 시의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은 정기적인 업데이트 또는 지속적인 추적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스포츠 폭력 문제는 체육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등 여러 학문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폭력의 개념 정의, 원인 분석, 발생 양상, 전과 및 영향, 예방과 통제, 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연구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학제 간 이론과 방법을 충분히 통합하지 못하였기에, 분석의 차원이 단편적이거나 체계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의 깊이와 폭이 일정 부분 제한되었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스포츠 현장은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 스포츠 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이 타 국가나 지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연구 결과의 보편성과 타문화적 적용 가능성을 일정 정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러한 한계는 연구의 학문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구에서 방법론의 정교화, 연구 범위의 확장, 데이터 확보의 다각화, 학제 간 융합, 그리고 실천적 적용 가능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4. 본 연구의 주요 개념 정의

1) 폭력의 정의

폭력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이며, 일반적으로 사회학, 심리학, 법학, 체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세분화하여 설명될 수 있다. 『블랙 법률 사전 Black'에서는 폭력을 “불법적인 신체적 힘의 행사, 권력의 남용,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 및 공공의 자유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Garner, B. 2004.).

일반적인 의미에서 폭력은 힘이나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통해 타인의 신체, 심리,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예: 구타, 발길질, 밀침), 심리적 학대(위협, 협박, 욕설), 성폭력(강제적 성행위, 성희롱), 경제적 폭력(경제적 통제, 자원의 박탈)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 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폭력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며, 사회 구조와 대인 관계 속 권력 불평등에서 기인한 갈등 또는 강제 행위로 정의한다. 폭력은 종종 사회 내 권력 관계의 불균형, 사회 통제 장치의 실패, 그리고 개인 혹은 집단 간 긴장 상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폭력 행위는 공격적 충

동, 감정 조절 실패, 스트레스 대처 능력 부족, 성격 장애 및 사회적 학습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 심리학은 폭력의 발생 원인에 주목하며, 공격적 성격, 좌절감의 누적, 모방·강화·사회적 동일시를 통해 형성된 폭력 행동 양식 등에 초점을 맞춘다. 심리학자들은 스포츠 폭력을 하나의 공격 행동으로 간주하며, 공격을 “타인이나 사물에 대한 의도적 침해, 점유 또는 파괴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공격 행동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첫째, 해당 행위가 타인의 신체 또는 정신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해야 하며, 둘째, 공격자가 자신의 행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학적 관점에서 폭력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신체 건강, 생명 안전,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해 고의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법 행위를 의미한다. 법학자는 경기 중 발생하는 스포츠 폭력을 “정당한 경쟁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적인 반칙으로 상대 선수에게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공격적 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법률은 폭력 행위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강조하며, 경미한 폭력(예: 일반 상해)과 중대한 폭력(예: 살인, 중상해)을 구분 한다. 요컨대, 폭력은 개인 또는 집단이 제3자의 신체나 심리를 침해하거나 재산을 손괴하려는 목적에서 행사하는 강제적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 볼 때, 폭력은 신체적 건강과 안전, 물질적 재산, 정신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2) 스포츠 폭력의 정의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폭력’이라 불린다. 스포츠 경기 중에 스포츠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공격적인 행위이다. 힘이 있는 자가 약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팀 동료와 상대방 선수에게 물리적인 무력과 힘을 사용하여 위

협하므로 부상, 위협, 상처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일어나는 것을 스포츠평력이라 말할 수 있다(김동규, 2019).

또한 폭행, 신체적 학대 등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폭력이란 폭행, 협박, 모욕,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집단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대한체육회, 2019). 탄춘홍은 스포츠 폭력을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하였다. 첫째, 스포츠 경기로 인해 발생하며, 경기 규칙과 사회 법률이 모두 금지하는 폭력 행위로, 선수 간, 관중 간 또는 선수와 관중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충돌 등을 포함한다. 둘째, 경기 규칙과 사회 법률이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스포츠 고유의 '폭력'행위로, 권투, 산타, 태권도, 프로 아이스하키, 미국 프로레슬링 등 종목 내 합법적인 신체 접촉이 이에 해당된다(譚春紅, 2009).

형법적 시각에서 정당한 경기 행위와 스포츠 폭력 행위를 구별하며, 경기 중 행위는 '정당한 직무 수행'과 '피해자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정당화 사유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의 이론적 근거는 사회적 상당성 이론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스포츠 행위와 불법적 폭력 행위를 구분하는 실천 기준은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경기 규칙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주관적으로 죄책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吳玉萍, 2012). 중국 내 관중 폭력 문제의 해결은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지적하며, 그 대응 전략으로는 '차단보다는 유도'억제와 포용의 균형"관중에 대한 애정 어린 교육'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대응 방식으로는 팬들의 자율 규율, 팬 협회의 질서 정비, 관중 실명제 도입 등이 언급 된다(石岩, 2014). 미국 스포츠 법학의 발전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가 스포츠 발전과 보조를 맞추며, 자국 문제에 집중하고 관례 중심의 분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경기장 폭력 방지 관련 내용 역시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韓勇, 2015).

체육학에서의 폭력은 일반적 의미의 광의적 폭력과는 구분되며, 학문 고유의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주로 경기 규칙을 위반하고 타인의 신체, 재산, 정신에 대해 고의로 가하는 공격 행위, 즉 경기 필요성과 무관한 침해적 행동을 의미한다(최병문, 2009). 예컨대, 농구 경기 중 선수 간의 팔꿈치 가격, 주먹질, 넘어뜨리기와 같은 비신사적 행위(unsporting behaviour), 혹은 관중 간 또는 관중이 선수에게 가하는 욕설, 파손 행위, 난투 등이 이에 포함된다(FIBA, 2024). 캐나다 스포츠 윤리 연구센터(CCES)는 스포츠 폭력을 “경기 규칙을 벗어나 있으며(outside of the rules of the sport), 스포츠의 경쟁 목적과 관련이 없는(unrelated to the competitive objectives of the sport) 해를 가하는(harm) 행동(behaviour)”으로 정의하고 있다(Quinney, 2016).

스포츠 폭력은 스포츠 장면이나 운동 활동 중 발생하는 공격적이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선수 간의 고의적인 상해 행위나 악의적 반칙, 충돌 등을 포함한다. 둘째, 언어적 폭력은 욕설, 협박, 모욕적 발언 등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멸시하는 행위이다. 셋째, 성폭력은 성희롱, 성추행, 성적 착취, 성적 강요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특히 코치-선수 간의 권력 불균형 상황에서 더욱 빈발하고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넷째, 심리적 폭력은 협박, 조종, 고립, 모욕 등을 통해 선수나 관련 인사의 심리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인용하여 폭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신이나 타인, 집단, 지역사회에 대해 실제 혹은 잠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로 신체적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사용에 대한 위협. 이는 신체 손상, 심리적 외상, 발달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폭력은 단순한 개별 행위를 넘어 사회구조, 심리상태, 법·윤리 등 복합적 차원을 내포

한 현상으로, 이에 대한 이해와 해결은 다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포츠 폭력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WHO,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2002).(표 1).

표 1 IOC의 스포츠 폭력 분류 및 해석

유형	정의
신체적폭력	고의적이거나불필요하게신체에손상을가하는행위. 구타, 밀침, 공격적 신체접촉등이이에 해당하며, 이는 ‘신체적힘의사용으로인한 상해’ 에포함된다.
심리적폭력	괴롭힘, 협박, 욕설, 모욕, 조종, 고립, 무시등언어적또는비언어 적방식으로타인의자존감, 자아가치감및정신건강을해치는행 위. 이는 ‘심리적·정서적피해’ 의범주에속한다.
성폭력	동의없이이루어진모든성적행위, 예:성희롱, 성적학대, 성적착취, 성적강요등. 특히권력비대칭(예:지도자-선수관계)상황에서 발생시심각성이크다.
방임/소홀	선수의안전과복지를보호할책임을다하지않거나, 의료서비스, 심리적 지원, 안전한환경등의기본적요구를무시하는행위. 이러한 ‘행위의부재’ 로인한피해는 ‘방임’ 에해당한다.

출처: WHO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2002), IOC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 Abuse in Sport (2016).

3) 안전한 스포츠

Ljungqvist,(2007)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과 성학 대에 관한 첫 번째 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련 연구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보다 포괄적인 학대 행위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스포츠 내 괴롭힘 및 성학대에 관한 합의 성명』으로 이어졌다. 이 성명은 기존의 범위를 넘어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괴

롭힘 및 모욕 행위를 포함하였고,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표 1 참조). 성명은 특히 아동, 장애인, 소수 인종,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LGBTQ+) 운동선수 등 IV(Institutional Violence) 수준의 피해에 취약한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조명하였으며, 아울러 이로 인해 운동선수 개인 및 스포츠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와 책임을 강조하였다(표 2 참조).

표 2.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 정의: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이프 스포츠 및 보호 조치(Safeguarding) 정의의 변화.

구분	정의 연도	정의 내용
Safe Sport	2016년 IOC	스포츠 환경이 존중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며, 심리적·신체적·성적 학대 등 모든 비우발적 폭력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함
Safe Sport	2024년 IOC	참여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포츠 참여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함
Safeguarding	2024년 IOC	스포츠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학대에 대해 사전 예방 및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통합적 접근을 통해 운동선수의 전반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법론을 포함함

출처: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16)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and Abuse in Sport;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2024) Interpersonal Violence & Safeguarding Consensus Statement - Safe Sport/Safeguarding Definitions.

II. 이론적 배경

1. 올림픽 정신

올림픽 정신(Olympism)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전인적 발전을 지향하는 철학이자 가치 체계로,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의 이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올림픽 운동의 핵심 원칙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올림픽 정신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로 구성된다(Pierre de Coubertin, 1934).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정신의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탁월성(Excellence)은 단순한 경기 승리를 넘어서, 모든 개인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고 최고의 상태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개념이다. 이는 스포츠와 삶 전반에서의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성취를 강조한다. 둘째, 우정(Friendship)은 국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 상호 이해와 화합을 추구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통해 조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하고 상호 존중과 관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존중(Respect)은 자신, 상대방, 경기 규칙,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을 포괄한다. 이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며 차별, 폭력, 부당한 처우를 지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The Olympic Charter).

철학적 측면에서 올림픽 정신은 인간의 전인적 발전을 강조한다. 스포츠는 단순히 신체 능력의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개개인의 인격, 도덕성, 정신적 자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한다. 올림픽 정신은 운동을 일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교육과 결합되어 자아실현과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연대를 실현하고자 하

며, 올림픽은 국제사회에서 우정과 협력의 상징적 장으로 간주된다.

올림픽 운동은 높은 수준의 스포츠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다. 선수와 조직자는 경기 중 정직, 공정성,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며, 부정행위, 도핑, 폭력 등 비윤리적 행위를 엄격히 배격한다. 나아가 경기장 안팎에서의 폭력, 괴롭힘, 성희롱, 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참가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 동시에 스포츠를 통한 건강, 교육, 사회통합 등의 긍정적 가치를 촉진하며, 스포츠계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장려한다.

국제 협력 및 교류 측면에서 올림픽 운동은 스포츠 외교와 문화 교류를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문명 간의 대화와 융합을 촉진한다. 선수, 관중, 전 세계 미디어의 공동 참여를 통해 스포츠가 전달하는 보편적 가치와 연대의 힘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최근 들어 올림픽 정신은 지속가능성 개념 또한 포함하게 되었다. 올림픽 운동은 국제 스포츠 행사의 개최 과정에서 환경 보호를 중시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운동선수와 대중이 지구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친환경 스포츠 활동’을 실천하도록 장려한다. 또한, 스포츠와 문화, 예술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각국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요컨대, 올림픽 정신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영역을 넘어, 세계화, 윤리화, 인간 중심의 가치 체계로 기능하며, 스포츠를 통해 개인의 전인적 발전, 국제사회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올림픽 운동의 윤리 원칙과 성폭력 예방

1) 올림픽 운동의 윤리 원칙

올림픽 운동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 세계 스포츠계의 핵심적 주체이며, 올림픽 정신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올림픽 운동의 윤리 원칙은 경기 중 모든 개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선수, 코치, 심판, 자원봉사자, 관중 등 모든 참여자를 포함한다. 또한 인종, 성별, 종교, 문화적 배경,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며, 스포츠 및 도덕적 측면에서 최고 기준을 추구하도록 장려한다.

이 원칙은 자기 초월의 정신을 강조하며, 경기에서의 정직, 성실, 공정한 경쟁을 고취하고, 반칙, 도핑, 비윤리적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스포츠를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상호 이해와 연대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간주하며, 스포츠를 통해 문화와 지역을 초월한 조화로운 관계 구축을 추구한다. 올림픽 운동은 인종차별, 성차별, 성적 지향 차별, 종교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며, 모든 참가자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데 전념한다.

2) 올림픽 운동의 성폭력 예방 조치

올림픽 운동 및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다양한 예방 정책과 실천 방안을 제정하였다. 2007년, IOC는 「스포츠 분야의 성희롱 및 학대에 대한 합의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통해 각국이 성폭력 예방 정책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Margo Mountjoy, 2007). 같은 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스포츠 백서」를 발표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강조하였다. 2016년에는 Mountjoy 등 연구진이 주도한 「스포츠 내 괴롭힘 및 학대(비우발적 폭력) 보고서」가 발표되어, 기존 합의 성명서보다 한층 심화된 내용—심리적·신체적 학대 및 방

임 사례—를 제시하고, 구조적·문화적 개입 및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 유럽연합 스포츠 전문가 그룹은 「청소년 운동선수 보호 및 아동의 스포츠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Mountjoy M et al, 2016).

IOC는 성희롱, 성적 학대, 성폭력의 모든 형태를 명확히 금지하며, 「2024년 IOC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합의(IOC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Consensus 2024)」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국가 및 지역 올림픽위원회에 성폭력 예방 정책 및 실행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선수, 코치, 심판, 관리자 전원이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다(Tuakli-Wosornu,2024).

교육 내용에는 개인 경계 존중, 폭력 징후 인지, 안전한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된다.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IOC는 비공개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올림픽 기간 중 현장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전담 안전 요원, 심리 상담 지원, 신고 전용 핫라인 등을 설치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전 방위적 지원이 제공되며, 회복 중심의 보호 계획이 마련되어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한다.

IOC는 전 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전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팀-조직문화 전반의 구조적 변화까지 포괄하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기적인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 포착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위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고 있다.

최근 IOC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올림픽 운동 내 폭력 문제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향후에는 통일된 글로벌 기준의 확산, 국가 간 협력 강화,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강한 올림픽 생태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윤리 원칙과 예방 조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올림픽 운동은 전 세계 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존중과 포용이 살아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3.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아젠 다 2020 / 2020+5」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원칙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아젠 다 2020」 및 그 후속 전략인 「올림픽 아젠 다 2020+5」를 통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원칙과 실행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 운동의 청렴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조로 작동한다.

1) 굿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

「올림픽 아젠 다 2020」은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IOC 및 그 산하 기구의 투명성, 책임성, 윤리적 기준, 포용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Olympic Agenda 2020 - 20+20 Recommendations,2014).

무엇보다 투명성은 굿 거버넌스의 핵심 기조로 간주된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선수, 코치, 각국 올림픽위원회, 일반 대중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IOC의 결정 절차 및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IOC는 정기적으로 재무 현황, 전략 목

표, 사업 실행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공공 신뢰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책임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강조되는 요소는 책임성 강화이다. IOC의 각급 지도자 및 구성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감시 체계 및 보고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고도화된 회계 감사, 내부 통제,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경영 실패와 권력 남용을 예방하고, 조직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감시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청렴성(Integrity)과 윤리 기준은 굿 거버넌스의 중심 요소로서 기능한다. IOC는 모든 구성원이 윤리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부패·사기·이해충돌 등의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IOC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조되며, 이 위원회는 자문·평가·감독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의 윤리적 준수 상태를 보장하고, 올림픽 운동의 도덕적 기반과 공공 신뢰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Olympic Agenda 2020 - 20+20 Recommendations, 2014).

한편, 「올림픽 아젠 다 2020」은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IOC는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문화적 다양성, 성별 평등, 사회적 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배경, 성별, 지역을 아우르는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스포츠 공동체의 다원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올림픽 운동을 이끄는 IOC는 특히 성별 평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이자 「올림픽 헌장」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IOC는 UN 여성기구(UN Women)의 “캠페인에 동참하며,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UN Women & IOC, 2023).

「올림픽 아젠 다 2020」은 올림픽 운동의 전략적 청사진으로서 올림픽 가족 전반의 성별 균형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OC 여성과 스포츠 위원회 및 선수 위원회가 주도하는 성 평등 점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IOC는 각 국제 경기연맹(IF)과 협력하여 올림픽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50%에 도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기 종목의 수를 확대하고 여성의 출전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혼성 종목(Mixed-gender Events) 확대를 장려하고 있으며, 「올림픽 아젠 다 2020」의 제11호 권고에서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올림픽 이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공식화하였다(IOC, 2014).

Marisol Casado가 이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성 평등 실무그룹은 올림픽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올림픽 운동 내 성 평등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본 검토는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경기장 안팎에서의 성 평등 증진을 목표로 하며, 이 목표는 오늘날 올림픽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공동된 지향 점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 결과, IOC 성 평등 점검 프로그램은 2018년 2월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전면적인 승인을 받으며 제도화되었다(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 Report, 2018).

IOC는 성 평등 증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를 달성 하였다. 첫째,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의 성비 균형을 실현 하였고, 둘째, 여성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으며, 셋째, 성 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 하였다. 넷째, 스포츠 행정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여성의 지도적 역할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올림픽 아젠 다 2020」 제11호 권고사항이 성 평등의 핵심적 지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한 데서도 드러난다. 동시에 여러 올림픽 관련 이해당사자들도 여성과 소녀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

한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별 포용성의 문화적 기반을 넓히고 있다. 또한, 이 아젠 다는 참여성의 제고, 특히 선수의 거버넌스 참여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IOC는 선수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선수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청취되고,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선수를 단순한 경기의 주체를 넘어 스포츠 거버넌스의 참여자이자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고 있다.

종합하면, 「올림픽 아젠 다 2020」은 투명성, 책임성, 청렴성, 포용성, 참여성이라는 거버넌스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국제 올림픽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향후 글로벌 스포츠 조직의 거버넌스 개혁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2) (Agenda 2020 / 2020+5)의 주요 실행 조치

「올림픽 아젠 다 2020」 및 그 후속 계획인 「2020+5」는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기본 원칙을 계승함과 동시에, 국제 스포츠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의 현대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실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 스포츠 기구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에 부응함과 동시에, 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거버넌스 체계 강화 측면에서 IOC는 각 회원 조직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거버넌스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엄격한 운영 지침 및 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이를 국제적 수준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IOC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제3자 감사 및 거버넌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로써 IOC의 제도 구조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점검이

가능해졌다.

투명성과 공개성 제고에 있어 「아젠 다 2020」과 「2020+5」는 모든 주요 결정의 근거, 절차,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감시를 수용할 것을 명확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IO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무 보고서, 예산 편성, 수입원 및 자금 배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모든 재정 활동이 추적 가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 하에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리를 위해 IOC는 보다 정교한 이해충돌 신고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후원 계약, 상업적 거래, 재정 관계 등 잠재적 충돌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반부패 제도 및 내부 고발 보호 체계도 강화되어, 익명성과 보호 조항을 갖춘 신고 채널을 통해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윤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IOC는 선수 권익 보호 및 거버넌스 참여 확대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하나는, 선수위원회(Athletes'의 권한을 확대하여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수립과 감독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하나는 선수들을 위한 심리 지원, 진로 전환 지원, 법률 자문 등 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의 권리와 존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IOC는 거버넌스 체계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독립 감독 및 감사 기구를 신설하였다. 이 기구는 IOC의 의사결정 구조, 운영 모델, 규정 준수 현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 보고서 형태로 사회에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제도적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올림픽 아젠 다 2020」 및 「2020+5」는 단순히 거버넌스 원칙

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이념에서 실행으로의 전환은 IOC 자체의 거버넌스 수준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조직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올림픽 아젠 다 2020+5」의 심화된 강화 조치

「올림픽 아젠 다 2020+5」는 「올림픽 아젠 다 2020」의 전략적 연장선으로서, IOC 거버넌스의 실행 경로를 더욱 심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의 지속적 혁신과 책임 이행에 지대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아젠 다는 기존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포용성 등의 핵심 원칙을 계승함과 동시에, 디지털 화, 지속가능성, 글로벌 협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Olympic Agenda 2020+5, 2021 & Midway Report 2021, Nicolliello, 2021).

무엇보다도, 아젠 다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한다.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IOC는 디지털 거버넌스 도구와 방법론을 적극 도입하여 조직 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한 자원 배분 최적화, 리스크 식별 및 사전 경고 시스템 구축,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이해관계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등은 거버넌스의 효율성·개방성·응답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음으로, IOC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모든 올림픽 관련 조직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올림픽 대회의 조직 방식뿐 아니라 파트너 사, 스폰서, 협력 기관 등 전체 생태계의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속가능성과 책임경영

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도록 유도한다.

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아젠 다 2020+5」는 조직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OC는 본부 및 회원 조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위 경영진부터 실무 인력에 이르기까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실행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동시에, 표준화된 지침과 ‘거버넌스 툴킷(governance toolkit)’을 개발하여, 각국 올림픽 조직들이 일관성 있고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젠 다는 글로벌 협력 및 파트너십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IOC는 각국 정부, 유엔 산하 기구, 다국적 기업, 시민사회 단체 등과의 다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거버넌스 기준의 공동 개발과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플랫폼을 통해 IOC는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른 스포츠 조직에 제도적 참고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올림픽 아젠 다 2020」과 그 확장판인 「2020+5」는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다. IOC는 굿 거버넌스가 올림픽 운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초석일 뿐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평판을 보호하는 핵심 메커니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아젠 다는 IOC가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도덕적 리더십과 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정성·투명성·포용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올림픽 미래를 향한 실천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4. 국제올림픽위원회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합의문 (IOC Consensus on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in Sport)」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발표한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합의문」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인 폭력—예컨대 성 폭력, 신체폭력, 심리폭력, 괴롭힘, 방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마련된 포괄적 기준과 실행 지침이다. 본 합의문은 특히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핵심 목적으로 하며, 국제 스포츠계의 윤리적 책임과 실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Yetsa A Tuakli-Wosornu et al, 2024)

1) 합의 형성 배경

IOC는 최근 수년간 스포츠 계 전반에서 대두된 폭력 사건과 그 심각성, 그리고 국제 사회의 비판적 시선에 주목하여, 구조적이고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IOC는 본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 스포츠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보호 전략을 포괄하는 정책 문서이다. 해당 합의는 글로벌 스포츠 폭력 관련 데이터와 학술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델파이(Delphi) 조사법을 통해 총 58인의 국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의 검토와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의 합의 조항을 도출하였다.

2) 합의문의 핵심 내용

IOC는 본 합의문에서 전체 시스템 접근(whole-of-system approach)을 핵심 원리로 설정하였으며, 개인·팀·조직·문화 차원에서의 다층적 개입 없이는 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43개 합의 조항은 다음과 같이 주요 범주로 나뉘며, 특히 다섯 가지 일반 권고 사항은 모든

스포츠 조직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으로 기능한다.

(1) 일반 권고 사항

첫째, 합의문은 스포츠 조직의 책임성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국제 연맹, 국가올림픽위원회, 지역 클럽, 학교 체육기관 등 각 조직은 자신이 위치한 구조 내에서 주체적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다층적이고 연계된 보호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둘째,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신고 체계의 구축이 강조된다. 핫라인, 온라인 양식, 익명 우편함 등 다채널 접근 방식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자의 비밀 보호와 2차 피해 방지가 보장되며, 이는 피해자의 발화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된다.

셋째, 폭력 인식 제고 및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성폭력·신체폭력·심리적 학대 등 유형별 사례에 대해 선수, 코치, 관리자 모두가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은 단편적 정보 전달을 넘어, 실천 가능한 윤리 감수성과 대응 프로토콜 숙지를 포함한다.

넷째,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공동 실천 체계 구축이 강조된다. 이는 IOC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정부, NGO, 민간 부문이 연계하여 제도 설계, 자원 공유, 기준 통합 등의 차원에서 연대와 일관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속적인 모니터링·평가·피드백 체계를 통해 보호 정책의 실행력과 적합성을 점검할 것이 권고된다. 보호 활동에 대한 데이터 수집, 사례 분석, 효과 평가 및 지속 개선을 통해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스템 차원의 보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은 스포츠 분야의 예방-개입-평가-개선의 순환적 실행 체계를 제도화하며, 모든 참여자의 인권 존중, 안전 보장,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한 스포츠 환경 조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2) 주제별 권고사항(Thematic Recommendations)

본 합의문은 추가적으로 33개 분야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스포츠 내 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 방위적·다층적 보호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들 권고사항은 폭력의 개념 정의, 위험 예방, 사후 대응, 조직 문화 개선, 데이터 기반 지원 등 핵심 영역 전반을 포괄하며, 실행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며 지속 가능한 글로벌 종합 지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폭력의 정의 및 인식 제고에 있어 본 문서는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성폭력, 방임,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의 대인 폭력의 범주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유형화는 스포츠 계 전반의 폭력에 대한 이해를 통일하고,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입 실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코치, 선수, 관리자 등 관계자들이 폭력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폭력 식별을 위한 도구와 실천 지침을 개발·보급할 것을 강조한다.

위험 예방 전략 측면에서, 문서는 훈련장, 경기장, 숙소 등 고위험 공간을 중심으로 위험 평가 체계의 구축 및 강화를 제안하며, 폭력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접근 방식을 권장한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적 가해자 및 고위험 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에게 윤리 행동 수칙, 상호 존중 원칙, 보호 절차 및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및 예방 역량을 향상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 사건 발생 후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신고·조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의료·심리·법률 등 다차원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전인적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 시 ‘트라 우마 인식 돌봄(trauma-informed care)’원칙을 적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도주의적 회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조직 문화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위계적 조직 문화를 재구성하고, ‘보호와 존중’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문화 조성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제도 설계의 재정비뿐 아니라, 조직 내 가치관 변화와 리더십 책임 강화, 정책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환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및 연구 기반 강화도 중요한 축으로 제시된다. 문서는 실증 연구 확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설계 및 정밀 개입 전략 수립을 권장하며,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 스포츠 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의 정기 발간을 통해 스포츠 단체의 정책 결정을 지원할 것을 촉진한다.

이처럼, 본 합의문에서 제시된 33개 주제별 조치는 개념 정립부터 제도 개혁, 개별 보호부터 문화 환경, 실천 지침부터 연구 기반 구축까지 스포츠 폭력 대응의 전 과정에 걸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가 스포츠 폭력 문제를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해당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전 세계 스포츠 환경은 보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행 권고사항(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스포츠 분야에서 보호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해, 본 합의문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섯 가지 이행 권고사항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들 권고는 각급 스포츠 조직이 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실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속적 개선과 다자 협력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보호 체계가 다양한 환경과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책임체계의 구축은 보호 정책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된다. 스포츠 조직은 전담 부서 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명확한 역할 분담을 확립하고, 제도화된 감시 및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보호 정책이 조직 전반에서 일관되게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 구조는 최고 의사결정자부터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하여, 관리 사각지대나 책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직 전체의 책임 연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본 문서는 외부 전문가 및 사회 조직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보호 체계의 과학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심리학자, 법률 전문가, 아동권리단체, 인권기구 등과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교육 과정 개발,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사건 처리 절차에의 참여 등을 통해 대응의 합법성·합리성·인도주의 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수립을 통해 보호 조치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명확한 목표 설정,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 자원 배분 체계 마련, 성과 평가 지표 설정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호 조치는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지침으로 기능하게 된다.

넷째, 모든 스포츠 활동 장면에서의 보호 조치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혼

런, 경기, 합숙, 전지훈련뿐 아니라 기숙사 생활, 방과 후 활동 등 비공식적 공간까지 보호 정책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면별·상황별로 보호가 균질하게 작동해야만, 실질적인 위험 예방과 운동선수의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

다섯째, 문서는 보호 정책의 정기적인 검토 및 최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제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오차나 사각지대를 수정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 요인과 사회적 요구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보호 체계가 지속적인 선제성과 적응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요컨대, 이 다섯 가지 권고사항은 거버넌스 구조, 외부 협력, 실행 기획, 현장 적용, 정책 개선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실행 프레임워크로서 작동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급 스포츠 조직은 보다 안전하고, 존중과 책임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3) 전체 시스템 접근(Whole-of-System Approach)

‘전체 시스템 접근(Whole-of-System Approach)’은 스포츠 내 폭력 문제가 단일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행동, 대인 관계, 조직 문화, 제도 구조 등 다양한 층위의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 속에서는 단편적이거나 일회적인 개입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적이고 다층적인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선수 스스로의 보호 역량과 신고 능력 제고가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폭력 인식 교육을 넘어, 폭력 신호의 식별, 권리의 이해, 대응 전략 숙지 등 실질적 능력을 포함하며, 동시에 신고 시스템의 제도적 안전성과 접근 가능성 보장을 통해 선수들이 위협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용기와 구조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 관계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팀 분위기와 상호 신뢰 기반의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지도자, 동료, 관리자 간 원활한 소통과 상호 존중은 괴롭힘 및 권력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주요 보호막이 되며, 또래 지지 시스템(peer-support system)을 마련하고 열린 논의 문화와 상호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고립감 해소와 조기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명확한 규정과 실행력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행동강령 수립, 보호 정책 제정, 감독 체계 구축, 교육 제공 등을 포함하며, 조직 자체가 폭력의 위험 요소가 아닌 예방 주체로 기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은 조직 내부의 신뢰와 책임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 장치가 된다.

끝으로, 문화적 차원에서는 스포츠 계 전반에 걸쳐 '존중·보호·책임'중심의 가치 지향성을 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정책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관리자, 지도자, 관중, 언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인식 전환을 필요로 하며, 선수의 안전과 존엄을 스포츠 정신의 핵심 가치로 통합하는 문화적 흐름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캠페인, 모범 사례의 확산, 공공 정책 연계를 통해 보호와 존중이 스포츠의 주류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전체 시스템 접근은 개인 역량 개발-관계망 회복-조직 제도화-문화 인식 개선이라는 네 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개입 프레임워크이다. 이러한 방식만이 스포츠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며, 인간 중심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4) 합의문이 기대하는 효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 분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력 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포츠 계 전반의 폭력 민감성과 대응 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관련 종사자들이 폭력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스포츠 시스템 전반이 제도적·문화적 차원에서 '폭력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태도를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IOC는 스포츠 분야에서 예방-발견-개입-회복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보호 조치가 단순한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의 조기 인지와 경보 체계 구축, 일상적 모니터링과 윤리 교육 강화, 사건 발생 이후의 심리·법률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의 전면적 회복과 스포츠 복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함의한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IOC는 명확한 기준과 실천 가능한 조치의 체계적 도입을 통해 폭력 사건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폭력 유형의 명확한 정의, 신고·조사 메커니즘의 구축, 보호 정책 이행과 평가 시스템, 전문적 훈련 체계 수립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각급 스포츠 조직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버넌스의 통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IOC는 모든 스포츠 참여자의 기본 인권, 특히 취약계층 및 청소년 선수의 보호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발전 환경에서 미성년자, 여성, 장애인 등은 권력 구조의 주변부에 위치해 있으며, 폭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안전하고 공정하며 존중이 보장되는 스포츠 환경 조성은 스포츠 활동의 윤리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스포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토대로 작용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IOC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합의문」은 거버넌스 구조, 제도 설계, 문화 형성, 인권 보장에 이르는 다차원

전략을 명확히 제시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국제 지침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합의문은 단순히 제도적 규범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모든 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인권 존엄성에 대한 깊은 배려를 담고 있으며, 글로벌 스포츠 거버넌스가 보다 인간 중심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5. 중국 스포츠 현장의 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

중국 정부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체계를 다각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이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제도와 운영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다.

1) (2021년) 「체육총국·공안부의 경기장 내 행위 규범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

2021년에 발표된 「체육총국·공안부의 경기장 내 행위 규범 관리 강화에 관한 의견」은 스포츠 경기장의 질서 유지와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문서로, 중국 내 스포츠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화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 경기장 폭력, 악의적 충돌, 질서 교란 행위 등을 강력히 억제하고, 문명적이고 안전하며 조화로운 경기 및 관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해당 문서는 관련 기관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공안 기관은 경기 안전 보장을 위한 지도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보안 허가 심사, 안전 조치 시행 지도, 형사 사건 및 치안 문제의 법적 처리를

담당한다. 이에 대응하여 체육 행정 부서는公安 기관과의 연계 메커니즘을 통해 긴급 사태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전국 및 지방 단위의 종목별 체육 협회는 경기장 행위 규범의 제정과 실행 책임을 지며, 경기 중 심각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책임 메커니즘은 경기 승인, 운영, 질서 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적용되어 스포츠 현장 거버넌스의 체계성과 권위성을 한층 제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 조치로는, 관리 소홀이나 조직력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한 주최 측에 대해 체육 행정기관이 시정 명령 또는 벌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기 행위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公安기관이 법에 따라 개입하고 공동 처리하여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을 엄중히 책임지도록 하였다.

또한, 선수, 지도자, 경기 관계자, 관중 등 직접적인 위법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할 체육 협회가 정관에 따라 징계하고, 필요시公安기관에 이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스포츠 단체의 자율 징계와 국가 법 집행 간의 연계 구조를 제도화하였다. 이로써 집행력과 공공 신뢰도가 동시에 제고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본 문서가 외국 국적의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범과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 개최되는 경기 참여 시,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적 규범과 행위 기준 하에 관리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과 권위성이 확보된다.

이 정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5년간 유효하며, 전국 모든 수준과 유형의 스포츠 경기에 적용된다. 이는 스포츠 분야 법치 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문건으로 평가되며, 중국이 스포츠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경기장 질서 관리의 제도화·표준화·법제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2)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5-2025)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은 전 세계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권리 실현을 목표로 한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국제 계획으로 평가된다. 이 강령은 1995년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89개국 정부의 합의를 통해 채택되었으며, 고용과 경제, 정치 참여, 평화, 환경, 여성폭력 철폐 등 12개 주요 행동 영역(‘중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025년은 본 강령 채택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는 여성주의 운동의 전환점이자,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옹호하고, 성평등과 권력 구조의 재조정을 요구하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기로 간주된다.(UN Women, 2025).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이 발표된 이래, 전 세계는 여성과 소녀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법적 보호, 서비스 지원, 경제적 권한 부여, 평화 구축 등 핵심 영역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먼저, 법적 측면에서 이 강령은 성별 폭력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입법 활동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95년 당시 12개국에 불과하던 관련 법률이, 현재는 193개국에서 총 1,583건에 이르는 성별 폭력 방지 법률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가정폭력 관련 법률만 354건에 달한다. 일부 국가는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폭력 양상—예컨대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적극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또한, 각국 정부는 점차적으로 폭력 생존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쉼터,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명전화(핫라인)도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100개국 이상에서는 법 집행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생존자 보호와 정

의 실현, 폭력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1995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용 상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체계가 거의 보편적으로 확립되었으며, 여성의 무급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확대도 병행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 부문에서의 성 격차가 유의미하게 축소되었으며,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능력이 실질적으로 제고되었다.

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도 본 행동강령은 여성의 역할 전환을 강력히 촉진하였다. 2010년 당시 단 19건에 불과하던 「여성과 평화 및 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국가행동계획은 현재 11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강령은 여성에게 평화협상, 분쟁 이후 재건, 분쟁 중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권리를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행동계획의 현장 실행 과정에서는 예산 배분과 정책 이행의 불균형, 제도적 정착의 미비 등 여러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적인 정부 차원의 투자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표 3 참조).

표 3 《베이징 행동 강령》의 체육 폭력 반대 성과와 도전 일람표

분야	주요성과	현재도전과제	정책경로
법제도 및 권리보호	성별 폭력 관련 법률 1,583건 제정, 가정폭력조항 354건 포함	법집행력 및 예산배분의 부족, 반페미니즘 입법 압력	법집행력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체계 구축
서비스 지원	100개국 이상에서 핫라인 및 지원 서비스 제공, 경찰 대상 교육 확산	보건·심리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농촌 지역 접근성 부족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 표준 운영 매커니즘 구축
경제적 역량 강화	고용상성차별금지법 제정, 무급 돌봄 부담 완화 정책 시행	성별 임금 격차 지속, 디지털 노동 환경에서의 안전 문제	재정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 기술 기반 여성 권한 강화
정치적 참여	여성 국회의원 비율 27%, 112개국에서 국가 행동 계획 수립	정책 후퇴, 여성 정치인의 낮은 처우	할당제 정책 지속, 제도적 보장 장치 강화
위기 대응	여성 대상 행동 계획 추진, 젠더 관점의 위기 대응 모델 개발	기후 변화와 무력 충돌이 여성에게 미치는 이중적 영향	성인지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출처: UN Women.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at 30: How it transformed the fight against gender-based violence.” 2024. IPU. Women in Parliament 1995-2025 (Report & Press Release, 2025-03-08).

3) (2024년) 《체육경기 활동의 경기풍기 및 경기기강 관리방안》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경기 활동의 경기풍기 및 경기기강

관리방안》은 중국이 체육경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중요한 제도적 조치로, 체육 거버넌스 체계의 세분화 및 체계화를 위한 핵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다. 본 방안은 ‘예방 중심, 처벌과 예방의 병행, 시스템적 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경기 전 과정과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國家體育總局政策法規司, 2024).

이 방안은 전통적인 경기 부정행위뿐 아니라, 경기 중 발생하는 폭력 행위를 명시적으로 위반 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 도덕성과 안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중시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이는 최근 빈발한 스포츠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자,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 (zero-tolerance)’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핵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 책임의 명확화이다. 국가체육총국, 각급 체육협회 및 지방 체육행정기관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하 연계된 책임 분담 체계를 통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전 과정 통제 메커니즘이다. 경기 기획 단계의 사전 심사, 경기 중 실시간 감독, 경기 후 위반 사항의 조사 및 처벌까지 전반적이고 폐쇄된 순환 형 관리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조기 경고 및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 및 홍보의 일상화이다. 경기 전·중에 걸쳐 선수, 청소년, 관계자를 대상으로 체육정신과 핵심 가치관 교육, 경고성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규칙 의식과 도덕적 자율성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내재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넷째, 위반 행위의 포괄적 정의이다. 모욕적 언행, 신체적 폭력, 질서 문란 등의 현장 행위뿐 아니라 조직적 책임 회피, 도덕적 타락 등 관리적 차원의 위반 사항도 포함하여, 선수, 코치, 관중, 주최 측 등 모든 주체에 법적·규범적 책임을 부여하였다.

또한, 본 방안은 명확한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일반 대중의 참여와 감독

을 장려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출전 정지,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부과하며, 위법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이관되어 법률과 행정의 이중 제재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약하자면, 《체육경기 활동의 경기풍기 및 경기기강 관리방안》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행위 기준과 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명확화 함으로써,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경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체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향한 국가적 의지를 제도적으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 〈체육경기 활동 안전감독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견〉 (2021년)

2021년에 발표된 《체육경기 활동 안전감독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견》은 중국 정부가 체육경기 활동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중요한 정책 지침 문서이다. 본 문서는 비록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관리 범위는 경기 현장의 질서 유지와 폭력 행위 대응까지 포괄하고 있어, 체육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다차원적 안전 리스크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國家體育總局,2021).

우선, 본 의견은 ‘경기별 맞춤형 안전대책(一賽事一方案)’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경기 주최 측이 준비 단계부터 안전보장 및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비한 명확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안전 위협이 제거되지 않거나 현장 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은 즉각적인 ‘중단(熔断)’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시 경기 자체를 종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사소한 위협이 중대한 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중심, 신속 대응의 거

버넌스 전략을 반영한다.

또한, 본 문서는 공안, 교통, 응급관리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다부 처 연계 메커니즘 구축과 종합 안전 훈련의 실시를 통해 폭력 충돌, 군중 압사, 교통마비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부처 간 협업은 정보 공유와 현장 지휘의 효율성을 높이고, 응급 대응의 전문성과 실 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의견서는 관리 소홀이나 감독 부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가 심각히 혼란스러워진 경우, 주최자 및 감독 책임자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는 경기 주최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관련 정부 감독기관에도 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실행력을 요구하는 조치로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체육경기 활동 안전감독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견》은 비록 물리적 안전사고의 예방을 중심에 두고 있지만, 현장 질서 통제 및 폭력 개입 관련 조항을 통해 사실상 ‘물리적 안전에서 행위 안전으로’ 확장된 스포츠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일련의 제도 설계와 책임 체계를 통해 이 문서는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며 규범화된 체육경기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5) 학교 체육 현장의 안전 및 위험 방지 관리

각급 학교의 체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연령이 낮고 신체적으로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으며, 안전 의식 또한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체육 부상 및 폭력 행위의 고위험 집단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15년 《학교 체육운동 위험방지 잠행방법(學校體育運動風險防控暫行辦法)》을 제정하여, 학교 체육 활동의 안전성과 위험 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학교 체육 안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教育部,2015).

본 《방법》은 먼저 각 학교가 체육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운동 공간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며, 노후화된 설비나 설계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육 교사 및 지도자의 전문 자격과 안전 교육 수준을 제고하여,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을 과학적으로 지도하고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부적절한 지도 행위로 인한 우발적 부상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긴급 상황 대응 측면에서, 해당 문서는 각 학교가 구체적인 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과 구급 자원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운동 중 부상이나 돌발 질병 등에 대해 현장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제도적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이 시기에 함께 시행된 관련 정책과 실행 방안은 교사와 학생의 위험 예방 의식 및 안전 교육의 강화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규 수업, 강연, 모의 훈련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적인 자기 보호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교사에게는 일상적인 교육과 관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심리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잠재적인 학교 폭력이나 신체 손해 사건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개입할 책임이 강조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학교 체육운동 위험방지 잠행방법》 및 동시기 시행된 연계 정책들은 ‘예방을 우선하고 예방과 대응을 병행’하는 국가의 학교 체육 안전 거버넌스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설 관리, 인력 양성, 제도 구축, 안전 교육 등 다층적인 방어선을 통해 비교적 완성도 높은 학교 체육 위험 방지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체

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6) 분야 간 협력 거버넌스 모형

중국의 체육 안전 및 폭력 방지 거버넌스 과정에서는 점진적으로 분야 간 협력 거버넌스 모형을 중심으로 한 종합 관리 체계가 형성되어 왔다. 이 모형은 공간, 체육, 교육, 응급관리 등 다양한 기능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다부 처 연계와 업계 자율·대중 참여’라는 다원적 협력 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전체적인 감독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의 체육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참여도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 모형은 상향식(top-down)의 체계화된 특성을 지닌다. 중앙 정부는 정책 법규의 공포 및 지침 목표 설정을 통해 체육 안전 거버넌스의 통일된 정책 틀과 제도 방향을 제공하며, 각 분야별 협회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업계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 및 기층 차원에서는 대회 주최 기관, 학교, 체육 클럽 등이 실질적 책임 주체로서, 중앙 및 업계의 지침에 기반 하여 구체적인 관리 조치 및 현장 감독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하 연계 체계는 관리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동시에 정책 집행의 반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 간 협력 체계는 대중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체보 체계 구축, 공공 감독 채널 개방, 홍보 및 교육 체계 확산 등을 통해 선수, 지도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일반 대중이 경기 안전 및 행위 규범의 감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공동 구축-공동 관리-공동 향유의 선순 환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있다.

종합하면, 이와 같은 분야 간 협력 거버넌스 모형은 현대 체육 거버넌스 이념의 핵심 구현이자,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체육 안전 및 반 폭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 이는 단일 기관에 의존한 분절적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조직-시민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표4 참조).



표 4. 중국 체육 현장의 폭력 예방 및 관리 체계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및 조치내용
	2021년「행위규범에 관한 의견」, 2024년 「경기풍기·경기기울 관리방제도 및 법규 법」 등 핵심 문서를 통해 경기장 폭력의 정의, 감독 절차, 처벌 메커니즘을 명확화
역할분담	공안은현장질서관리,체육국및협회는업계규범설정,조직자는제도수립및공안과의협력수행
예방중심	교육훈련,사전위험평가,전과정감독및위험대응시나리오마련
예방과처벌병행	폭력행위발생시참가자·관중에대한징계또는사법이관,주최자및감독기관 의책임명시
연계대응	다부처협력체계,제보시스템및공개투명성확보를통한통합형거버넌스실현

출처: 《体育总局 公安部关于加强体育赛场行为规范管理的若干意见》（体规字〔2021〕2号, 2021年6月1日起施行）

《体育赛事活动赛风赛纪管理办法》（国家体育总局令第33号, 自2024年7月1日起施行）

6. 기타 국가의 스포츠 폭력 대응 정책 및 중국에 주는 시사점

1) 캐나다 ‘세이프 스포츠(Safe Sport)’메커니즘 개요

2019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안전한 스포츠 행

동 계획(Safe Sport Action Plan)」을 발표하며,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폭력, 괴롭힘 및 심리적 피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예방 중심, 개입 보완’의 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제도화된 관리체계 및 행위 규범 정립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Feng, O., & Duncan, L. R. 2025).

우선, 캐나다는 스포츠 청렴 전담 국(Office of the Sport Integrity Commissioner, OSIC)을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기존 스포츠 조직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 스포츠 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 부적절 행위, 괴롭힘 및 심리적 손상 등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전담 처리한다. 이는 과거 ‘자체 감독’체계가 가진 권력 보호 장벽을 허물고, 신고자에게 신뢰 기반의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사후 책임 추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캐나다 정부는 전국 모든 스포츠 단체가 통합 행동 강령(UCCMS: Universal Code of Conduct to Prevent and Address Maltreatment in Sport)에 서명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강령은 폭력과 부적절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지도자·선수·기술관계자·운영자 등 모든 주체가 다양한 스포츠 상황에서 따라야 할 윤리적 의무와 규범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체 스포츠 시스템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전국 차원의 ‘안전한 스포츠 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모든 지도자,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에게 활동 시작 전 권력 역학, 정신 건강, 젠더 감수성, 윤리 교육 등을 포함한 의무 교육 이수 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종사자들의 사전 예방 인식과 책임 문화를 고양시키고, 시스템 내 경고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지원 서비스 측면에서도, 캐나다는 24시간 전문 핫라인, 익명 암호화 신고 시스템, 전문 심리상담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밀보장·접근 용이성·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캐나다의 “메커니즘은 스포츠 폭력 대응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보지 않고, 조직 구조와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독립적 책임 체계, 윤리 규범 강화, 전문적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스포츠 시스템의 전반적인 대응 역량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켰으며, 이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스포츠 안전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2)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Safe Sport Center)’제도

2017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미국 체조 성폭력 스캔들’등 일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역사적인 「청소년 성학 대 방지 및 안전한 스포츠 법(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청소년 스포츠 참여자의 안전 보장을 국가적 입법 수준으로 격상시킨 첫 사례로, 동시에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U. S. Center for Safe Sport)의 설립 및 운영 권한을 공식 부여함으로써, 미국 스포츠 폭력 예방 시스템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는 스포츠계가 운동선수,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 단순한 도덕적 호소에서 법적 책임 이행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European Commission, 2007).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는 제도 설계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지니며, 그 체계성과 실효성을 보여 준다. 첫째, 해당 센터는 법적 권한에 기반한 독립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 및 산하의 모든

국가 스포츠 단체 내부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증거 수집, 사실 조사, 판정 및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센터는 법에 따라 출전 정지, 자격 박탈, 지도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를 내릴 수 있어, 억제력과 집행력이 크게 강화 되었다. 둘째, 센터는 익명 온라인 제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수·학부모·제3자 등이 비공개 방식으로 정보 및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간 2,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건 결과는 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되어 투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억제 효과도 발휘하고 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측면에서 센터는 심리상담가, 법률 전문가, 아동 보호 전문가, 독립 조사관 등으로 구성된 다분야 전문가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 법률 조언, 사건 후속 절차 전반을 포괄하는 원 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권리 구제비용을 줄이고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센터는 전국 고위험 스포츠 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과거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코치 및 관리자 명단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스포츠 단체가 신규 채용 및 인사 관리 시 배경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가해자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는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체계적 관리로 전환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루었다. 신고 →조사 →개입 →공개 →처벌 →교육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순환 구조(Closed-loop System)를 정착시켜, 미국 내 스포츠 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여러 국가의 제도 설계에 모범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3) 중국 스포츠 폭력 보호 및 예방에 주는 시사점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세이프스포츠 센터(Safe Sport Center)’의 경험은 다음의 핵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법적 권한 강화, 독립적 책임 추궁 기구 구축, 전문 지원팀 구성, 신고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향후 중국이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운영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성을 갖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캐나다와 미국의 성공 사례를 비롯해, 중국 체육 시스템의 거버넌스 취약점과 제도적 공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도 수준에서의 체계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의 개혁 방안들은 중국이 보다 건전하고 과학적인 스포츠 폭력 예방·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향을 제시한다.

(1) 체육 조직 외부의 독립 조사·처리 기구 설립

캐나다의 OSIC 와 미국의 Safe Sport처럼, 신고 사건 처리의 중립성과 권위를 보장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이 기구는 법적 권한을 갖고, 조사·판단·결과 공개 기능을 수행하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은폐를 방지해야 한다.

(2) 전국 단일 스포츠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

현재 중국은 단체별 기준이 상이하고 자율 실행의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캐나다 UCCMS를 모델로 삼아, 코치, 심판, 관리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통일된 윤리 규범을 마련하여, 권한 한정, 언행 기준, 보호 의무 등을 명문화하고, 자격 유지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3) 청소년 보호 메커니즘 강화

청소년 선수는 고위 힘 군으로, 체육학교에서 초·중·고·대학까지 심리 지원 및 안전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담 심리교사 배치, ‘안전 체육’교과 개설, 위험 평가와 조기 개입 체계, 무폭력 선언 문화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4) 전국적 스포츠 폭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징계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은 코치·심판·관리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대중과 체육 기관에 공개함으로써, 고위 힘 인원을 사전 차단하고, 제도 경고와 사회적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5) 코치 직업 인증 및 지속 교육 제도 도입

현재 중국 일부 기초 코치들은 윤리 교육과 심리 지식이 부족하며, 권력 오용에 대한 인식이 낮다. 따라서, 코치 자격 심사에 윤리 교육 포함, ‘권력관계’‘미성년자 보호’등의 주기적 정규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6) ‘안전 스포츠 문화’전국 확산 추진

정책 홍보, 학교 교육,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스포츠 폭력 무관용’원칙, ‘존중·공정·인권’중심의 윤리 내재화를 국민적 도덕 언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전한, 포용적인 스포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캐나다와 미국의 성숙한 메커니즘을 자국의 체계 구조에 맞

취 공정·안전·투명·제도화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올림픽 정신이 강조하는 존중과 보호 원칙은 가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법률·정책·문화의 다양한 층위에서 제도적으로 내재화될 수 있다.(표 5 . 표6 참조).



표 5. 중·외 스포츠 폭력 예방 정책 비교표

차원	중국현황	국제 선진사례(캐나다·미국중심)
신고·제소체계	대부분체육시스템내처리, 학교또는단체주도	독립조사기관(OSIC/Safe Sport),법적권한보유
익명신고채널	익명또는보호메커니즘부족,공중신고시높은위험	핫라인,암호화웹사이트,다국어시스템등다양한익명플랫폼운영관례있음
코치자격심사 및관리	진입장벽낮고,배경조사및지속교육거의없음	의무등록+배경조사+“안전스포츠”연간재인증체계
성·심리폭력정책	수동적대응중심,통일된규범부재	UCCMS 등 통합 행동 강령, 예방 중심의 전면적 교육
청소년보호메커니즘	심리상담및학부모참여체계미비	의무적심리개입시스템,학부모협력교육프로그램운영
징계·투명성	성희롱사건을내부적으로처리,사회적감독기능미흡	온라인검색가능한해자명단,조사및처벌결과강제공개

출처:国家体育总局、公安部(2021):《体育赛场行为规范意见》;国家体育总局令第33号(2024):《体育赛事活动赛风赛纪管理办法》;Sport Integrity Commissioner (Canada)(2022):UCCMS;U.S. Congress:《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2018), Pub.L. 115-126 ;U.S. Center for SafeSport: Centralized Disciplinary Database .

표 6. 중국, 미국, 캐나다의 Safe Sport 체계 비교 연구: 미국 Center for SafeSport 및 캐나다 모델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차원	캐나다	미국	중국현황	개선방향
신고체계	독립플랫폼운영	Safe Sport Center 독립 운영	내부처리중심	독립적 제소 채널구축
교육·훈련	의무적+지속적	코치인증과연계한 재교육	교육은분산·비규칙적	입법기반의 직업교육체계화
심리지원	트라우마 인지 정기상담	피해자회복 메커니즘보유	심리개입기능전무	전담심리지원팀 마련

출처: 캐나다 OSIC/UCCMS, 미국 Safe Sport Act와 Center for SafeSport를 중국의 《행위규범 의견》(2021), 《경기풍기·경기기율 관리방법》(2024), 《학교 체육운동 위험방지 잠행방법》(2015) 조항들과 가로세로로 비교한 뒤, 교육·연구용으로 2차 정리한 대조표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올림픽 운동(Olympic Movement)’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체계가 스포츠 폭력의 예방 및 보호 체계와 어떻게 상호 연계될 수 있는가를 탐색하고, 이러한 가치가 중국 스포츠 실천 현장에서 어떠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스포츠 거버넌스는 잇따른 폭력 사건과 보호 장치의 미비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림픽 정신이 지향하는 존중·공정·포용·평화·인권 등의 가치는 안전하고 존엄하며 질서 있는 스포츠 환경 구축을 위한 윤리적 기반이자 거버넌스 방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제시 한다: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가치 체계는 스포츠 폭력의 예방 및 보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며, 실천적 지침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즉, 국제 스포츠 운동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이념과 정신 자산을 구체적인 제도 설계, 행동 규범, 문화적 지향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나아가 중국의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문제에 실질적 개입과 효과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2. 연구 방법 및 문헌 검색 절차

본 연구는 자료 기반의 과학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스포츠 장

에서의 스포츠 폭력 예방과 올림픽 정신의 적용"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명확한 검색 전략에 따라 문헌을 선정하였다.

문헌 수집 과정에서는 내용의 권위성, 범위의 포괄성, 학술적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체계적 검색 및 교차 검증을 통해 스포츠 폭력 예방과 올림픽 정신의 통합적 적용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중국지식기반(CNKI)은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었다. CNKI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합 학술 플랫폼으로,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윤리, 스포츠 정책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이론적·실증적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스포츠 제도 및 폭력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 확보에 적합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탄탄한 중국 현장 기반의 연구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Google Scholar는 국제적 연구 성과 및 중·영문 비교 자료 확보를 위해 활용되었다. 특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책 문서, 국가 간 스포츠 폭력 예방 메커니즘, 올림픽 정신의 글로벌 실천 경로 등에 주목하였다. 이 플랫폼은 다 언어·다 학제 적 자료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스포츠 폭력 대응 현황을 국제 기준과 비교 분석하고, 연구의 국제적 시야와 비교적 깊이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다.

요컨대, CNKI 와 Google Scholar를 통합 활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이론적 폭, 지역적 대표성, 문화 간 비교 차원에서 내용이 포괄적이고 구조적으로 균형 잡힌 문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후속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견고한 자료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1) 검색 키워드 설계

스포츠 폭력 연구의 다양한 차원을 포괄하고 문헌 검색의 정확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제 중심의 키워드 조합 전략을 설계하여 심층적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간의 교차 조합을 통해 검색 결과의 관련성(relevance)과 포괄성(coverage)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키워드를 활용하였다: “스포츠 폭력” “학교 체육 폭력” “경쟁 스포츠 폭력” “운동선수 보호” “스포츠 거버넌스” “스포츠 윤리” “청소년 스포츠 폭력 예방” 등. 이러한 키워드는 스포츠 폭력 현상의 행위 양상, 발생 장면, 대상 집단, 제도 보장, 윤리적 기반 등 여러 분석 차원을 포괄하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 및 분석 프레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실제 검색에서는 불 연산(Boolean logic)을 적용하여 “”및 “”연산자를 조합 사용하였다. 예컨대, CNKI(중국 지식 망) 또는 Google Scholar와 같은 학술 플랫폼에서 “스포츠 폭력”과 “운동선수 보호”를 AND로 연결하면, 폭력 현상과 보호 메커니즘을 동시에 다루는 문헌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체육 폭력”과 “경쟁 스포츠 폭력”을 OR로 연결하면, 다양한 스포츠 장면을 아우르는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리 기반의 키워드 조합 전략은 문헌 검색의 포괄성, 정밀도, 주제 적합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중요한 문헌의 누락을 방지하고 주제와 연관성이 낮은 자료의 유입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견고하고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 위에서 후속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 풀을 확보하게 되었다.

2) 검색 시기 범위

스포츠 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전개와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를 문헌 검색의 시기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스포츠 폭력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학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 방법론 및 이론적 깊이 또한 한층 성숙해졌기 때문이다.

3) 문헌 선정 및 제외 기준

문헌 고찰의 체계성, 과학성 및 연구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선별 과정에서 명확한 포함 및 제외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료의 질과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우선 포함 기준으로는, 중국 스포츠 현장을 배경으로 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의 지역적 맥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문헌은 스포츠 폭력 행위의 특성, 발생원인 분석을 다루며, 폭력 현상의 예방 메커니즘, 정책적 대응 또는 제도 구축과 관련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적 연구, 실증 분석, 정책 평가 등 다양한 연구 유형의 문헌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분석 프레임을 구성하였다.

반면, 제외 기준으로는 "폭력" 또는 "예방"이라는 핵심 주제에 명시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은 문헌을 제외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집중도를 유지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특수하거나 극단적인 사례만을 다루고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연구 역시 제외하여, 대표성과 외삽 가능성을 보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비공식 자료(예: 일부 인터넷 기사, 수필, 주관적 칼럼 등)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연구 기반의 학문적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한 문헌 선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는 학술적 가

치와 실천적 연관성, 이론적 깊이를 동시에 갖춘 핵심 문헌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분석, 비교, 정책 제언 등 후속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기반과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구축하였다.

3. 체계적 문헌 고찰 —중국의 스포츠 폭력 예방 관련 연구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스포츠 폭력 보호 및 예방에 관한 연구는 법규 개선, 법리 논쟁, 사회·심리 분석, 미디어·문화 담론, 선수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 학제적 병행 진행, 기저 메커니즘 심화 연구 필요”라는 확장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PRISMA-2020 체계적 문헌 고찰 절차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중국어 핵심 저널, 석·박사 학위 논문, 정책 문서 총 94편을 검색·선정하였으며, 코딩 과정을 거쳐 Thematic Synthesis와 Systematic M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5대 주제가 도출되었다: (1) 법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 형법의 정당화 및 책임 범위, (3) 폭력 행위의 메커니즘 및 심리·사회적 요인, (4) 미디어문화 확대 효과, (5) 직업선수 및 청소년 선수 보호. 본 논문은 먼저 해당 연구 분야의 진화 과정을 개괄하고, 이어 각 주제의 발전 양상과 방법론적 지향을 분석하며, 이론적 기여 및 논쟁점을 비판적으로 비교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한 8가지 연구 궤를 제시하고, 올림픽 정신에 기반 하여 중국의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 권고사항과 지침을 제안한다.

1) 거시적 발전 맥락 (2015-2025)

표에 나타난 비교는 세 국가의 제도적 성숙도 차이를 거버넌스·교육·심리 지원·징계 투명성 네 축에서 계량화한 2차 정리 결과로, 중국은 ‘내부 처리

중심' 구조에서 '독립 기구·정보 공개 중심'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이를 위해선 독립 신고·조사 플랫폼 구축, 코치 직업교육의 법정화, 전담 심리 인력 배치, 징계 정보의 공개성 강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표 7 중국의 반(反)폭력 대응 메커니즘 비교: 제도적 진화와 보완 경로 (2015-2024)

주제	명칭	주요문헌(연도)	핵심진화
1	법제및거버넌스프레임워크	유룡(劉龍)2017;공안부(公安部)2017 정책;국무원(國務院)2019의견;국체총국(國體總局)2022방안;중앙광과망(央廣網)2023블랙리스트	“단일집행”에서“협업거버넌스”를거쳐“디지털리스크관리”로진환
2	형법정당화및책임범위	란텐페이(蘭添妃)2024;텐한(田寒)2021;바오이신(包宜鑫)2019;장이룡(張義龍)2023	‘피해자동의→사회적정당성→정당업무’로이어지는3단계논쟁구조
3	행위기제및심리·사회요인	스이앤·가오진(石岩&高楨) 2017; 가오성(高升) 2017; 양스후이(楊詩慧) 2023	집단사건의거시적통계분석에서개별공감결여및동기유형분류로초점이동
4	매체문화확대효과	왕용핑·자오민(王永平&趙岷) 2015; 천용(陳永) 2015; 홍즈화 등(洪志華等) 2017; 두강 등(杜康等) 2021	‘매체폭력→폭력미학→크로스미디어폭력내면화’경로
5	직업및청소년선수보호	린칭(林琼) 2015; 리우위자(劉宇佳) 2022; 쑤통(孫彤) 2020; 왕보&천웨이(汪波&陳偉警) 2024	‘훈련체벌’폭로에서‘시스템실패규명’과법치적교정으로발전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1) 규제 강화 단계 (2015- 2018) : 안전·폭력방지 중심 입법 기초 확립

2015년 이후 중국 중앙 정부는 처음으로 경기장 내 폭력을 공공안전의 맥락에서 법제화하기 시작했다. 『체육 법』 개정안은 “안전 및 폭력 방지”를 정부의 기본 책무로 명시하며, 스포츠 폭력에 대한 관리 체계가 원래의 업계 규제에서 공공안전 거버넌스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劉 龍, 2019; 蘭 添 妃 외, 2024). 이러한 입법 의지는 곧 행정 차원에서도 반영되었는데, 2017년 공안부는 제1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최초로 특별 보안 방안을 발표하며 “팬 갈등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 메커니즘은 갈등 식별, 경찰력 배치, 정보 통보 등의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후 다부 처 협업을 위한 절차적 기준을 마련했다.

(2) 부처 협업 단계 (2019-2021) : 다 부처 ‘분업·연동’메커니즘 구축

2019년 들어 국무원 판공 청은 『대규모 대중 체육·문화 행사 보안 의견』을 발표하며 공안, 체육, 시장 감독 등 관련 부처를 하나의 틀로 통합했다. 여기서 “사전 위험 평가-사중 통제-사후 책임 추적”의 수직적 폐쇄 루프가 확립되었다. 동시에 사법부는 『형법 수정안(11)』의 후보 항목으로 “경기 폭력에 대한 형법 규제”를 포함시켜, 형 사 처벌과 행정 감독의 연결을 촉진했다(업계 종합 리뷰, 2020). 이러한 행정·사법의 이중 주도는 학계에서도 “업계 자치·국가 개입”의 이중 축 모델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촉발했으며, 협회 징계, 언론 감시, 시민사회 개입이 공식적 거버넌스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논의했다.

(3) 정밀 거버넌스 단계 (2022-2025):디지털 리스크 제어 및 명단 제

도입)

디지털 기술이 경기 관리에 폭넓게 도입되면서, 2022년 개정된 『체육경기 활동 관리辦法』는 기존의 보안 체계에 “홍·황 카드 행동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이를 공안 정보 플랫폼과 실시간 연동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위반 정보의 부처 간 공유 및 동적 경고 체계를 구현하였다. 2023년에는 청두, 칭다오 등 주요 경기 구역에서 “팬 블랙리스트”제도와 “경기별 위험 예측 계획”절차를 선도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사전 위험 등급화 경고와 사중 긴급 대응을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동시에 “디지털 감시자”와 “영상 인식”등의 기술이 경기장 폭력 예측 연구에 급속히 도입되며, 향후 저지연 경고와 정교한 개입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방법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 주제 분류 및 발전 맥락

(1) 법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표 8. 중국 스포츠 안전 거버넌스 연구 개관: 주요 문헌의 방법론과 핵심적 발견

대표 저자	연도	자료	연구방법	주요발견
Li u Long (劉 龍)	2017	『체육법』 개정안조 항	제도분석	“안전및폭력방지” 를정부책무에편입하 여형사규제의필요성 을강조
국무원 판공청	2019	국판발 [2019] 28호 문건	문헌해석	공안-체육-시장감 독간‘분업+연동’거버 넌스구조수립
공안부	2017	제13회전국체육대회 보안계획	정책평가	‘팬충돌신속대응 메커니즘’을최초로 도입
국가체 육총국	2022	『체육경기활동관리 辦法』 초안	비교법분석	홍·황카드행위데 이터베이스도입및공 안플랫폼연동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기존 문헌을 종합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심 계보(譜系)로 정리할 수 있다:형사 규제 강화 계보, 산업(업계) 거버넌스 완성 계보, 비교법적 시사점 계보. 정당화 이론 구축 계보.

“업계 자치의 억제력 부족”을 형사 개입의 근본적 배경으로 규정하며, 형사처벌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고 업계 내부의 분산된 징계 및 탄력적 집행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범죄-위험-비용”에 대한 심리적 예측을 형법적 억제를 통해 재구조화함으로써, 프로 리그에서 반복되는 보복적 반칙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汪波 & 陳偉警, 2024). 경미

한 위반에 대해서는 ‘허용된 위험’과 ‘사회적 정당성’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배제하고, 중대한 폭력 행위에는 형사 평가를 부과하는 ‘이중 필터’방안을 제안한다(張義龍, 2023). 양형에서는 스포츠의 신체접촉 특수성과 형법의 보편적 평가 기준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완화’를 채택할 수 있다고 제안 한다. 토텐과 쉬스항은 각각 ‘경기 스포츠 폭력 반칙 죄’ 신설 입법과 ‘목적-반칙-결과’단계 범죄 모델을 제안하며, 미식축구·아이스하키 등에서의 특수 폭력 죄 및 중상해 죄 판례를 참고하여 주관적 악의, 행위의 합법성, 실제 결과를 통합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교의학과 사법 실무의 연계를 도모한다(田寒, 2021; 徐士航, 2019).

‘정당 업무 행위’와 ‘사회 정당성’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며, 과도한 형사화 방지를 강조한다. 이는 선수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경기 고유의 신체적 접촉을 모두 형사 침해로 간주하여 경기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 이다(王開元, 2018 ; 陳芹, 2019 ; 康芳, 2019 ; 任洪宇, 2016). CBA, CSL 등 연맹 규정 및 제재 사례를 비교하며, 처벌 기준의 불일치와 항소 창구의 파편화를 지적했다. 이에 형법, 민법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 도(ADR) 도입을 제안하여 ‘법치-자치’의 역동적 균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다(孫彤, 2020).

이를 바탕으로 ‘층 자율 통제’구조를 제시 한다: (1) 법률의 강제성에 의한 최저선 구축, (2) 업계 행동 규범(일상 규칙, 기술 규칙)을 통한 중층 제어, (3) 스포츠 도덕 및 사회 윤리를 통한 부드러운 견인으로 강·유연 협력 거버넌스를 구현(任磊, 2022). 프로 경기장에서 ‘위험 자담’원칙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민사 배상 기준과 징벌 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여 업계 내부의 ‘약한 제재, 강한 경제 이익’의 경로 의존을 돌파하고, 클럽·연맹이 경기 전 위험 평가 및 경기 후 구제 체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陶婉婷 & 朱坪, 2022).

Hein Online 기반 시스템 검색을 통해 미국 스포츠 법 연구의 여섯 가지 주제를 구분(노사 협상, 반차별, 선수 권리 보호 등)하고, 판례법의 정밀 분석과 법학·사회학·운동의학 간 학제 협력이라는 방법론적 장점을 지적한다. 그녀는 중국 학계가 규범 연구를 유지하면서도 스포츠 경제학·사회학 실증 연구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학문적 확장성과 국제 대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韋沫晴, 2023).스페인 『스포츠 법』을 비교 분석하며, 권리 보장 조항-조직 책임-책임 추궁 메커니즘의 삼위일 체적 입법 구조가 ‘규칙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독립 감독 기구가 규칙 실행을 보장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중국이 『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독립 조사 및 통계 공개 조항을 추가하고, 클럽·연맹·지방 협회의 책임 계층을 세분화하여 데이터 불투명성과 권력 파편화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 한다(姜川, 2023).

‘주관적 의도-결과의 심각성’의 이중 차원 판정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 목적, 반칙 의도 및 폭력 결과의 중대성을 교차 검토함으로써 ‘전략적 반칙’과 ‘보복적 폭력’을 정밀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모델은 형사 귀속 및 스포츠 징계 모두에 적용 가능한 설명력을 지닌다(包宜鑫, 2019). 폭력 사건 책임 추궁에서 사적 녹취 증거의 법적 정당성과 증명력을 주목한다. 그녀는 “공공 감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생활 권 및 증거 결함”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정당화-범 죄화’이분법을 넘어서는 절차적 보장 차원을 확장했다(柴苗苗, 2018).

(2) 형법의 정당화 및 책임 경계

표 9. 형법상 처벌 가능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개관: 방법론과 핵심 발견

저자	연도	자료	연구방법	주요발견
란添妃 & 가릴리(蘭添妃 & 高麗麗)	2024	형사판례	규범분석	'정당 업무 이론'을 제시하여 처벌 가능성을 배제
왕보 & 천웨이징(汪波 & 陳偉警)	2024	업계징계자료	법학해석	형법의 제한 적개 입을 주장
쉬스항(徐士航)	2019	45건사건	교의학분 석	'목적-반칙-결과' 3단계 틀 구축
둔웨이(段威)	2019	판결문	사회학 + 법학	장(field)/관습(habitus)관점에 서 '범죄화곤란' 문제해결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국내 형법학계에서 '경기 스포츠 폭력 및 상해 행위'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정당화 이론, 형사 규제 모델, 위험 분배 메커니즘:

첫째, 독일 형법의 '정당 업무 행위'를 경기 영역에 도입하여, 피해자의 자율적 선택과 내재적 리스크라는 전제 하에 폭력 행위를 허용되는 위험으로 보며 처벌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사회적 정당성'은 공공의 허용 한계 내에서 행위 수단과 결과를 평가하는 외부 기준으로 정의되며, 스포츠 규칙이 면죄를 위한 만능 방패로 전략하는 것을 경계한다(蘭添妃,高麗麗, 2024). 피해자의 요소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며 '자기 책임·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이중 정당화 논리를 제시하고, '행위 정당성-자발적

참여-규칙 예상-대회 목적'의 4요소에 기반 한 대응 체계를 제안했다. 즉, 행위가 경기 목적을 벗어나거나 규칙에서 예상된 위험을 초과할 경우에만 형법이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 이다(王昌杰. 2020).

여기에 '결과 지향'을 추가, '목적→반칙 여부→결과 심각성'의 3단계 교 의학적 분석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정당성'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비판을 보완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실질 적인 연결고리를 마련한다(徐士航.,2019).

또한, 바오이신·캉광·런홍위(2021)는 '사회적 정당성-피해자 동의-형법 보충성'의 삼각 균형을 강조하며, 피해자 동의는 절대적 면제가 아니며 충 분한 정보와 위험 예측이 전제되어야 하고, 내부 징계가 부족할 경우 형법 이 적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2016~2020년 CBA·중초리그·대학 리그의 폭력 사례 분석을 통해, “내부 징계가 경미하고 비효과적이며, 재범률이 27%에 달해 위협 억제 기 능을 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안관리처벌법'은 경미한 혼란만 다 를 뿐 심각한 폭력이나 집단 싸움에는 무력하므로, 내부 징계와 행정 처벌 사이에 '억제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汪波, 陳偉警, 2024).

이에 대해 두 학자는 '중대한 스포츠 폭력 죄'를 신설하고 '고의적 규칙 위반으로 중상 피해 발생 시 징역 3~7년'의 계단식 양형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논의는 2024년 중국 프로축구 중하급리그에서 대규모 폭 력 사건에 대해 최고 수위 처벌(정지 24경기·벌금 44만 위안)이 내려지면서 현실 반영되고 있다.

한편, 경기 상의 '허용된 위험'이 산업화·상업화 과정에서 '상업적 목인' 으로 확대되어 정당성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하며, 형법 총칙에 '정당 업무 행위 조항'을 신설하고, 고대응·고수익 스포츠 종목에 대해 '위험 고 지·상업 보험·응급 치료'의무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王開元. 2018). 이는

2022년 체육법 개정에서 경기 질서 유지와 폭력 근절을 명문화한 조항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42건의 판결과 60건의 불기소 처분을 분석하여 ‘경기 규칙-사회 윤리-형법 절제’의 3중 균형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반칙·상해”만으로 형사 처벌하면 경기의 내적 충돌이 과도하게 범죄 화되고, 스포츠의 공정성과 상업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며, 내부 징계가 충분한 경우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段威., 2015).

민법전의 1176조를 근거로 ‘내재 리스크’와 ‘주관적 과실’을 구분하고, 이중적 책임 분배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경기 규칙에 포함된 허용된 위험과 개인의 주의 의무를 교차 평가하여, 위험 자담과 안전 확보 의무 간에 명확한 기준을 구축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한 학교 체육사고 판례에서 60% 가까운 사건이 이유 없이 취하되거나 화해로 해결되는 성과를 보였다(朱士灵., 2018).

CAS 판례와 국제 비교를 통해 ‘신중한 형사 개입·선수 절차적 항변권’을 제안했다. 그는 극단적 행위에 한해 형사개입하고, 민사·징계 분야에서 선수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제 스포츠 자율 규범과 국내법의 범역 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세 차원(국내 입법-국제판례-산업 자율) 협업 모델을 제안하였다(丁尋韜., (2015).

(3) 폭력 행위 기제 및 심리·사회 요인

표10 선수의 폭력 행위에 대한 연구 검토: 연구 대상, 방법론 및 핵심적 발견

대표저자	연도	표본/방법	주요발견
석연 & 한지안 (石岩 & 韩健)	2015	5건 사례 인터뷰	심층 폭력의 유발성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하게 얽혀있음
가오성등(高升등)	2017	236명 대상 설문	운동선수 공감결여 및 회복동기가 공격강도를 유의미하게 예측
런레이 & 석연 (任磊 & 石岩)	2018	WOS 287편 연구	메타 청소년폭력, 성폭력, 영향요인이 국제적 연구 핫토픽
류위자(刘宇佳)	2022	572명 축구선수	U-청소년 개인가정학교사회 4층 상호작용 모델 제안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국내 형법학계에서 경기 스포츠 폭력 및 상해 행위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주된 흐름, 즉 정당화(Justification), 규제 모델(Regulation Model), 그리고 위험 분배(Risk Allocation)의 계열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

란텐페이와 가오릴리(2024)는 독일 및 일본 형법의 ‘정당 업무 행위’이론을 차용하여 경기 중 발생하는 상해를 경기 체계 고유의 위험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자발적 참여를 전제할 경우 ‘자기결정권’을 통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적 정당성’을 외부 검토 기준으로 삼아, 업계 규칙이 ‘면죄용 장치’로 전락하지 않도록 경계한다(蘭添妃, 高麗麗, 2024).

두 연구자는 ‘사회적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 가지 차원을 제안 한다: 경기 종목과 대항 강도, 위험 수단과 상해 결과의 비례성, 해당 종목에 대

한 대중의 장기적 허용도. 이 기준에 비추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위험 한계치를 벗어나거나 공공 이익이 크게 침해될 경우에만 형법이 개입할 수 있다고 규정 한다.

‘정당 업무’개념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자기책임·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이중 정당화 모델을 제시한다. 그는 ‘행위 정당성-자발적 참여-규칙 예상-경기 목적’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단계적 판단 체계를 구축하였다. ‘행위 정당성’기준은 특정 동작의 기술적 규범 준수를, ‘규칙 예상’은 행위가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지를 평가하며, 실제 사례로 2019년 CBA 시즌의 ‘악의적 목조르기’사건이 규칙 예상 위협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된 사례를 제시 한다. 이 모델의 핵심 혁신은 ‘경기 목적’을 최종 시험 요소로 포함한 점이다. 즉 행위가 경기 목표를 벗어나 순수한 공격 행위로 전환될 경우, ‘자기책임’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형사 제재가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王昌杰, 2020).

“사회적 정당성”개념이 추상적이며 사법적 실천에 부적합하다고 비판하면서, 독일의 층위 적 교의학(doctrinal layering) 방법을 도입하여 판단 경로를 ‘①경기 목적 →②규칙 위반 여부 →③결과의 심각성’세 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경기 목적)에서는 행위의 주관적 의도를 중시하며, 경기 목적이 충족된 경우에만 정당화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 2단계(규칙 위반 여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경기 규칙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한다. 3단계(결과의 심각성)에서는 경미한 상해, 중대한 상해, 사망 등 결과의 수준과 행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하여 형법 개입의 깊이를 결정한다. 쉬스항은 2010~2018년의 형사 판결 42건을 실증 분석한 결과, ‘①목적과 ②규칙 위반’이 모두 충족되며 중상해 이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더 이상 ‘정당 업무’개념을 논의하지 않고 즉시 「형법」의 ‘고의 상해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徐士航, 2019).

같은 맥락에서, 피해자 동의와 사회적 정당성 외에 ‘형법의 보충성’을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징계(예: 정지, 벌금)가 질서를 회복하거나 재발 억제에 실패한 경우, 이를 ‘자치 실패’로 간주하고 형법은 ‘최후의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包宜鑫, 2019).

이들은 2024년 중국 중급리그(대련 vs 광저우) 경기 이후 발생한 대형 난투 사건을 예로 들며, 경기 단체의 중징계만으로는 효과적인 억제가 불가능하며 형사 기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재범율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한다: ① 형사·산업 징계 데이터 간 상호 연계 메커니즘 구축 ② 「형법」 본문에 ‘중대 스포츠 폭력 죄’ 신설 ③ 양형 지침 마련을 통해 사건 유형별로 표준화된 처벌 기준을 확보.

2018-시즌 CBA, 중초(中超), 성급 리그를 포함한 70건 이상의 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내부 징계가 “경미하고 비효율적이며 재범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악의적 반칙 행위가 적발되어도 정지 2경기, 수만 위안 벌금 정도의 경미한 처분에 그치며, 재위 반 비율이 여전히 25%를 넘는 사례가 다수라고 보고하였다(汪波 & 陳偉, 2024).

이들은 《체육賽事活動賽風賽紀管理辦法》가 경기장 폭력을 9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경제적 중벌을 도입했음에도, ‘중상해-집단 폭력-관중 개입’ 등 고위험 상황을 여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학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병행 경로를 제시했다: ‘중대 스포츠 폭력 죄’ 또는 ‘경기 조작 죄’의 신설 현행 ‘집단 난투 죄’나 ‘고의 상해죄’와는 별도로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위험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악의적 규칙 탈피 및 중상해 발생 시 형량 기준 강화 3-년의 유기징역을 계단식으로 정해, 강한 일반 예방 효과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

은 ‘업계 자치와 형법의 최소 개입’이원적 거버넌스 논의와 맞닿아 있으며, 《체육 발전 계획》 내 ‘폭력 제로 톨러런스’정책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와도 연계된다.

프로리그의 상업화가 “강렬한 대항 -자본의 확대”효과를 낳아, 전통적으로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간주되던 ‘허용된 위험’이 점차 “상업적 목인”으로 확대되면서 형사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풀면 혼란, 막으면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는 형법 총칙에 ‘정당 업무 행위’ 조항을 신설하고, 명시적으로 경기 스포츠를 대표적인 적용 영역으로 규정하여, 일관된 사법 적용 근거를 제공할 것을 제안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지도 사례와 사법 해석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규칙 허용성, 업계 공인 위험 임계치’라는 이중 지표로 구체화함으로써, 지방법원의 재량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위험·고수익 종목(예: 종합격투기,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해서는 경기 전에 위험 고지, 상업 보험, 응급 의료 준비 등 3대 사전 의무를 이행해야 면책 조건이 성립된다고 제안한다. 이는 상업 이익과 형사 책임 경계 사이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밸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이다(王開元, 2018).

『민법전』 제1176조의 ‘위험 자담(risk assumption)’원칙을 중심으로 책임을 내재 위험(inherent risk)과 주관적 과실(subjective fault)의 이중 구분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손해가 경기의 본질적인 위험 때문이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위험 자담’에 해당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기술 규정을 벗어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책임(fault-based liability)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입장은 그간 ‘공정 책임(fairness-based liability)’이라는 일반적 기준으로 스포츠 상해를 처리해온 우리나라의 관행적 한계를 보완하며, 대회 조직위원회와 보험사의 책임 분

류 체계 차별화에 법리적 근거를 제공한다(朱士灵, 2018).

2010-년 국제 스포츠 중재(CAS) 판결과 일부 형사 판례를 분석한 결과, ‘최후의 관문(last resort)’형사 개입 원칙을 제기한다. 이는 경기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공공 안전을 현저히 위협한 극단적 행위에 한해 형사조치를 개시하되, 선수에게는 충분한 절차적 항변권(정보 제공 -청문 -항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형사법-징계법-민사구제’의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경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丁尋韜, 2015).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고도로 상업화되고 미디어가 강조되는 리그 환경 아래, 클럽·연맹·스폰서가 ‘강한 육체적 표현(hard physical display)’을 묵인함으로써 폭력의 경계가 확대된다고 분석한다. 외부 규범 및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폭력 사건이 내부 이익에 의해 ‘합리화’되기 쉽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 성과평가’ 및 ‘업계 투명성 지수’에 경기 폭력 지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제도적 압력이 경기장 규범을 재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陳卓,李麗芬, 2023)

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바탕으로, 동기 강도(motivation intensity)를 가로축, 행위 결과의 심각성을 세로축으로 하는 다층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경쟁-소속감-시위’ 등의 주요 동기를 구분하고, 정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충돌 고위험 임계값(conflict escalation threshold)을 예측함으로써 심판 및 안전 요원이 대응 수준을 조정할 수 있는 모델 적 근거를 제공 한다 (楊詩慧, 2023).

훈련 강도, 코치 권위, 또래 압력이 규범 이탈 행위의 주요 유발 요인임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 상담, 가정·학교 협력과 상황별 법교육’의 삼원 교정 전략을 제안한다(劉宇佳, 2022).

대학생 테니스 폭력 사건을 분석하며, ‘경쟁 분위기, 심판 논란’이 충돌의 주요 유발 체인임을 지적하고, 심판 평가척도와 경기 후 조정 메커니즘 도

입을 통해 적대적 감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 한다(楊胜余, 2020).

감정 전염, 집단 극화, 음주라는 세 가지 요인의 누적 효과를 강조하며, ‘등급별, 실시간 여론 모니터링, 관중석 감정 히트맵’을 도입한 즉각적 경고 체제가 필요함을 주장 한다(荆鑫, 2019)

인류학 및 철학 관점에서 ‘사냥-의례화(ritualization)’가 스포츠화 과정에 서 폭력을 억제하는 문명화의 핵심 기제임을 분석 하였다(張建榮, 2016).

이러 현대 스포츠가 자본과 미디어라는 이중 동력 하에서 폭력 충동이 활성화되고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위험을 논의하며, 과도한 상업화가 교육 적 가치를 침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郭明, 2021).

(4) 매체·문화 확대 효과

표 11 미디어 폭력 효과 및 대응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개관: 미디어 비판에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로의 전개

저자 (연도)	표본	방법론	주요 발견 내용
왕 용 평 · 조 민 (2015)	다큐멘터리 및 경기 중계 상	영 커뮤니케이션비판	매체가 재생산하는 폭력적 장면이 수용자의 내면화 과정을 강화 함
CNKI (2017)	시각화 관련 논문 142 편	CiteSpace 분석	‘관객 폭력(audience violence)’이 해당 분야 연구의 핵심 주제로 자리매김함
저 우 루 이 파 (2022)	중학생 1,742명	구조방정식모형 (SEM)	미디어 콘텐츠 → 가치관 →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규명함
장이룡 (2023)	중국 슈퍼리그 의 폭력 사건 사례 46건	사례 분석+ 4R 모델	‘축소-준비-반응-회복’로 구성된 폐쇄형순환(governance closed-loop) 체계 제안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최근 10년간 국내의 스포츠 매체와 관중 행동 연구를 종합하면, “삼계(三系)―칠맥(七脉)” 구조로 통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스포츠 매체 콘텐츠에 대한 민감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침윤 적”확산을 가속화하여, 매체 소양은 온라인 위험을 예방하는 핵심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 스포츠 보도는 관심, 태도, 운동 동기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반면, 폭력이나 저속한 콘텐츠는 모방 충동을 유발하여 건강 효과를 저해한다고 밝혀냈다. 이에 등급심의 및 알고리즘 개입 메커니즘을 통해 유해 노출을 줄일 것을 제안 했다(周瑞發, 2022).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문 경기 정보는 가치관과 운동 습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彈幕(댓글 폭주)나 단편 비디오의 조롱·인신 공격적 내용은 스포츠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매체 소양 교육 공백을 지적 했다(于富城, 2020).

모바일 중심의 “짧고 빠른”콘텐츠가 정보 과부하와 엔터테인먼트 우선주의를 초래하고 심층학습 공간을 축소한다고 보며, 알고리즘 경감 및 주제 중심 콘텐츠로 품질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田林 & 李留東, 2019)둘째, “스포츠 팬 생성 메커니즘계”이 계열은 집단심리와 매체의 역할 재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문헌계량분석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포츠 팬’개념은 아직 통일된 정의를 갖지 못했으며, 연구는 축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고, 성별 및 다중매체 간 차이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간과되어 왔다(黃笑炎 & 宋亞佩, 2022).

윤리적 시각에서 관중의 공격성을 분석하며,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과 집단 극화 현상이 결합할 때 ‘스탠드 폭력’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구조방정식 모델 연구 결과, 관중 폭력 의도는 주관적 규범, 탈개인화, 태도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약 63%를 설명 했다. 사회 여론

및 정책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2024년 올림픽 주기를 맞아 중국 공안부는 “네트워크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주요 플랫폼은 위반 계정을 삭제하며 “이성적 스포츠 팬 문화”를 촉구하는 조치를 동시 진행 했다. 국제 언론은 연예계에서 파생된 ‘극단적 팬 덤 문화’가 스포츠 영역까지 확산되어, 새로운 ‘명예 인 질화’ 및 사생활 침해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荆鑫, 2019).

셋째, “매체 폭력의 심미화 및 거버넌스계”이 계열은 다음 세 가지 흐름으로 구성 된다: 두 칸 은 프로레슬링을 ‘경기 성·극적 요소· 사회적 상징’을 결합한 “폭력 풍경(landscape of violence)”으로 규정하고, 주류 의식 지형 내에서 다층 서사 전략을 개발하여 피비린내 나는 자극 중심 소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 한다(杜康 등, 2021).

‘오즈 복싱’ 텍스트 분석을 통해 스포츠 폭력에 내재된 계급적 은유와 문화 재생산 메커니즘을 밝히며, 문학 비평적 개입이 ‘경기-자본-폭력’이 결합된 구조를 해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 한다(徐可, 2019).

텔레비전 중계를 중심으로 등급제·지연 방송·심층 해설을 결합한 ‘콘텐츠 3중 연계 시스템’을 제안 한다 (洪志華 & 鄭秋南, 2017).

정부·산업·공중이 참여하는 다중 주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 폭력을 미디어 사회적 책임 평가 지표에 포함할 것을 권고 한다(陳英杰, 2016). “동기-주체-특성”이라는 3차원 분류 틀을 도입하여 경기장 폭력의 사전 경고 및 등급 대응을 위한 시각화 도구를 제시 한다. (楊詩慧, 2023).

청소년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단계 영향-시스템 교정’ 모델을 검증하며, 불공정 대우 및 온라인 여론 압박이 일탈 행동의 주요 유발 요인임을 확인 한다. 문화적 접근 연구들은 스포츠 폭력이 신체 본능과 상업·미디어의 확대된 이질화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신적 윤리와

문명적 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다(劉宇佳, 2022).

대학 테니스 사례는 “대항-모방-격화”의 상호작용 경로를 입증하며, 심 판 평가척도와 경기 후 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 한다(楊胜余, 2020).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국내 “스포츠 매체-관중 행동”연구는 위험 인식, 팬 문화 거버넌스, 윤리 규범 등 다차원적 돌파를 이루었다: 법적 측면: ‘신중한 형사 개입’과 ‘절차적 보장’의 균형 제도적 측면: 플랫폼 책임 강화와 업계 자율 협업 체계 문화적 측면: 폭력의 심미 화 배경 분석과 회복 방안 모색. 그러나 여전히 세 가지 주요 연구 공백이 존재 한다: ‘사회적 정당성’ 과 ‘위험 임계 치’의 정량 지표 부재 →판결 및 집행의 임의성 문제다중 플랫폼과 화면 간 상호 작용에서의 알고리즘 확대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부족 팬 집단의 연령·성별·문화적 분화에 대한 심층 분석 부재.

(5) 직업 및 청소년 선수 보호

표 12 다원적介入과 협력 메커니즘 기반의 운동장 폭력 거버넌스 연구:
연구 방법과 주요 발견에 대한 검토

저자 (연도)	표본	방법론	주요 발견
유집석 (최 执硕, 2020)	대학생 487명	설문조사 + 인터뷰	'관람만 하고 실천하지 않음(只观不练)' 현상과 폭력 낙인(violence stigma) 두려움 존재
후강 (胡强, 2015)	4개 반(intervention experiment)	실험 설계	종합적(intervention) 개입이 폭력 성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킴
왕 설 림 (王雪林, 2017)	20 5개사례(case studies)	참여 관찰	개인-가족-학교-사회 4요인 모델을 제시함
임뢰 (任磊, 2022)	인터뷰 + 현장 관찰	다원 협동 접근	타율 체계(traditional authority system)의 세 층위: 법률, 규범, 도덕으로 구성됨

출처:(문장 중의 문헌 내용을 정리 총결하여 표를 내다)

국내 '스포츠 경기 폭력 거버넌스' 연구는 세 축이 병행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지식 계보를 형성해 왔다. 직업 리그 리스크 관리 축에서는 위기관리와 빅 데이터를 도입하여 폭력 사건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청소년 / 학교 기반 중재 축에서는 심리적 개입, 위험 평가, 권력 책임을 한 治理闭环(governance closed loop)에 통합하는 다 학제 협업 팀의 시도가 진행 중이다. 팬 폭력 및 매체 생태 축에서는 행위 서술 중심에서 제도 윤리 및 여론·알고리즘 통제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이후 본고에서는 이 세 축을 따라 각기 분절된 부분을 단계적으로 심화하여 분석한다.

우선, 프로 경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초리그 46건 폭력 사례에 대한 정량 분석을 바탕으로 4R 위기관리 이론(縮減...을 도입하였다. 그는 이 모델을 통해 심판의 상벌·팬 유도·사후 교육을 일체적 동시 추진할 것을 강조

하며, 이는 경기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경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았다(李佳翰, 2016).

이 프레임워크는 2024년 중급 리그(中甲) 대련 잉보 vs 광저우전 이후 발생한 집단 난투 사건에서 실제로 시험되었다. 중국축구협회는 관련 선수들에게 총 24경기 출장 정지와 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시즌 중 가장 중대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강력한 제재와 공개 공표는 재발 억지에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또한, 해당 시즌의 징계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벌칙 건수·벌금 규모의 증가가 팬 문화의 저급화 경향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저자는 리그 가입 기준, 클럽 거버넌스, 다 부처 보안 협업 측면에서 정밀한 리스크 등급화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京報體育, 2024).

둘째, 청소년 및 학교 체육 맥락에서는 다양한 위험 요인(집단 괴롭힘, 성 폭력, 약물 남용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회생태계 관점에서 가치 주입, 동료 감독, 심리 상담을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특히 도덕 교육이 학교 폭력 억제의 기초가 된다고 강조 했다(馬小兵 & 陳眞, 2017).

대학생 방과 후 농구 사례를 분석하여 폭력 사건의 급작성과 집단 동조성을 부각시키고, ‘개인-가정-학교-사회’의 4차원 개입 모델을 제시하여, 이성적인 관람 문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王雪林, 2017).

푸젠 지역 코치의 체벌 현상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결과, ‘성과 중심의 공리주의적 성과 전통적 권위 문화’가 코치의 폭력적 행위 토양이 되며, 직업 자격 제도, 징계 절차, 향소 통로 측면에서 하드 로우 와 소프트 가이드 라인(procedural soft rules)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 했다(林琮, 2015). 위험관리 관점에서 환경·인력·운영의 세 가지 위험 유형을 제시하고, ‘회피-전이-통제’의 3단계 전략을 통해 학교 체육 안전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일 방

안을 제시 했다(牛娜娜, 2015).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지-정서-행동”종합 중재 실험을 통해 체육 폭력 성향이 유의하게 억제됨을 검증했으며, 이후 다층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 했다(胡强, 2015). 사례 추적 연구는 정서 관리가 폭력 발생 사슬을 차단하는 데 핵심적임을 드러내며, “정서-인지-행동”단계 예방 전략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했다(韓健, 2015).

셋째, 팬 폭력 연구 측면에서는 판정 논란, 클럽의 느슨한 관리, 언론의 과장 보도가 팬 갈등 격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팬 계층별 안전 검색 -여론 실시간 모니터링 -클럽 공동체 기반 조성’의 삼중 안전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 한다. 언론 측면에서는 인민망의 다수 논평이 ‘권리 옹호형 사이버 폭력’이 판사를 향한 온라인 괴롭힘을 정당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플랫폼의 책임과 팬의 법교 육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학계에서는 구조방정식 모델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주관적 규범, 탈개인화, 극단적 정서가 관중 폭력 의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며, 이를 통해 팬 폭력 리스크 평가의 정량적 토대를 제공 한다. 문화적 맥락에서 초기 연구는 축구 팬 분노 현상을 사회변동 및 정서 발산의 틀 속에서 분석하며, 관중 폭력의 역사적 반복성과 거버넌스 난제를 조명한다. 이어진 문학·철학 연구들은 자본과 매체 구조가 ‘폭력의 심미화’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스포츠 정신 회복과 매체 윤리 재구축을 촉구한다. 대만 입법기관의 2023년 ‘스포츠 폭력 종식’공청회에서는 체벌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 하며, 지역 차원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입법적 공감대를 형성 했다.이처럼 팬 폭력 연구는 단순한 사건 분석을 넘어 미디어·클럽 운영·판정의 다인자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시스템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袁雪容, 2021).

전반적으로 국내 스포츠 경기 폭력 거버넌스 연구는 법-제도-문화의 삼위

일 체적 다차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형사 죄 신설과 양형 기준 강화로 산업 자치 실패에 대한 법적 안전망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위기관리의 4R 폐쇄 루프 및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 선제적 통제를 중시한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도덕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팬 문화 건설을 통한 폭력의 근본 원인 해소를 지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연구 공백이 존재한다: 직업 리그 및 학교 체육 분야에서 '위험 임계치'정량 지표 부재 →감독의 자율성과 집행의 일관성 결여폭력 예측을 위한 AI 알고리즘의 해석 가능성(explainability) 및 개인 정보 보호 준수 체계의 미비지역·연령·시간 축을 아우르는 종단적 추적 연구 부족 →개입 방안의 일반화 및 외삽력 한계향후 연구 제언, 경기장 센서 데이터 및 감정 계산 기반의 '리스크 인식→개입 평가→재범률 모니터링'데이터 폐쇄 루프 모델 구축법제도·산업 자율·시민 교육을 결합한 지속가능하고 재생산 가능한 협업 거버넌스 체계 마련 이처럼, 향후 연구는 법·제도·문화의 유기적 계를 기반으로 폭력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방법론의 비판적 비교 분석

본 연구의 표는 스포츠 폭력 연구에서 주요하게 활용되는 다섯 가지 방법론적 차원—① 신고 체계, ② 교육·훈련, ③ 심리 지원, ④ 코치 자격 관리, ⑤ 징계 투명성—을 중심으로 캐나다 OSIC/UCCMS, 미국 Safe Sport Act 및 U.S. Center for SafeSport, 그리고 중국의 현행 규범(2021년 『행위 규범 의견』·2024년 『경기풍기·경기기율 관리방법』·2015년 『학교 체육운동 위험방지 잠행방법』) 간의 실천적 차이를 비교·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경로를 제안한다.

표 13 스포츠 폭력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양적·질적 및 혼합 연구 전략

의 장점과 한계

주제	정문장 중의 문 헌 내용을 정리 총결 하여 표를 내다량 방 법	정성 방법	혼합 방법	주요 장점	주요 한계
1	경기장 사건 통계, 규정 텍스트 계량 분 석	정책 분석	계층 분석법을 활 용한 정책 성과 평가	공개된 데이 터가 풍부해 비교가 용이함	실행 과정과 지역별 차이 간과하기 쉬움
2	심판 판정과 상해 심 각도 간 상관관계 분 석	판례·법조문 비 교, 규범 해석	독일·캐나다·중국 세 국가 비교	법적 구성요 건을 정밀하 게 규정 가능	표본이 제한적 이고 양형 관 련 대규모 데 이터 부족
3	설문조사 및 구조방 정식 분석, 심박수· 호르몬 실험	인터뷰, 현지 행 동·생리 이원 분 석(예: 공감-심박 변이도 HRV)	동기와 정서 간의 연결 고 리를 심층적 으로 분석 가 능	윤리심의 제약 이 있고 표본 규모가 작음	
4	매체 콘텐츠 계량 분 석, 시청자 댓글 감 정 추출	담론 분석, 기 호학적 접근	기안구 추적 및 뇌 파 측정 + 인터뷰	메시지 전파 경로를 실증 적으로 해명 가능	플랫폼 알고리 즘 영향에 취 약함
5	훈련 관련 손상 회고 연구(대규모)	참여자 관찰, 델 파이 기법	종단 추적 + 포커 스 그룹	규범 위반 현 장에 실질적 으로 접근 가 능	장기 따른 제 가 있고 추 이탈률이 높음

출처: (본 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4)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 및 논쟁점

(1) 정당화 모델의 논쟁

스포츠법과 형법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학계는 정당화를 다루는 모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쪽은 “피해자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며, 경기 참여자가 자신이 감수할 위험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입장은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정당업무행위” 모형으로 전환되면, 진정한 핵심 기준은 “업계 합리성(industry reasonableness)”이 된다.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까지 이 모델에 도입하면서, 논쟁은 더욱 복잡 해졌다. 결과적으로 “업계 합리성”기준이 형사상 최소개입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하고 있다(蘭添妃 & 高麗麗, 2024).

(2) “안전밸브 가설” “폭력 조장 가설”

스포츠가 폭력을 감소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소위 “안전밸브(safety valve)”가설은 경기를 통해 폭력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 규칙의 한계 허용과 미디어의 폭력적 조명이 오히려 폭력 경향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함으로써, 스포츠 내 폭력 임계 치와 사회 인식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환기했다(劉龍, 2017).

(3) 디지털 거버넌스의 효력과 개인정보 위험

최근 스포츠경기 활동 관리방법에 빨간-노란 카드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위험 예측이 강화 되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참가자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질서 유지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방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매체 폭력의 심미화와 가치 방향성

프로레슬링 등에서의 폭력적 심미 이미지가 대중적 소비 가치를 지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계는 이러한 미적으로 포장된 폭력이 실제 폭력에 대한 도덕적 둔감을 유발하고, 폭력 문화의 일상화와 소비 화를 심화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핵심 논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함으로써, 이론적 공헌을 명확히 제시한다. 각 논점은 향후 연구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杜康, 2021).

5)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디지털 리스크 모델 부재

현재 경기장 폭력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ML) 기반 도구는 전무하며, 비디오, 소셜 미디어, 센서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다. 의료·법의학 분야에서는 ML이 정신질환자 폭력 예측에 활용되어 높은 AUC(>0.80)를 보이지만, 스포츠 현장에는 아직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군집 지능 기반 공격 예측 같은 초기 시도에 머물러 있다.

(2) 양형 빅 데이터의 공백

국내에서는 경기 폭력 사건의 판결문을 활용한 양형량 계량 분석이 전혀 수행되지 않았다. 이는 “벌이 과연 적절했는가”라는 정책 판단을 위한 실증 근거 부족으로 이어지며, 사실 인식과 양형 기준의 기준 설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 심판 스트레스-폭력 상승 연결 메커니즘 미 확립

심판의 판정 압박 상황에서의 심리 변화가 선수·관중의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개 과정을 탐구한 연구는 거의 없다. 기존 연구는 축구·농구 심판의 스트레스와 판정 일관성 간 상관성에 국한되어 있으며, 심판 심리 기제가 갈등 유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정교한 모델은 부재한다.

(4) 비교 문화적 분석 한계

국내 사례 중심 연구가 대부분이며, 유럽연합의 ‘무폭력 동맹(No Violence Alliance)’, 스위스의 ‘관중석 폐쇄 조치’ 같은 국제 경험과의 체계적 비교가 부족하다. 유럽의 경기 전 위험 평가, 대응 경찰력 조정 등 사례는 존재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비교·적용한 연구가 아직 미진하다.

(5) 청소년 경기 규칙 설계 연구 부족

축구 하위 리그에서 태클 제한, 농구에서 신체 접촉 금지 같은 ‘비접촉식 규칙 개정’이 청소년 폭력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전무하다. 현재는 신체 충돌 감소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코호트 연구나 개입 평가에 기반한 증거가 부족하다.

(6) 매체 알고리즘 책임 및 윤리 틀 부재

폭력적 키워드가 콘텐츠 추천에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윤리적 장

치가 구축되지 않았다. 알고리즘의 확산 효과는 지적되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키워드 필터링 기준, 윤리 판단 기준 등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7) 여성 관점의 배제

여성 선수 및 여성 팬이 직면하는 성 차별적 폭력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며, 성희롱·인터넷 폭력·성 차별 등 젠더 민감성 연구방법 적용도 부족하다. 이에 따라 여성 대상 폭력 피해 및 대응 연구는 긴급히 확장되어야 한다.

(8) 지방 규정 평가 프레임 부족

각 지역의 블랙리스트 도입·운영 방식은 차이가 크지만, REAIM처럼 정책성과를 전 방위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건강 개입 프로그램은 REAIM을 활용했지만, 경기장 규제 정책(예: 블랙리스트)에 적용된 사례는 전무한다.

6) 본 연구의 향후 발전 방향 및 제언

(1) 데이터·알고리즘·거버넌스의 삼위일체

국가지원 스포츠 빅 데이터 센터와 북두 위성을 활용한 아미 급 정밀 위치 추적을 기반으로, ‘감정 최고점-위험 상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여기에 영상·소셜미디어·웨어러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초단 위 폭력 예측 체계를 구현할 수 있다. 2022년 「체육법」 제11장 ‘위험 고지 및 정보 공개’의무를 만족시키기 위해, 모델에 설명 가능한 AI (XAI)를 도입하여 보안 인력과 관중에게 위험 요소 가중치, 감정 임계 값, 대응 방안을 동시에 시각화함으로써, 블랙박스 결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해야한다.

(2) Safe 독립 조사 메커니즘

IOC Athlete365의 온라인 제보·심리지원·익명 지원 기능을 참조하여, ‘비밀 신고 창 + 즉시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24시간 내 초동 선별과 독립 조사자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 공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 신뢰지수’를 도입하여 제보 응답 속도, 처벌 집행률, 재범률 등을 종합 평가하고 매 시즌 말에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클럽·연맹·개최 도시 간의 명성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3) 다 학제적 방법론 고도화

전통 설문만으로 집단 극화 전 단계의 감정을 포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을 도입하여 팬 내부 소집 구조를 파악하고, BCI 기반 EEG-표정 융합 알고리즘을 통해 공격성 생리 신호를 실시간 계량화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대런 잉보 vs 광저우’경기 후 최고 수준 처벌 사례를 활용하여 비교법 및 계량경제학 기법을 통해 강력 처벌이 시즌 내 재범률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실증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4) 성별·취약 집단 보호

UN 대형 경기 안전 기술 지침의 성격적 위험 프레임을 참조하여, 여성 경기 및 여성 팬이 겪는 신체·언어·디지털 폭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Safe 내 ‘젠더 민감 채널’을 독립 설치하여 트라우마 정보 상담 및 증거 고정을 지원해야 한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폭력 키워드 + 성차별 언어’ 이중 필터를 도입하여 추천 시스템이 극단적 콘텐츠를 확대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글로벌 거버넌스와 중국 형 모델 확산

‘인류운명공동체’담론 아래 중국은 ‘아시아-아프리카 스포츠 안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 위험 사례, 폭력 사례, 연수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다. 예컨대, ICSSCAFUNITAR 아프리카 축구 안전인증 프로젝트는 복제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한다. 나아가 WADA, IOC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여 ‘폭력 + 도핑’ 이중 위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운영하고, UN 스포츠 안전 및 반 폭력 극단주의 글로벌 프로그램과 상호 인정·연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4. 중국 스포츠 폭력의 대표 사례 분석

1) 학교 체육 폭력 사례: 체육학교 학생의 장기 체벌로 인한 부상

학교 체육 환경에서는 폭력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폐쇄적이고

성과 중심의 체육학교 체계에서는 권력 불균형과 관리 부재로 인해 이러한 폭력이 구조화된 침해로 발전하기 쉽다. 다음은 최근 중국 학교 체육 폭력 문제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사건은 남부 지방의 한 주요 체육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13세의 남학생으로, 육상 종목 특기생으로 집중 훈련을 받던 중이었다. 코치로부터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달간의 야간 체력 보강 훈련을 단독으로 지시받았고, 매일 300회 개구리 점프와 반복적인 단거리 전력 질주를 실시해야 했다. 해당 훈련은 통상적인 강도를 훨씬 초과하였고, 의료 지원이나 감독 없이 야간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학생은 무릎 인대 파열로 긴급 수술을 받았고, 훈련이 중단되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입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코치의 비윤리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성적 중심의 훈련 문화는 폭력적 통제를 ‘엄격한 관리’ 또는 ‘의지력 훈련’으로 정당화하며, 교육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둘째, 학교 차원의 과학적 훈련 관리 체계가 부재하며, 훈련 강도 평가, 코치 행동 점검, 선수 부상 사전 경고 시스템 등이 전무하였다. 셋째, 피해 학생은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음에도 신고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며, 이는 체육학교 시스템 전반의 권리 보호 공백을 반영한다.

이 사례는 학교 체육 폭력의 심각성과 은폐성을 드러내며, 동시에 체육학교 구조 내 권력 집중, 감독 부재, 문화적 오인(誤認)의 문제를 노출시킨다.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 문화 전환, 감독 강화, 권리 보호라는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존중-보호-예방’을 핵심으로 한 청소년 체육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직업 체육 폭력 사례: 여자 농구팀 내 언어 폭력 및 따돌림

스포츠 폭력은 신체적 충돌에 국한되지 않으며, 언어적 모욕, 따돌림, 심

리적 괴롭힘도 선수의 정신과 신체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팀 내부의 위계와 경험 의존성이 강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상화되기 쉽다.

본 사례는 동북 지역의 한 여고 여자 농구팀에서 발생하였다. 해당 팀은 반(半)직업화된 훈련 체계를 운영하며, 장기간 폐쇄 합숙과 성급 대회에 정기적으로 참가하였다. 사건의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갓 입학한 신입 선수로, 기술 미숙을 이유로 같은 학년의 상급 선수 3명에게 지속적인 언어 모욕과 배제로 괴롭힘을 당했다. “네가 스타팅 멤버” “넌 실력도 없잖아” 등의 조롱과 함께 훈련복 세탁, 체육관 청소 등의 잡무도 강요받았다. 3개월 간 지속된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불안, 훈련 회피, 심지어 등교 거부로 이어졌으며, 학부모의 개입 후에야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다층적 구조 실패를 보여준다. 첫째, 학교 및 팀 내에 정신건강 개입 체계가 전무하였다. 둘째, 상급생에 의한 비공식적 권력 작용이 관리되지 않으며, 위계 중심의 팀 문화 속에서 괴롭힘이 일상화되었다. 셋째, 지도자인 코치는 언어폭력에 대한 개입과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심리적 안전을 경시하는 관리 관점의 문제를 반영한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스포츠 조직 내 위계 억압, 권력 방임, 정신건강 경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이며, 특히 청소년 ‘준직업 체계’에서도 제도적 개입과 문화적 재정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규율, 심리 지원, 조직 문화 개선, 지도자 교육의 통합적 개혁이 필요하며, 올림픽 정신의 핵심인 “우정, 존중, 공정경쟁”이 팀 운영 전반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 대학 육상 코치의 여학생 성희롱

최근 들어 성희롱 및 성폭력은 스포츠 폭력의 중요한 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체육 특기생이 재학하는 대학, 체육학교 등에서는 교육-훈련 기능이 교차하는 구조 속에서 권력 불균형이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사례는 중국 화동지역의 종합대학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19세의 여대생으로, 우수한 체육 실적으로 대학 육상 팀에 선발되었고, 개별 기술 지도를 이유로 코치와 1:1 폐쇄 공간 훈련을 다수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치는 '자세 교정'등을 명분으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훈련 외 시간에도 성적 암시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초기 거절 시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코치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낙인 우려로 침묵하였다. 사건은 한 지도교수의 적극 개입 후에야 신고로 이어졌고, 교내 조사 결과 가해 코치는 해임되었지만, 조사 과정은 수개월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절차였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결함을 드러낸다. 첫째, 개별 지도의 구조상 제3자의 참관 없이 폐쇄 공간에서 진행된 점은 권력 남용을 조장하는 회색지대로 기능하였다. 둘째, 피해 학생은 심리적 취약성과 제도적 보호 부재로 인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대학의 조사 체계는 피해자가 스스로 채팅 기록, 증인, 진술을 제시해야 하는 '자증'중심으로 작동하며, 사건의 은밀성과 일회성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신고와 조사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본 사례는 체육 분야에서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은폐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감독 부재, 피해자 보호 미흡, 불친절한 조사 절차 등제도 전반의 허점을 반영한다. 향후 이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 시 제3자 참관 의무화 △여성 운동선수

대상 심리 및 법률 지원 채널 마련 △대학 체육 분야 내 전담 성희롱 대응 체계 및 독립 조사 절차 구축 성 평등·신체자율성·폭력 ‘무관용’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며, 이는 올림픽 헌장이 강조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보호 정신의 실질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4) 제도적 폭력 사례: 강제 합숙 훈련에 의한 학습권 박탈

스포츠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충돌이나 언어적 모욕과 같은 외형적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제도적 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보다 심층적인 구조적 폭력도 존재한다. 특히 청소년 스포츠 훈련 체계에서는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교육권이 지속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제도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 양상과 구조적 원인을 잘 보여준다.

해당 사례는 중국의 모 성(省) 청소년 수영 훈련 시스템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15세 남자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 대표 유소년 수영 팀에 소속되어 장기 훈련을 받아왔다. 성급 대회를 앞두고 코칭스태프는 전 팀원에게 90일간의 폐쇄형 합숙 훈련을 지시하였고, 피해 학생은 하루 다섯 차례에 걸친 고강도 훈련을 수행해야 했다. 하루 일과는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시간대에 걸쳐 훈련이 반복되었으며, 휴식과 식사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저녁에는 자필 훈련 일지를 작성해야 했으며, 문화 수업이나 학업 지도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합숙 기간 동안 학생은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채 보호자 없이 코치에 의해 전적으로 관리되었으며, 결국 90일간의 학업 결손으로 인해 중등학교 입시에 실패하였다. 부모가 체육국과 교육 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훈련 방식의 문제가 아닌, 미성년자의 인권과 교육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한 구조적 문제로 분석된다. 첫째, 해당 훈련 제도는 경기

성과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여, 의무교육법과 미성년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둘째, 합숙 훈련은 법적 근거와 외부 감독 없이 90일간 지속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격리' 상태를 초래하였다. 보호자나 제3자의 개입 없이 폐쇄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장기 합숙은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훈련 시설은 법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미성년자를 교육·통제하였으며, 그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현재 중국 체육 시스템은 교육과 훈련 간 효과적인 균형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으며, '체교 분리'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소년 운동선수는 학업과 경기력 사이에서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로 단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성적 부진이나 부상 등으로 운동 경력이 중단될 경우, 학업과 직업 전환의 경로가 차단되어 삶의 연속성이 위협받게 된다.

종합적으로 본 사례는 성과 중심의 정책 지향, 미성년 권익 보호의 부재, 체육과 교육 시스템 간의 단절이라는 제도적 폭력의 심층 구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체육-교육 통합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 우선, 훈련 병행"이라는 발전 철학을 실현해야 한다. 이는 모든 청소년 운동선수가 경기장 안팎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며, 올림픽 정신이 강조하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가치의 실천이기도 하다.

이 사례를 비롯한 여러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스포츠 분야의 폭력 문제는 단순한 가시적 구타나 언어폭력을 넘어서며, 더욱 복잡적이고 은밀하며 구조화된 양상으로 전개된다. 첫째, 폭력의 형태는 권력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언어적 공격과 심리적 압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팀 내 괴롭힘, 코치의 모욕적 발언, 위계질서에 기반 한 언어적 낙인 등

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소프트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운동선수의 정신건강을 훼손하며, 특히 청소년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부 지도자나 관리자 등은 사제 관계 또는 코치-선수 간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감독이 부재한 개별 훈련 장면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성인지 보호 체계와 권력 견제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반영한다.

셋째, 강제 합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폐쇄형 훈련에 따른 심신 피로 누적, 성과 중심의 메달 지향 훈련 등은 모두 눈에 띄지 않는 구조적 폭력으로 축적되며, 이는 운동선수의 성장 환경과 미래 기회의 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총체적으로 보면, 각 폭력 유형은 제도 설계에서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무시, 신고 체계의 비효율성, 피해자 보호 장치의 미흡 등 깊은 수준의 거버넌스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폭력의 예방과 근절은 단순한 사후 대응이나 처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조적 개혁—즉, 제도 설계, 문화 인식, 권력 분배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존중-안전-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갖춘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체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스포츠 강국" 실현의 토대가 된다. 더불어 이는 올림픽 정신이 지향하는 인권, 존엄, 평화의 가치 구현에도 부합한다.

5) 2018년 유소년 복싱 훈련 중 코치의 체벌 사건

청소년 엘리트 스포츠 훈련에서는 코치의 관리 스타일과 교육 철학이 선수의 심신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과학적인 훈련 방식과 명확한 행동 기준이 결여될 경우, 그러한 지도 행위는 쉽게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18년 중국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소년 복싱 팀 체벌 사건은 이러한 코치의 일탈적 행동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사건의 배경에 따르면, 해당 복싱 팀의 코치는 '투지를 길러준다'는 명분으로, 훈련 성과가 부족한 선수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체벌과 모욕을 가했다. 여기에는 강제적인 추가 훈련, 공개적인 망신 주기, 언어적 위협 등이 포함되었다. 당시 팀 내부에서는 이를 '엄격한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사건은 한 학생이 가정에서 정서적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함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해당 지역 체육국은 학부모의 신고와 언론 보도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였고, 문제의 코치를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지방 체육 당국은 청소년 스포츠 훈련 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체육학교 및 유소년 훈련기관의 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였다. 이어서 해당 지역 체육 시스템은 『청소년 코치 행동 수칙』을 정식으로 제정하여, 체벌, 모욕, 협박 등 모든 형태의 폭력을 명확히 금지하고, 청소년 선수 보호의식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은 청소년 체육 시스템이 지도자 관리 및 양성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첫째, 코치의 자격 심사와 등록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전문 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성, 교육 철학, 윤리적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정기적인 연수와 감독 체계를 통해 코치들이 비폭력적 의사소통 기술, 감정 조절 능력, 심리 지원 방법 등 현대 체육교육의 기본 역량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훈련 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사건은 학교 체육 및 청소년 훈련기관 내에 존재하는 권력 남용 문제

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정비의 계기를 제공한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행동 기준의 도입, 감독 시스템의 정비, 지도자 역량의 제고를 통해 이와 같은 폭력 사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청소년 체육 훈련 환경이 보다 존중받고 과학적이며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2021년 전국청소년운동회 某 대학 럭비 팀 성희롱 사건

경쟁 스포츠가 점차 직업화되고 시스템 화됨에 따라, 성별 기반 폭력 문제는 오늘날 스포츠 거버넌스 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리스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권력 불균형과 감시 체계의 미비 속에서 성희롱은 더욱 은밀하고 반복적인 양상으로 발생하기 쉽다. 2021년 전국청소년운동회 기간 중, 某 대학 럭비 팀에서 남성 코치가 여성 선수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사건은 여성 운동선수 보호 체계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금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사건 배경에 따르면, 대회 전 훈련 기간 동안 복수의 여성 선수들이 익명 채널을 통해 팀 내 남성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언어적 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해당 코치는 선수의 외모에 대한 사적 평가, '기술지도'를 명분으로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훈련 외 장소에서의 개인 접촉 및 부적절 발언 등을 일삼았으며, 선수들은 경기 출전 기회에 대한 우려로 초기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복수의 피해자가 연대하여 집단 신고하면서 사건은 공론화되었다.

사건 처리는 대회 조직위원회와 지역 여성연합회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사건 경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였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이후, 해당 코치는 자격이 박탈되었고, 스포츠 종사자 불량 기록 명단에 등재되었다. 동시에 대회 주최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사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대회 기간 성인지 안전 관리 조치를 강화하

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현재 스포츠 시스템은 성희롱과 같은 성별 폭력에 대해 상시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고, 예방 시스템 역시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성별 기반 폭력은 개인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팀 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조직의 공공 신뢰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가한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 교육을 제도화·상시화하고, 지도자 선발·사전교육·행동수칙·일상 운영에 이르기까지 성 평등과 존중 문화를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운동선수를 위한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독립적인 신고 창구 마련 여성 감독관 배치 대회 및 훈련 기간의 성인지 안전관리 강화 심리 및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 참여자의 표현권, 안전감, 존엄성 보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본 사례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안전이 단순히 물리적 상해의 예방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리적·성인지적 차원의 체계적 보호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성 평등 실현과 폭력 무관용 원칙의 철저한 이행은 건강하고 공정하며 존중 기반의 스포츠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이상의 여섯 가지 사례는 신체적 차별, 언어/심리적 괴롭힘, 성희롱, 제도 기반 침해 등 네 가지 주요 유형의 스포츠 폭력을 포괄하며,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 혹은 대학 재학생으로, 가해자는 코치와 팀 내 선배 등 직접적인 권력 구조 내에 위치한 인물들이다. 사례들이 드러낸 구조적 병리는 '성과 중심주의', '감독 부재', '권리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 상해에 그치지 않고, 교육 단절, 심리적 트라우마, 진로 중단이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중국 스포츠 폭력 예방

및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5. 선행연구

1) 연구 배경의 기초 정리

체육 폭력은 체육 윤리와 인권을 위반하는 현상으로, 최근 중국 사회에서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선행연구는 우선 체육 폭력의 정의 및 유형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학교, 프로 리그, 체육학교 시스템 등 다양한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폭력 형태(신체적 폭력, 언어적 모욕, 성희롱, 제도적 강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동시에 올림픽 정신은 세계 체육문화의 핵심 가치체계로서 "탁월성, 존중, 우정"을 강조하며, 반 폭력과 보호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에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본 주제의 이론적 관심과 현실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2) 국제 경험 및 이론적 성과 개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관련 정책 분석에 따르면, 최근 IOC는 체육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 존중,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세계 체육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 『올림픽 아젠 다 2020/2020+5』, 『스포츠 내 대인 폭력 및 보호에 관한 킨 센서스(2024)』, 『선수 권리 선언』 등 주요 정책 문서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 문서들은 세계 체육 조직에 명확한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위험 예방, 피해자 지원, 조직책임, 외상 인지적 보호 시

시스템 등 다층적 보호 메커니즘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다. 특히 IOC는 조직의 책임성을 규범화하며, 윤리 감독 위원회, 신고 메커니즘,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 회원국 조직에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윤리 거버넌스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및 미국의 실천 사례 분석에서는 미국 Safe Sport 센터와 영국 NSPCC 산하 아동보호단위(CPSU)의 사례에 주목하였다. 이들 전문기관은 법률적 권한, 부처 간 협력, 독립적 운영 구조를 통해 체계적인 체육 폭력 방지 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의 Safe Sport 센터는 조사, 제재, 교육 기능을 통합하여 모든 수준의 선수 권익을 보장하며, 영국은 법 제도와 학교 체육 연계를 통해 아동 보호 정책을 체육 운영에 포괄적으로 내재화하였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제도 설계, 위험 예측,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교육 훈련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성숙도를 보이며, 중국이 자국 현실에 맞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사례로 기능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중국 학교체육』, 『체육과학』, 『체육문화도간』, 『체육과사회과학』 등 국내 주요 학술지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체육 폭력, 체육 윤리 및 체육 거버넌스 관련 주요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문헌 분석에서는 체육 폭력의 원인 분석, 제도적 대응 방안, 윤리 교육 경로 구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에 문제 지형도를 제공함과 동시에 중국 체육 폭력 문제가 문화 관념, 권력 구조, 법제 보장,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으며, 이후 실천적 전환에서의 핵심적 접근 지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상과 같은 국제 정책, 해외 사례, 국내 연구의 체계적 정리는 중국 특색의 체육 폭력 예방 및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연구는 이를 토대로 올림픽 정신의 현지화 경로를

심화 탐색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제안과 개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초기 연구 방법 설계

본 과제는 연구 방법 설계에 있어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 SLR)을 기초 연구 경로로 삼고, 사례분석법과 비교연구법을 병행하여 이론적 심층성과 실천적 확장성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연구 프레임의 과학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제 팀은 일련의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S L R 측면에서, “체육 폭력 예방” “체육 윤리” “청소년 보호” “선수 권리”등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였으며, 중국 지식인 넷(CNKI), Google Scholar, Scopus 등 권위 있는 중영 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플랫폼으로 선정하였다. 시간 범위, 연구 대상, 내용 적합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이 연구의 주제와 시의성에 부합하는 중영문 문헌 총 58편을 선별하였으며, 이들은 이론 구축, 제도 평가, 사례 분석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다음으로 사례분석법 측면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주요 체육 폭력 사건들을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학교 체육 폭력 사건, 훈련 중 체벌 사례, 프로 리그의 폭력 충돌, 성희롱 사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육 폭력의 구체적 양상과 제도적 결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향후 모델 구축 및 정책 제안의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기구 및 국가 스포츠 거버넌스 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문서, 윤리 강령, 교육 자료 등도 통합하였다. 이에는 IOC, Safe Sport 센터, CPSU 등의 가이드라인, 보고서,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는 비교연구법의 실증 기반을 형성하여 중국의 체육 폭력 방지 시스템의 국제 비교, 위치 설정,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준비 작업을 통해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사례 분석, 국제 비교

라는 다차원 연구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향후 올림픽 정신을 이끌 축으로 하는 중국 특색의 체육 폭력 예방 및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 지향적인 연구 경로를 제공한다.

4) 연구 질문의 정제 및 논리 구조의 형성

전 단계의 체계적 고찰과 다차원적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명확한 연구 중심축과 문제의식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는 체육 폭력 현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 대응 방안의 윤리적 및 제도적 기반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중국 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과 조직 구조를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훈련 중심의 실적주의, 폐쇄적인 사제 관계, 승진 자원 경쟁의 과열이라는 조건 속에서, 폭력은 종종 "관리 수단" 또는 "의지 단련"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되며, 결과적으로 일종의 제도적 공모 구조를 형성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이 생성되는 문화 심리, 제도 관성, 감독 부재를 중심으로 사회-조직적 생성 논리를 해명하고자 한다.

둘째, 올림픽 정신이 체육 폭력 예방 및 교정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 올림픽 정신은 "존중, 공정, 탁월성"을 핵심으로 하며, 인권 보장과 개인 존엄을 강조한다. 이는 스포츠 실천에서 단순한 가치 호소를 넘어, 교육 훈련, 윤리 규정, 참여적 거버넌스 등의 제도적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신을 중국 체육 실천에 어떻게 내재화하고, 체계적 가치 개입 경로를 구성할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셋째, 국제 보호 정책 및 윤리적 제안이 중국적 맥락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도전과 변형 경로를 분석한다. IOC와 유럽·미국의 제도는 이미 성숙한 신고 체계, 심리 개입 메커니즘, 제3자 보호 플랫폼 등을 구축하였지

만, 중국에서는 문화적 수용성, 행정 체계의 협업, 법률 체계의 연계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실행 가능성과 점진성의 관점에서 본토 거버넌스 구조를 존중하면서도 국제 경험을 융합해가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구조 메커니즘—윤리 규범—제도 전환"이라는 삼중 구조를 연구 축으로 설정하며, 올림픽 정신의 이입과 내재화를 통해 중국 체육 폭력 거버넌스가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체계적 예방과 가치 재구성의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V. 연구 결과

1. 중국 스포츠 폭력 관련 통계 및 유형 분석

최근 중국의 스포츠 사회학 및 관리학 연구는 경기장 폭력의 계량 측정, 행위 메커니즘, 거버넌스 경로에 대해 비교적 일관된 지식의 궤도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프로 리그 통계 분석을 통해 “강한 신체 대항-심판 판정 논란”이 발생했을 때 폭력 사건이 빈발하는 현상적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농구 영역의 정서 연쇄-정체성 메커니즘 분석은 집단적 격렬 행위(집단 난투)의 사회적 설명 가능성을 제공 한다. 셋째, 유형학 접근의 확대를 통해 기존 ‘선수 폭력’중심에서 벗어나 ‘관중 폭력’과 ‘온라인 팬덤 폭력’같은 복합적 상황을 조망하게 되었다. 넷째, 지식 구조 분석(data mining/knowledge graph)에 따르면, 학계의 관심이 초기 개념 정리에서 실제 법규 제정 및 관중 거버넌스 같은 실천적 문제로 중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네 개의 하위 주제로 나누어 각각 내용을 확장·분석하였다.

2016년 중국 슈퍼리그(中超) 경기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총 40건 이상의 사례 중 약 56%가 악의적 파울이나 심판 포위와 같은 비일상적·탈규범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상적 폭력은 특히 ‘경쟁 과열(competition-intense)’국면, 즉 심판에 대한 판정 논란과 팀 순위 압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예컨대 2019년 시즌에는 개막 후 첫 3라운드에서만 10회 이상의 직접 퇴장이 기록되었고, 이는 곧 ‘개막 초 고위 힘’현상의 발현 이었다. 이와 함께, 중국 축구협회는 경기 후 ‘사상 최고 수준의 징계(최대 정지·벌금 등)’와 사후 공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부 폭력 사건을 신속히 공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이후 위험 모델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농구 분야에서 집단 폭력은 축구와는 현저히 다른 동력학적 구조를 보인다. 상호작용 의식 사슬(interaction ritual chains) 이론을 바탕으로 한 CBA 사례 연구에서는, “결정적 경기 실패 → 감정 에너지 불균형”이라는 과정이 집단 난투 폭력의 핵심 발화 메커니즘으로 확인 되었다. 경기 전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쌓이고, 경기 중 심판의 판정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감정 연쇄(emotional chain)”가 활성화 되며, 이는 팀 간 정체성 대립을 통해 집단 갈등으로 확대 된다. 사회학 관점에서는, “어떤 집단이 상황 속에서 감정 에너지의 주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폭력의 심화 혹은 진정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유형학 연구에서의 논리 분류 법, 유형학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논리 분류 법’에 기반 해 진행된다. 관련 문헌에서는 먼저 경기장 내 폭력을 ‘선수 폭력’과 ‘관중 폭력’이라는 두 개의 주제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 내에서는 다시 동기(경쟁적, 보복적, 과시적)와 장소(경기관중, 경기 외, 온라인)라는 이차 기준에 따라 세분화함으로써 계층적 매트릭스 구조를 구축 한다. 이 구조는 ‘주체-상황-결과’라는 세 차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개입 수단과의 맞춤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관중의 온라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 신원 인증과 같은 조치를, 선수의 악의적 파울 방지를 위해서는 규칙 기반 처벌 강화 + 심리 상담과 같은 계층화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지식 그래프 분석 결과,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스포츠 폭력 관련 연구는 초기의 “개념 정의-행위 분류” 단계에서, 점차 “팬 소요-법률 규제-디지털 거버넌스” 중심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의제가 형이상학적 논의에서 제도적 실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에 『체육경기 행동 규범 의견』 등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학계 기반의 경험 연구가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와 “산업 자율

성 및 사법 연계” 중심으로 확장되었으며, 법학, 사회심리학, 데이터 과학이 융합되는 학제적 연구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학문적 전환 경향은 폭력 모니터링 지표, 위험 예측 모델, 단계별 징계 기준의 세분화를 촉진하였고, 결과적으로 ‘예방-개입-복구’ 전 단계에 걸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이론적·실증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2. 중국 정부 및 스포츠 사회단체의 역할 현황

중국의 경기장 폭력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국가 입법 강화, 부처 간 협력의 맹점, 산업협회의 자율 규제력 미흡이라는 세 요소 간 긴장이 핵심 모순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각각 ‘입법 주도 -부처 협력 -협회 자율’이라는 세 축을 따라 제도 확장과 거버넌스 괴리의 내적 구조를 고찰한다.

2022년 개정된 『체육법』은 최초로 “경기 폭력 중단 및 경기 질서 유지”를 독립 조항으로 포함시켜, 과거 형법·민법전 차원의 공공안전 및 인신보호 의무를 체육 전문 법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하위 법령으로 2020년 『체육경기 활동 관리방법』과 2018년 『경기장 행동 규범 의견』이 제정되었으며, 주최 측의 안전평가, 경기별 대응 계획, 위험 차단 기술 등을 규정해 행정 집행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선수 및 관중 개개인을 보호하는 별도의 참여자 보호 규정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Provincial) 간 이동 경기나 온라인 폭력 사건 발생 시, 행위자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법 집행 범위가 모호하다. 지방 공안(治安) 및 체육 부서들은 흔히 일반 법령이나 민법 조항에 의존하여 대응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단편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기장 폭력 사건 대응에는 공안, 체육행정기관, 비상 관리부서 및 산업협회 등 다수의 행위 주체가 관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행 규정은 여전히

히 일방적 보고 체계 또는 임시 연석회의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정보 공유나 권한-책임 연계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학계는 이를 “책임 교차와 제도 공백이 공존하는 구조”로 평가 한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장 행동 관리 의견》에서는 공안이 폭력 제지, 체육당국이 업계 징계를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사건 흐름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지 않아, 관련 당사자들이 여러 부처를 반복 방문하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방 간 경기 충돌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사법 관할권 및 행정 제재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집행 기준, 증거 수용, 처분 간 연계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부처 범위 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 공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는 향후 “다부 처 및 다 범 위 협업” 거버넌스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협회 자율·사법 안전망”이중 구조에서 경기장 폭력 위반은 대부분 산업협회(예:축구협회)의 ‘징계규정(규율준칙)’에 따라 우선 처분됩니다. 2019~2024년 간 협회는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모욕 행위에 대한 정량적 징계 조항을 강화했는데, 예를 들어 침 뱉기 행위는 최소 20만 위안 벌금과 12개월 정지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처벌이 약하고, 집행이 어렵고, 재심이 적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부 악성 사건은 경기 정지 몇 경기 또는 수만 위안 벌금에 그쳐 언론과 대중은 “약한 처벌 이에 따른 재범”을 비판하고 다. 비록 2025년 일부 지방 리그 징계 조항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나, 종목 간·경기 등급 간 적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공안의 형사 입건과의 신속한 연계 채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협회 내부 규제만으로는 중대 폭력 행위에 대한 실효적 억지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법적 권한, 사회적 감시, 그리고 사법 협력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 한다.

3. 중국 스포츠 단체의 스포츠 폭력 예방 및 제거를 위한 활동

중국의 경기장 폭력 대응 체계는 “협회 자율·사법적 안전망”이라는 이원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경기 위반 시 축구협회 등 스포츠 협회가 우선적으로 징계 규정(징율 준칙)에 따라 처벌을 결정한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협회는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모욕 행위를 포함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정량화된 징계 조항을 강화했으며, 침 뱉기 행위의 경우 최소 벌금 20만 위안 및 12개월 경기 정지 등의 강력한 기준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 일부 악성 위반 사례는 몇 경기 정지 또는 수만 위안의 벌금 수준에 그쳐, 언론과 학계에서는 “약한 처벌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지적하고 있다. 집행 범위가 제한적이다. 2025년에 일부 지방 리그 징계가 전국 적용으로 확대되었지만, 종목을 넘어서는 적용이나 계층 간 연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법 처리와의 연계가 취약하다. 협회 내부 징계만으로는 공안의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이 어렵고, 신속한 연계 채널이 부재하다. 따라서 협회 중심의 규제만으로는 심각한 폭력 행위에 대한 실효적 억지력이 부족하며, 법적 권한 강화, 사회적 감시체계, 사법적 협력이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본 연구의 주요 결론 중 하나이다.

중국 슈퍼리그는 화동사범대 팀이 제안한 4R(축소-준비-대응-회복) 위기 관리 모델을 통하여, 리스크 평가, 심판 승강제도, 팬 블랙리스트, 사후 심리 개입을 통합한 폐쇄 루프 구조를 확립하여 사전 예측부터 사후 검토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거버넌스를 실현하였습니다. 2024 시즌부터 중국 축구 협회는 주요 논란 판정에 대한 공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문제 판정을 한 심판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협회 내부의 승강제도와 연계되

어, 집행력과 투명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폭력성 파울 및 승부 조작 행위에 대한 협회 징계 및 형사 처벌이 동시 적용되고 있으며, 예를 들면 목 조르기 행위에 대해 4경기 출장 정지와 4만 위안 벌금이 부과되어, 최고 수준의 징계·언론 노출이 재범 억지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직업 리그 수준에서의 제도적 연계와 실행력은 청소년 및 지역사회 현장의 예방 개입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사적 거버넌스 구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최신 메타분석에 따르면, 23편의 실증 연구를 통합한 결과, 8~12주, 1회 90분 이상, 총 횟수는 8번 이하의 종합적(인지정서행동) 개입이 공격 행동에 대한 전체 효과량 $d = -$ 수준에서 유의미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 중학교 환경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지정서행동 일체형 개입이 인격 모욕, 관계적 공격, 외현적 폭력 등의 영역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이며, 교실집단활 동가정의 협력적 통합적 모형이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추가적으로, 16회, 주 1회 시행된 단기 심리화(mentalization) 개입은 고위험 청소년의 공격 조절에 기여하였으며, 개입 종료 후 3~6개월간 신체적 공격 차원에서 유의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거는 학교지역사회사범 체계의 삼위일체적 심층개입이 직업 리그의 사후 교육 모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폭력 예방을 위한 ‘인재 계층화(prevention talent pipeline)’의 구축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기초 대회와 학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포츠 폭력 위험 체크리스트』(총 70개 항목)를 개발하고, 파레토 분석을 통해 “부정적 문화 확산”, “낮은 개인 소양”등 상위 8개 고빈도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이후 ‘회피-전이-통제-수용’ 네 분면 전략 수립의 정량적 근거가 되었다. 또한 대학 체육시설의 비상 관리 사례는 위험 식별-의사 결정-구조체계를 모듈 화할 때에만 돌발 상황에서 신속 대응과 자원 통합이 가능함

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프로 리그에서는 심판·팬 이중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행동 위험을 참가 자격과 연동함으로써 위험의 전단(前段) 필터링과 후단(後段) 억지 효과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4. 스포츠 폭력 발생 및 제재 현황

본 절은 (1) 업계 내부 징계의 현황, (2) 형사 규제의 탐색, (3) 대표 사례의 경고 효과라는 세 축을 따라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제도적 맥락과 현장 경험 사이의 연속적 논증을 도모 한다. 첫째, 협회가 주도하는 징계 체계는 이미 ‘경고-벌금-출장 정지-등록 말소’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적 개입의 제약과 독립적 구제 수단의 부재로 인해 권리 보호의 단절이 노출 된다. 둘째, 학계는 형법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 폭력 범죄’의 신설 및 3단계 양형(주체·규칙 일탈·결과) 도입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상당성’ 원칙을 실체법과 양형 기준에 접목하려 한다. 셋째, 최근 농구·축구 리그에서 발생한 집단 충돌 사례는 ‘최고 수위 징계·공개 투명성’이 재범률을 유의미하게 억제함을 보여 주는 동시에, 지방 대회 운영 주체의 책임 경계가 모호하다는 제도적 사각을 드러낸다.

현행 경기 징계 체계는 여전히 리그 매뉴얼과 협회 『징계준칙』을 핵심 기반으로 하며, 폭력 사건에 대하여 현장 경고·경기 후 벌금·출장 정지·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최대 4경기 출장 정지와 고액 벌금은 흔한 사례가 되었으나, ‘협회 결정-내부 재심’이라는 단선적 절차 탓에 당사자가 독립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 2025년부터 『체육중재위원회 조례』가 “스포츠 판사”제도를 시범 도입했음에도 활용도는 낮아 사법적 구제는 여전히 단편적이다. 더구나 협회 내부의 기능 분화와 절차적 공정성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동일 사건에 대한 처벌의 일관성 부족(“동일

사건, 상이한 처벌”이 자주 제기되며, 그 결과 권리 보장과 억지 효과 모두 약화되는 실정이다.

협회-행정 이원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수 형법학자는 『형법』에 “경기 스포츠 폭력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체 신분(선수·코치·관중), 규칙 일탈 정도(일반 파울·악의적 파울), 손해 결과(경상·중상·사망)를 축으로 하는 3단계 양형 프레임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다 . 이러한 방안은 ‘정당 업무 행위’와 ‘사회적 상당성’의 이원 구별을 사법 심사에 도입하여 형법의 최소 개입 원칙을 준수함과 동시에, 중대한 폭력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동시적인 형사 책임 추궁 통로를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닌 다 .

2024년 중국 중 갑 리그 ‘다렌 잉 보 vs 광저우’경기 종료 후 발생한 집단 난투 사건에서 중국축구협회는 관련 선수 4명에게 총 24경기 출장 정지와 44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경기 풍기·질서 관리 辦法』 시행 이후 최고 수위의 징계로 평가되었다(新華網, 2024,5,10). 이어 2025년 CBA 챔피언결정전의 이른바 “통제 실패 경기”에서는 구단 투자자에게 출장 정지, 선수에게 고액 벌금, 해당 경기장의 차기 시즌 개최 자격 박탈 등 제재가 내려졌고, 단일 건당 벌금이 20만 위안에 달하였다(搜狐網, 2025,5,18).이미 2008년에는 우한 구단이 리그 보이콧을 선언한 결과, 중국축구협회가 등록 자격을 즉시 말소하고 3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선례가 있어, 등록 말소가 협회가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을 입증 한다(央視網, 2008, 10, 6).

이들 사례는 징계의 최고 수위와 공개 투명성이 재범 억제에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사 하는 동시에, 경기장 보안·대회 조직 주체의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제도적 사각을 드러낸 다; 따라서 지방 주관 부처·협회·공안간의 완결적(閉環)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

5. 스포츠 폭력 예방·지원 체계의 현황

국내·외 연구와 실천이 맞물리면서, 중국의 스포츠 폭력 예방 체계는 단편적 조치에서 체계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는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험 식별-개입-평가’로 이어지는 폐쇄 루프(closed loop) 운영이 가동 중이다. 동시에, 미국 Safe Sport 제도와 영국 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의 경험은 학제 간 모델과 독립 조사 기구가 청소년 보호 및 성폭력 방지에서 갖는 제도적 우위를 입증한다. 특히 Safe Sport는 독립 조사·제재 권한과 교육·예방 정책을 통합하여 “조사·훈련·정책”삼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2024년 개정 정책은 미성년 선수 보호 조항을 강화했다.

한편, 미디어에서는 긍정적 서사와 폭력 ‘탈매력화(de-glamorizing)’전략이 모방 효과를 억제하고 사회적 예방 장벽을 보완하는 핵심 기제로 인식된다.

이하에서는 ①학교·가정·지역사회 통합 네트워크, ②의 제도적 시사점, ③미디어 기반 2차 예방 전략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진전과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최근 중국의 교육 및 체육 행정 부처는 심리적 위기 식별, 가정-학교 협력 개입, 지역사회 지원을 청소년 스포츠 폭력 예방 프로세스에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위험 식별-개입-평가’의 삼단 식 폐쇄 루프를 구축하였다.

행동 기반 위협 평가 및 관리(Behavioral Threat Assessment & Management, BTAM)는 증거에 근거한 다 학 제적 프로세스로, 학교·지역사회·직장 등에서 잠재적 폭력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조사·평가·관리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와 학교심리학회 등이 제시한 지침은 학령 이전 단계에서부터 위험군을 조기에 가려내는 정밀 선

별을 강조하며, 언어·행동·정서·사회관계 데이터를 종합해 ‘위협을 만들 가능성’과 ‘실제 위협이 될 가능성’을 구분하도록 권고한다(Bowler Jr, G. 2024).

위험 식별 측면에서, 다학제 위험 평가 모델(BTAM)은 교정(校庭) 및 지역사회 맥락에 도입되어 체계적 평정척도를 활용함으로써 잠재적 폭력 성향을 선제적으로 선별하며, 교육 단계의 전주기에 걸친 정밀 스크리닝을 가능하게 한다.

BTAM(Behavioral Threat Assessment and Management)은 근거 기반(evidence-based)·체계화된(systematic) 절차로서, 잠재적 폭력 위협을 식별, 조사, 평가, 관리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학교·지역사회·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된다.

1) 위험 식별 모델의 핵심 기제 본 모델의 핵심적 작동 원리는 다음 두 측면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1) 행동 지표 식별

BTAM 팀은 다양한 조기 경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폭력 위협을 조기에 포착한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자필 메모·이미지 등 언어·문서·시각 매체를 통해 표출되는 위협 표현이 포함된다. 또한 사회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나 제스처—예컨대 폭력 동작 모방, 무기 전시—를 주시하며, 급격한 정서 변화, 사회적 고립, 폭력 전력과 같은 요인에도 높은 경계심을 유지한다. 이러한 복합 신호는 일시적 부정 정서와 실제 폭력 성향을 구분하는 1차 선별의 핵심 과정을 이룬다.

(2) ‘폭력 경로(pathway to violence)’ 추적

BTAM에서는 ‘폭력 경로’—즉 잠재 가해자가 초기 사고→구체적 계획→실행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진전을—의 식별을 중시한다. 팀은 행위 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단계의 경고 지점을 파악하고, 초기 징후에 대해 선제적 개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무기를 검색하거나, 목표·시점을 구체화하는 정황이 포착되면 ‘사고에서 행동으로의 도약’으로 간주하고 즉시 통제 및 지원 조치를 가동한다.

(표 14 참조)

표 14. 위험 식별의 구체적 조치 요약

단계	핵심 조치	도구 및 자원
초기 식별	교사·학부모·도래가 모두 참여하는 다채널 신고 체계 구축, 위험 신호를 실시간 포착	구조화된 설문지, 모니터링 도구
사실 조사	통신 기록·온라인 활동·창작물 등 관련 데이터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집·검증	FERPA·HIPAA 준수 교육, 법률 자문
위험 점수화	환경·상황·개인 요인을 반영한 다차원 평가 척도로 위험 수준 수치화	검증된 위험 식별 평정척도
학 단계 개입	초등학교·가정·지역사회가 동시에 개입하여 조기 선별·지원	MTSS(다층지원체계) 틀, 지역사회 협력망
개입 추적	심리 상담·사회·의료 연계 및 경찰 협업을 단계별로 전담 기관에 전과	사회·심리 자원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평가	효과성·형평성 지표를 정기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고·피드백	지표 관리 시스템, 성과 보고서

출처:(본 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2) 위험 식별 이후의 계층적 개입 전략

BTAM(행동 위협 평가 및 관리) 팀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분화·계층화된 개입 전략을 수립하여, 잠재적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구를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전을 보장한다. 위험도가 낮은 개인에게는 심리 상담·정서 지원·사회성 기술 훈련을 제공하고, 수업 현장에서는 소규모 행동 지도나 교사 순회 지도를 통해 추가적인 관심을 기울인다. 가정 차원에서는 정기 연락 및 가정 방문을 실시해 학교-가정 연계介入을 강화한다. 반면 중·고위험군에는 개별화된 안전 계획을 마련하여 구체적 행동 모니터링과 교내 활동 제한을 적용하며, 필요 시 고위험 장소로부터 일시 격리한다. 또한 임상 심리 치료, 사회복지 서비스, 가족 지원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체계적 지원介入을 시행한다.

3)개입 후 지속적 추적 및 피드백 메커니즘

BTAM의 효과를 공고히 하고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재평가, 사례 종결·문서화, 성과 모니터링 지표라는 세 핵심 단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주기적 재평가

개입 실행 이후 BTAM 팀은 매월 또는 학기별 등 사전에 설정한 주기에 따라, 초기 평가와 동일한 구조화 척도를 사용해 개인을 재평가한다. 면담 기록, 수업 관찰, 교사·학부모 소통 기록, 학교 징계 자료 등을 활용한 이러한 정기 평가는 개입 유효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전략을 조정·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2) 사례 종결 및 문서 공개

모든 재평가 과정과 결과는 보안이 확보된 아카이브에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 과정의 투명성·추적 가능성을 담보한다. 개인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고 경고 신호가 재발하지 않을 때, 팀은 공식적인 ‘종결(closed loop)’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기록은 향후 팀 교육·절차 개선의 실증 자료로 활용되며, 학교 관리자와 교육 당국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성과 모니터링 지표

BTAM 시스템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팀은 위기 사건 발생률 징계 조치 변화 심리 서비스 의뢰 건수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발견-조정-검증’의 동적 폐쇄 루프를 가능케 하여, 프로그램 지속 개선에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제 지식 그래프 분석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력 방지와 선수 보호는 최근 학계의 핵심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북미·유럽의 Safe Sport 체계는 다차원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 미국의 U. S. Center for Safe Sport는 통합 조사·징계 데이터베이스·의무 교육을 일원화함으로써 종목별 협회 내부조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나, 조사 지연과 투명성 부족 문제로 개혁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Safe Sport Act』는 신고 의무 범위를 확대하여, 청소년 선수와 접촉하는 모든 성인에게 법정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민사 연계를 강화하였다. 영국의 NSPCC-CPSU(Child Protection in Sport Unit)는 “스포츠-사회복지-사법” 협력 모델을 채택하여, 독립 중재 및 아동보호 법원을 통한 중대 사건 처리

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청소년 보호와 성폭력 예방에서 학제 간 접근 및 독립 조사 기구의 제도적 우위를 입증하며, 국내 시스템 개선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국내 연구진은 이러한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 기구인 “설립과 함께 소년법원 내 ‘스포츠 폭력 전담 합의부’를 신설하여, 협회 자율 규제와 일반형사 소송 사이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실증 연구는 미디어의 폭력 사건 보도 방식이 청소년의 태도 및 모방 성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반복적 폭력 장면 노출은 청소년의 폭력 민감도를 저하시켜, 폭력을 갈등 해결 수단으로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특히 ‘팬덤(fan圈)’문화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폭력은 팬경제의 급속한 외연 확대로 미성년자에게 모방·동조 압력을 가중시키므로, 법적 규제와 플랫폼 차원의 관리가 시급 하다. 학계는 보도 초점을 “폭력적 장면의 과도한 재현”에서 “거버넌스 조치·사회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해설, 피해자 관점, 법적 결과 등을 적극 제시하여 폭력 행위의 ‘영웅화’효과를 약화시키고, 부모·교사를 위한 안내서나 수업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리터 러시를 향상시키고 방어 기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중국의 스포츠 폭력 예방·지원 체계는 이미 ***‘다중 네트워크 협력-학제적 거버넌스-미디어 공동통치’로 요약되는 통합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폐쇄 루프(closed loop)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제도적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전문 입법과 데이터 공유 체계의 구축

-공공·사설 데이터를 연계하는 跨부처(跨層級) 공유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다단계 행정 절차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다.

Safe Sport 모델의 독립 조사·강제 보고 제도 도입

-미국 U. S. Center for Safe Sport의 독립 조사·징계 DB·법정 신고 의무는 협회 자율 규제에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미디어의 '감정 증폭기'에서 '거버넌스 파트너'로의 전환

-폭력 장면을 과도히 재현하는 대신, 정책·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보도하고, 전문 해설·피해자 관점·법적 결과를 강조함으로써 모방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학교·지역사회·온라인 공간이라는 세 영역에서 폭력 발생률을 동시 감소시키고, 스포츠 환경의 지속가능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1. 중국 정부와 사회조직의 역할

중국의 경기장 폭력 거버넌스 체계는 ‘입법 주도-부처 협력-협회 자율’이라는 삼중 구도 속에서 상호 견제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각 축마다 고유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러한 다(多)중심 구조를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가치—탁월(Excellence), 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와 접목할 경우, 제도 업그레이드에 보다 명확한 가치 지향을 부여할 수 있다. 즉, 존중을 통해 법치의 하한선을 강화하고, 우정을 통해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연계를 촉진하며, 탁월을 통해 협회 자율과 역량 구축의 전문성·투명성을 고양하는 방향이다. 이하에서는 세 가지 거버넌스 축을 중심으로 현황을 논하고, 이를 올림픽 가치와 연계한 개선 경로를 제시한다.

중국의 신(新) 체육 법(2022)은 “경기장 폭력의 억제 및 경기 질서 유지”를 별도 장(章)으로 규정하여, 종래의 형법·민법진 차원의 공공안전 보호를 체육 전문법적 의무로 확장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체육경기 활동 관리방법」(2020)은 주최·주관 기관의 위험 평가 및 ‘경기별 대응 계획’ 수립을, 「경기장 행위 규범에 관한 의견」(2018)은 심판·경기 운영·보안 담당자 간역할 분담과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선수 및 관중의 개별 권리를 규율할 「체육 참여자 보호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도·시(省級) 간 경기나 온라인 폭력 사건의 처리는 치안관리처벌법 등 일반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 경계와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1) 올림픽 가치에 기반 한 개선 방안 “존중”의 실천

경기 규칙 수준에서 ‘심판 존중, 상대 존중’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모든 경기 참가자를 포괄하는 종합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2024년 국가 체육 표준화 작업 요점을 통해 집행 기준과 증거 인정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한 IOC의 2024년 ‘인간관계 폭력 및 보호 장치’합의 성명을 참고하여, “존중”을 강제 신고·투명 조사라는 법적 의무로 외재화해야 한다 .

2)“우정”의 제도적 파트너십

현재 폭력 사건 대응은 공안, 체육, 비상관리, 협회 등 간 임시 연석회의와 단 방향 보고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책임 교차와 제도 공백’ 상태로 비판받는다. 예컨대 『경기장 행위 관리 의견』은 폭력을 제지할 공안과 징계할 스포츠 부서를 분리했으나, 사건 통합 처리 플랫폼이 없어 대응이 지연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차 5개년 체육발전계획’이 제시한 부처 협업 모델처럼, 공안·체육·인터넷안전·검찰이 통합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사건 공통 코드를 이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또한 미국 U. S. Center for Safe Sport처럼 조사·징계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 조직 “” 설립과 2025년 도입된 ‘스포츠 판사’제도를 연계해, 행정·산업·사법의 3중 신속 대응 채널을 구현해야 한다 .

3)“탁월”의 거버넌스 가치

협회는 스포츠중재위원회와 신속 재심(appeal) 통로를 마련하고, ‘스포츠 판사’제도를 통해 판정 권위와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징계 기록, 심판 평가, 보안 위험도 등 핵심 정보를 단일 공개 플랫폼에 탑재함으로써 언론과 대중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개·공정’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표 15 참조).

표 15 올림픽 가치 기반 스포츠 폭력 예방 시스템 거버넌스 청사진

전략 축	핵심 가치 지향	주요 실행 과제	예상 성과
가치 내재	존중 · 우정 · 탁월	“존중”을 통해 법률 강화, “우정”을 통한 부처 간 협 업, “탁월”을 목표로 전문 위일체 폐쇄 루프 구축 성과 투명성 확보	가치 · 제도 · 역량의 삼 성과 투명성 확보
제도 진화	전체 과정 거버넌스	『체육 참여자 보호 조례』 제정, 사례 기반 부처 간(跨 부처) 사건 관리 플랫폼 구 축, Safe Sport 캐나다 독 립기구 설립, 스포츠 중재 체계 정비	발견 → 조사 → 판결 → 재심까지 일관된 절차 흐 름 구축
문화 선도	올림픽정신의 대중화	‘도덕 금메달, 스타일 금메 달’ 개념 확산, 올림픽 가치 를 정책 홍보 및 체육 교육 에 융합	사회 전반에 스포츠 폭력 ‘제로 관용’ 공감대 확산

출처:(본 표는 선행연구(문헌·정책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예: Safe Sport 법제, 올림픽 가치 확산 사례, 지자체 스포츠인권 조례)

올림픽 정신은 중국의 경기장 폭력 거버넌스에 명확한 가치 좌표를 제시한다. 존중(Respect)은 법치의 권위를 강화 하며, 우정(Friendship)은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더욱 견고히 하고, 탁월(Excellence)은 협회 자율의 전문도와 투명성을 제고한 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한 통합적 프레임워크는 입법-행정-협회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 공백을 메우는 상호 보완적 관계(“보완(positioning)”이지 “비부재(absence)”가 아님)를 위해 필수적이다. 제도 설계 단계에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체계적으로 내재화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버넌스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문명적인 체육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스포츠 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응 전략

스포츠 폭력은 올림픽 정신의 핵심 가치인 ‘존중, 공정, 우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그 근원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의 결함과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취약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적 경험과 중국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1) ‘보호 우선’원칙을 중심으로 한 제도 설계

현재 중국의 스포츠 폭력 방지 체계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 처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예방 중심의 사고방식이 부족하다. 올림픽 운동의 ‘개인의 전인적 발전 촉진’이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선수 권리 보호를 제도 설계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 주기적이고 전 시스템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단일 관리 중심의 권력 구조 탈피 및 거버넌스 다원화

실증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스포츠 폭력 사건에서 체육 조직 내부에 효과적인 감시 및 책임 추궁 장치가 부재하여 폭력 행위가 은폐되거나 부실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제3자 독립 조사기구의 도입, 부처 간 협력 메커

니즘의 구축 등을 통해 ‘다윈 협치’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투명성과 공공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1) 법치 + 행정감독의 이원적 추진

법제 정비 측면에서 『체육경기활동 풍기·기강 관리방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경기장 폭력’, ‘모욕’, ‘집단 난동’ 등을 위법·위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법규 준수·공개 투명”, “예방과 처벌 병행”, “전 과정 감독”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감독과 업계 자율이 결합된 전 과정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한다.

동 규정 제13조는 대회 관리 주체가公安·선전·인터넷 정보·기율 감찰 등 부처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여론 안내, 감독 점검, 사건 처리에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팬 행위 등 위법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과公安이 즉시 공조할 수 있도록 하여 거버넌스 효율성을 제고한다.

(2) 산업 자율 + ‘관리·운영 분리’(管辦分离) 개혁

‘관리·운영 분리’ 제도는 정부가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경기 운영을 전문 협회나 회사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CBA 리그는 중국농구협회가 감독하고 CBA 회사가 실제 운영을 맡는 모델을 채택하여 경기 자율성과 실행 효율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경기 전·중·후 자체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기율 감찰 기관 및 사회 감시 메커니즘과 같은 제3자 평가를 실시간으로 도입함으로써 경기장 자율을 강화하고 문제를 신속히 발견·대응하여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있다.

(3) 덕치 교육 + 가치 확산 전략

동 규정 제14·15조는 정기적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과 올림픽·중화 체육 정신 함양을 규정하며, ‘풍기·기강 교육’을 선수·심판·청소년 등의 입대·취업·출전 필수 요건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나아가 ‘챔피언 스토리’ 확산, 문명 관람, 이성적 팬 문화, 투혼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팬과 대중이 건전하고 적극적인 관람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정신적 차원에서 악성·극단적 행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4) 신미디어 모니터링 및 플랫폼 거버넌스

소셜 플랫폼 책임제 관점에서,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은 콘텐츠 심사 체계를 마련해 극단적 발언·선동적 표현·스토킹·허위조작 행위를 즉시 삭제·차단함으로써 온라인 폭력과 불법 정보 확산을 통제해야 한다.

온라인 폭력 제재 강화를 위해서는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기 방지법』의 규범 구조를 참조해 네트워크 스토킹·모욕·협박 등을 겨냥한 특화 입법을 구축하고, 극단적 스포츠 팬덤 선동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5) 부처 간 협력 +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체육·공안·사이버행정·기울감찰·선전 등 부처 간 소통체계를 정비하여 수평적·수직적 다층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 체육 단체, 플랫폼 기업, 사회 조직,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주체를 흡수해 협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유엔은 스포츠를 활용한 폭력 예방 분야에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6) 안전·서비스 병행의 경기장 거버넌스

경기장 안전보장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보안 지침을 참조하여 위험 평가, 공안 배치, 현장 비상 대응 메커니즘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질서와 관중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관람 서비스 측면에서는 입장 절차, 식음 위생, 좌석 서비스 등 후방 지원을 최적화하여 문명적·우호적·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 개선 차원에서 잠재적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이처럼 법·행정감독, 산업 자치, 덕치 교육, 플랫폼 거버넌스, 부처 협력, 경기장 안전·서비스 등 여섯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시스템적 거버넌스는 법제·산업 규범·교육 문화·기술 플랫폼·안전 서비스의 다층 경로를 통해 스포츠 폭력을 종합적으로 예방·대응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3) 법률 및 행정정책의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 체계 마련

중국은 현재 『체육 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에서 스포츠 폭력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 법령이 부족하다. 『스포츠 참여자 보호 조례』 등 보완적 입법을 추진하여, 코치, 기관, 경기 조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보호, 징계 처리 등의 절차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윤리 심사' 및 '행위 기준' 제도의 도입

IOC 및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포츠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자격 인증, 지도자 평가, 경기 심사 등의 요소에 통합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중심의 사전 심사 체계를 통해 지도자 및 관리자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교육 및 훈련 제도의 전면적 정착과 상시화

제도적 차원에서 각급 체육 조직이 '반 폭력'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코치, 심판, 선수 등을 대상으로 강제적인 윤리 교육, 안전 인식 훈련 및 권리의식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유소년부터 프로까지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루프를 완성해야 한다.

6) 정보 공개 및 데이터 추적 메커니즘의 구축

현재 중국 스포츠 분야에는 폭력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및 공표 시스템이 부족하다. 전국 단위의 스포츠 폭력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을 통일하며 동태적 모니터링을 통해 각급 관리자들이 차별화되고 타당성 있는 개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올림픽 정신을 지침으로 삼아 중국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를 '법치화, 시스템화, 공개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층부의 제도 설계와 하부 조직의 실행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제도화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서만이 “존중 속에서 경쟁하고, 안전 속에서 성장하는”스포츠 환경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과 직업 선수 모두에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성장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중국 스포츠 단체의 책임과 조치

중국 스포츠 단체는 경기장 내 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니며, 이를 올림픽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탁월성-우정-존중’의 틀에서 조망할 때, 직업 리그-학교 체계-지역 사회로 이어지는 점진적 책임 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 스포츠는 ‘탁월한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 규칙과 투명성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개입은 ‘존중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나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우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 협력’을 통해 위험 요소의 조기 선별과 재범 방지 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세 영역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경기 전 예측-경기 중 대응-경기 후 교정’이라는 전 과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중국 형 Safe Sport CN 제도화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1) 직업 리그: ‘탁월성’을 통한 규칙 권위 강화

중국 슈퍼리그(CSL)는 ‘축소-준비-대응-회복’의 4R 위기관리 모델에 따라, 리스크 평가, 심판 등급 조정, 팬 및 심판 대상의 이중 블랙리스트, 경기 후 심리중재를 하나의 거버넌스 주기에 통합함으로써 ‘사전 경고-사후 복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2024 시즌부터는 주요 판정 논란에 대해 공개 평가가 의무화되며, 그 결과는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부적절한 판정을 내린 심판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하향 조정되며, 판정 공정성

과 제재의 위력성이 동시에 제고되고 있다. 아울러, 《징계준칙》은 악성 반칙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설정하였으며, 예컨대 경기 중 목 조르기 행위는 4경기 출장 정지 및 4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탁월성 기반 거버넌스’는 올림픽 가치 중 하나인 ‘탁월성 추구’를 규칙의 전문화 및 집행의 고기준으로 제도화한 실천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학교 체계: ‘존중’을 통한 정신 함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스포츠 사회조직은 ‘존중’의 가치를 인지-정서-행동 통합 개입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다. 23편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8~12주간의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중학생의 공격 성향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효과크기 $d \approx$ -국내 사례 또한 주당 90분, 총 8회 이하의 집단상담이 인격모욕 및 외현적 폭력을 동시 감소시킴을 입증하였다. 학교-가정-사법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교실 교육, 집단상담, 가정추적, 청소년 법정 유도를 하나의 심화 개입 체계로 연결함으로써 ‘심판 존중-상대 존중-자기 존중’의 가치 순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IOC가 《올림픽 가치 교육 매뉴얼》에서 강조한 ‘존중’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3) 지역사회: ‘우정’을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연구자들이 개발한 「청소년 스포츠 폭력 위험 진단 표」는 70개의 위험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파레토 분석을 통해 ‘부정적 문화 확산’ 및 ‘개인

역량 부족'등 상위 8개의 고빈도 리스크를 도출하였다. 이는 '회피-전환-통제-수용'분면 전략의 정량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방 교육 및 체육 당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다학제적 위협 평가 팀(BTAM)을 설치하고, 통일된 평가 척도를 통해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함으로써 경기 전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사건 발생 시에는 지역 사회 복지사, 사법기관, 학교가 공동으로 사후 재발 방지 및 교정 평가를 수행하며, 이는 올림픽 정신 중 '우정'이 함의하는 주체 간 협력 및 포용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4)제도 통합화: Safe Sport CN을 향한 이행

IOC 가 제안한 Safe Sport 개념은 독립적 보호센터, 의무적 보고 체계, 다학제적 조사 방식을 통해 스포츠 환경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현재 중국축구협회와 교육부, 공안, 인터넷관리 당국은 이 프레임에 참고하여, 《스포츠 참여자 보호 조례》 내에 통합 사건 관리 플랫폼 및 독립 조사센터를 포함하는 제도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 플랫폼은 '발견-조사-판단-재심'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으며, 직업 리그의 '탁월한 관리' 학교의 '준중 교육'지역사회의 '우정 네트워크'가 이 체계에 결합될 때, 올림픽 정신은 실질적인 제도 기준과 역량 체계로 구체화된다. 이는 '가치-제도-역량'삼위일체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고리로 기능할 것이다.

중국은 스포츠폭력 방지 체계 구축 시 '미국 세이프스포츠(U.S. Center for Safe Sport)'의 성공 경험을 관련 법규, 디지털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한 뒤 자국의 법체계·행정 계층·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과 심층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벤치마킹 과정을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최근 진전을 소개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제시한다.

(1) 독립 조사 및 중재(仲裁) 메커니즘의 구축

미국 세이프스포츠는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학대·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중국은 2023년 전면 개정된 『체육법』에 “스포츠 중재” 장(章)을 신설하고, 국무원 체육행정 부처 산하에 중국체육중재위원회(CSAC)를 설치하여 경기장 폭력·성희롱·극단 팬덤 분쟁 등을 “일심 종국(一裁終局)”으로 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2025년 4월 공포된 『체육중재 업무 가이드라인』은 신고 접수, 증거 교환, 심리(聽證) 및 시한 등을 세분화해 절차적 정당성과 당사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2) 미성년 선수 보호 제도(중국판 MAAPP)

미국 MAAPP는 성인-미성년 상호작용을 6개 장면별로 강제 규정해 불법·부적절 행위를 차단한다. 중국은 중국반도핑센터가 운영하는 ‘미성년 선수 보호 플랫폼’을 통해 ① 일대일 동행, ② 심리 지원, ③ 법률 자문 등 세 종류의 24시간 핫라인을 제공하고, 코치·팀닥터·자원봉사자의 신원·경력 조회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체육활동 촉진 계획』은 “상호작용 고지-학부모 동의-영상 기록”의 삼위일체 모델을 도입해 학교·클럽 경기 전반에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

(3) 강제 보고 및 정보 공개

미국 법령은 학대 정황을 인지한 즉시(24 시간 이내) 사법기관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중국 역시 2024년 개정된 『체육경기활동 풍기·기강 관리방법』에서 선수·심판이 폭력 조짐을 발견하면 24-48 시간 내 공안 및 체육 당국에 이중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신용 제재를 부과한다.

아울러 2022년 ‘스포츠 행사 안전 감독 강화 의견’은 사전 위험 평가-경기 중 모니터링-사후 책임 추적을 상시 점검 목록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4) 집중 징계 데이터베이스 및 ‘레드·옐로카드’ 디지털 거버넌스

Safe Sport가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여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듯이, 중국은 국가체육총국 집행 플랫폼에 ‘레드·옐로카드 행위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고 공안·사이버관리국 블랙리스트와 연동하였다. 이 체계는 선수·지도자·극단적 팬의 출장 정지·입장 제한 기간을 실시간 관리하며, 사회 일반에 조회를 허용해 구단이 계약 전에 배경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선수’의 순환을 최소화한다.

(5) 전면적 교육 · 훈련과 자격 인증

Safe Sport의 필수 온라인 과정 및 연례 재교육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가체육총국과 각 종목 협회는 ‘Safe Sport CN’ 온라인 교육 패키지를 공동 개발하였다. 커리큘럼은 ① 선수 자기보호, ② 코치·심판 책무, ③ 방관자 개입의 세 모듈로 구성되며, 수료증을 취득해야만 등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해당 교육 지표는 『14·5 체육 발전 계획』의 거버넌스 현대화 항목에 포함되어 국가성(省)·협회·구단 네 수준의 평가 체계로 관리된다.

(6) 부처 협업 및 경기장 위험 관리

Safe Sport가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응급관리부·공안부·국가체육총국은 경기 주최자가 공안·의료·소방을 단일 지휘 체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AI 영상 분석과 인구 밀도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한 동적 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5년 『체육시설 공공 안전 일반 요구사항』(국가표준, 의견수렴안)은 경기장 위험 등급, 인원 밀도 임계값, 응급 훈련 주기를 정량화하여 강제 지표로 제시했으며, 국제센터(ICSS) 『대형 스포츠 이벤트 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관중 구역화, 신속 대피, 안티 드론 대응 등을 고위험 종목에 도입하였다.

미국 Safe Sport의 ‘독립적 조사-미성년자 보호-의무 보고-공개 징계-체계적 교육-다부처 협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중국은 이미 입법·집행·기술·교육을 아우르는 다차원 예방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① 지방 차원의 사건 접수 및 집행의 일관성 제고, ②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의 지속적 개선, ③ 기층 클럽과 농촌 학교에서 표준화된 교육·신고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세이프 스포츠’ 체계는 ‘제도 정립-플랫폼 정착-디지털 구동’ 단계에 진입하여, 아시는 물론 전 세계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에 적용 가능한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4.모니터링, 신고 및 법적 책임

스포츠 폭력의 발생과 처벌 현황을 올림픽 정신과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은 거버넌스 체계의 가치 지향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올림픽 정신은 ‘탁월성(Excellence)‘우정(Friendship)’ ‘존중(Respect)’을 핵심 가치로 삼으며, 이는 단순한 경기 규범을 넘어, 경기 운영의 제도적 논리와 실천 기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의 스포츠 폭력 대응은 징계 체계, 형사법적 규제, 그리고 주요 사례 처리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만약 올림픽 정신의 핵심 이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그 규범력과 감화력은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협회 주도의 징계 처벌 체계에서는 ‘경고-벌금-출장 정지-등록 취소’로 구성된 단계별 제재 메커니즘이 일정 부분 구축되었고, 《징계준칙》 및 《경기 풍기 및 기강 관리방안》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가 병행되어 일정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 정신의 ‘존중’과 ‘우정’가치에 비추어볼 때, 현행 징계 절차에서는 투명한 중재의 부재, 이의 제기 경로의 미흡, 재량 기준의 불일치 등 구조적 한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규칙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단선적인 내부 결정 구조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제도화된 스포츠 중재 메커니즘의 구축을 통해 ‘권리 존중,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라는 가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사법적 규제 탐색 차원에서는, 올림픽 정신이 강조하는 ‘탁월성’이 단지 경기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의 체계성과 진보성으로도 구현되어야 한다. 최근 학계에서 제안된 ‘경쟁 스포츠 폭력 범죄’ 신설 논의는, 행위자의 주체적 지위, 행위의 성격, 그리고 손해 결과에 따른 단계적 처벌 프레임을 구축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정당한 업무 행위’와 ‘사회적 상당성’원칙을 도입하여 형법의 겸양적 기능 아래에서 정밀한 규율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규칙 체계화와 통치 효율성에 대한 지

속적 추구라는 ‘탁월성’의 가치와 케를 같이하며, 만약 이와 같은 폭력 행위를 명확히 형사책임 체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행정 및 업계 징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스포츠 영역 내 명확한 법적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례 분석 측면에서는, 2024년 중국 갑급리그 ‘다렌잉보 vs 광저우 팀’사건과 2025년 CBA 챔피언결정전의 ‘통제 불능의 경기’사례가 보여주듯이, ‘최고 제재·공개 통보’메커니즘은 재범 억제 및 경기장 질서 재건 측면에서 현실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조화로운 경기 환경과 집단적 책임을 강조하는 ‘우정’가치와 부합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례는 지방 경기 운영 주체들이 보안 배치, 비상 대응, 책임 소급 등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우정 기반 협력’네트워크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체육 부문,公安기관, 협회 간의 책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중국의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는 징계 규범, 법적 대응, 사례 처리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올림픽 정신의 ‘탁월성-우정-존중’이라는 삼중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권리 보호, 시스템 연계, 가치 지향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동시적 최적화를 요구하며, 오직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대립적 규제’에서 ‘신뢰 기반 거버넌스’로의 근본적 전환을 실현하고, 보다 정당하고 전문적이며 지속가능한 폭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뢰 기반의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

스포츠 폭력의 예방 및 지원 체계를 신뢰에 기반 하여 구축하는 데 있어, 올림픽 정신—‘존중(Respect)’‘우정(Friendship)’‘탁월성(Excellence)’—은 제도 설계와 사회적 실천을 위한 견고한 가치 지향 점을 제공하며, 신뢰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국내 구조의 진화, 국제 사례의 시사점, 미디어의 기능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올림픽 핵심 가치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국내 ‘다중 네트워크 협력’기반의 폐쇄형 구조: 신뢰 메커니즘의 초기 구축

(1) 위험 식별 단계: ‘존중’의 가치로 정밀 선별의 기반 마련

행동위협 다 학제 평가모형(BTAM)의 도입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전문적인 식별 체계를 주입함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련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으며 상호 연계가 미약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데이터 보안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불신을 가지고 있어, 이 부분의 신뢰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2) 개입 실행 단계: ‘우정’기반 협력을 통한 개입 망 형성

지방 교육 부처가 운영하는 심리 상담센터는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단계적 개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는 올림픽이 강조하는 ‘우정’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주체 간 개입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역할과 책임의 경계 또한 명확하지 않아, 조직 간 신뢰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3) 사후 평가 단계: ‘탁월성’지향의 전문적 선순환 촉진

사회 복 지사, 사법기관, 학교 간의 교정 및 재범 예방 평가 체계는 과정과 결과의 질을 중시하는 전문성 중심의 구조로, 이는 올림픽 정신 중 ‘탁월성’의 가치와 부합한다. 그러나 법률 지원과 심리 회복 지원이 부족하여, 신뢰의 완전한 순환 체계를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단계·3과정’구조를 통해 가치 기반의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 체계를 초기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지속가능한 신뢰 메커니즘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제도 간 협력, 자원 순환적 연결 구조에서의 보완이 요구된다.

2) 국제 메커니즘 비교: 신뢰 사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모범 사례

다음은 주요 국가의 스포츠 폭력 대응 시스템을 중심으로 신뢰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으로, 각 항목은 대응 메커니즘, 신뢰 제고 수단, 그리고 연계되는 올림픽 핵심 가치로 분류하여 비교한 것이다.

제도적 차원유럽 및 미국의 실천 사례신뢰 강화 메커니즘 대응되는 올림픽 가치독립 조사 기관미국 Safe Sport, 영국 CPSU전문 조사팀 운영 및 강제 보고 의무 부과, 조사 진행 상황 공개로 투명성 제고탁월성: 전문 조사 역량 제공.

존중: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부처 간 협업 체계CPSU의 ‘스포츠·사회복

지·사법'협력 모델제도 공백 보완 및 프로세스 연계성 확보우정: 협력 기반의 상호 신뢰로 보호망 구축법적 강제 보고 제도미국 Safe Sport Act의 접촉자 보고 의무화책임 주체 명확화, 미 이행 시 법적 제재 조치 적용준중: 피해자 권익 우선 보장대중 소통 및 예방 교육"가이드라인 제공 및 올바른 정보 유도허위 정보 유포 감소 및 모방 범죄 억제준중과 우정: 공공 영역 내 인식 공동체 형성 이와 같은 국제 사례는 스포츠 폭력 예방과 대응에 있어 신뢰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참조 모델로 평가되며, 향후 중국 형 Safe Sport CN 제도 설계에 있어 핵심 참조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미디어 권위의 해체와 빠른 전파: 신뢰 기반 여론 형성

실증 연구에 따르면,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될 경우 청소년의 폭력 민감성이 저하되고 모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학계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보도의 초점을 폭력 사건 자체에서 벗어나 그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지원 체계로 전환할 것, 둘째, 언론과 교육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와 교사에게 방어 전략 가이드를 제공할 것, 셋째, 공적 담론 속에 올림픽 가치의 전파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폭력 무관용'인식을 제고할 것. 이러한 미디어 전략은 사회적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중이 제도적 완벽성과 가치 지향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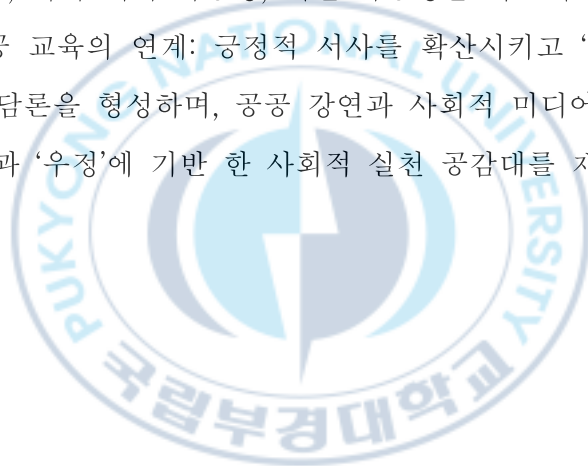
4) 신뢰 지향 및 올림픽 정신 기반의 제도 설계 제언

가치 내재화 기반 제도 설계: 《스포츠 참여자 보호 조례》에 데이터 공유, 절차 투명성, 알 권리 및 참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처 간 연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존중’과 ‘우정’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독립기관 제도화: 독립 조사 자격을 갖춘 “기구를 설립하고, 학교, 협회 및 사법 체계와의 표준을 연계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합된 ‘탁월성’기반의 책임 추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폐쇄형 순환 구조 구축: 경기 전(위험 식별), 경기 중(개입), 경기 후(사후 평가)를 포괄하는 ‘발견-조사-판단-재심’의 4단계 절차를 통합하여, 전 과정의 추적 가능성, 이의 제기 가능성, 개선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미디어 및 공공 교육의 연계: 긍정적 서사를 확산시키고 ‘팬덤 기반 폭력’에 대한 저항 담론을 형성하며, 공공 강연과 사회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존중’과 ‘우정’에 기반한 사회적 실천 공감대를 재구성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1) ‘가치-제도-역량’삼위일체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구조적 메커니즘-윤리적 규범-제도적 전환’이라는 분석 축을 중심으로, 올림픽 정신이 내포한 ‘탁월성(Excellence)-우정(Friendship)-존중(Respect)’의 핵심 가치를 통해 중국의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에 있어 가치 형성, 규범 내재화, 역량 강화라는 종합적인 연계 고리를 제시하였다. 올림픽 가치관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이미 전 세계 스포츠 윤리를 견인하는 핵심 지침으로 공인되었으며, 중국적 맥락에서 이를 행위 규범과 제도 설계로 전환하는 작업은 ‘규칙 내 관용’과 ‘규칙 외 무 관용’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기존 학계가 지적해온 이중 규범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치-제도-역량의 통합 프레임은 단순한 도덕 담론을 넘어, 법규 세분화 및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 실제 거버넌스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 ‘단계+3환경’신뢰 지향형 거버넌스 모델

중국의 스포츠 폭력 대응은 현재 위험 식별, 개입 실행, 사후 평가라는 세 단계에서 ‘다중 네트워크 협력’구조를 갖춘 폐쇄형 순환 체계를 일정 부분 구축하고 있다. 지역 체육 행정기관, 교육 시스템, 사회단체는 사전 예측과

스크리닝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경기 운영 주체와 공안기관은 경기장 안팎의 실질 개입을 담당하며, 사후 단계에서는 독립 또는 반독립 기관이 평가와 회복을 수행한다. 그러나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된 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또한 존재하여 정보 연계와 결과 환류 단계에서 신뢰 사슬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증 가능한 절차 표준화는 신뢰 기반 거버넌스의 심화를 위한 핵심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립 형 규제’에서 ‘신뢰 형 거버넌스’로의 전환

기존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오랫동안 ‘산업 자율·국가 개입’의 대립 형 규제 모델을 적용해 왔으며, 이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억제력은 확보했으나 거버넌스 주체 간 갈등 및 정보 단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초래하였다. 최근 들어, 올림픽 정신이 징계 규범, 법적 대응, 사례 심의에 체계적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대립 모델은 점차 ‘상호 신뢰-협력-정보 공유’중심의 신뢰 형 구조로 이행하고 있다. 이는 투명한 절차,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다주체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거버넌스의 정당성, 전문성, 지속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3) 독립 조사 및 강제 보고 제도의 비교 시사점

국제 비교 결과는 독립 조사 기관과 법적 보고 의무가 스포츠 폭력의 ‘회색 지대’를 줄이는 데 제도적으로 유의미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의 Safe Sport 센터는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USOPC)의 지원 하에, 익명 신고, 전담 조사, 제재 공개의 일련 체계를 완비하였으며, 영국의 NSPCC-CPSU는 통합 위험 평가 도구와 결정 프레임을 통해 사건의 투명성과 부처 간 연계를 제고하였다. 이러한 실천들은 독립성, 전문성, 정보 강

제 흐름 구조가 신뢰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시사하며,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제도의 설계에도 실질적 참고 모델을 제공한다.

이론적 기여와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올림픽 가치관을 통해 중국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의 이론적 경계를 재구성하였고, 스포츠 윤리학과 신뢰 거버넌스 이론 간의 융합을 도모하였다. 또한 Safe Sport 및 CPSU 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독립 조사와 강제 보고의 제도적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그러나 중국 특유의 스포츠 문화와 행정 체계는 연구 결과의 범용성을 제한하며, 데이터의 단편화와 추적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 검증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대규모 종단 연구, 지역 간 비교, 행동 기반 데이터 통합 등의 방식으로 ‘신뢰 형 거버넌스’모델의 장기적 안정성과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제언

최근 중국의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는 정책 설계의 체계화가 본격화되며, 단순한 사후 제재에서 전 과정 예방 및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된 대응 방안을 법·제도, 데이터 공개, 훈련 및 윤리, 지원 서비스, 공공 교육, 국제 연계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서술하고, 단계적·논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법규 및 거버넌스 구조

현행 「체육 법」이 특정 주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 예정인 「체육참여자 보호조례」는 코치, 클럽, 대회 주최자의 주의 의무를 세분화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조사-판단’의 연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적 책임과 절차적 정의의 동시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미국 Safe Sport의 독립조사 모델을 참고하여 중국 형 “센터를 설립하고,公安·교육·협회 간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발견-조사-판단-재심’의 4단계 공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제도적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2) 데이터 및 정보 공개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가 스포츠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명시하여, 등급별 데이터베이스 형성을 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플랫폼에 ‘스포츠 폭력 서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건 분류, 지표 기준, 시간 시계열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개입을 위한 실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폭력 사건 통제 지표를 정부 및 협회의 성과 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건강한 중국 행동」의 목표관리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계량화된 책임추궁을 통해 조직의 자율 규제를 유도할 수 있다.

3) 훈련 및 윤리심사

입직 단계에서의 자격 기준 강화는 일탈 행위 예방의 핵심이다. 저장성의 시행 세칙은 이미 코치의 직업화 및 교육·평가 제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차원에서 폭력 예방 윤리교육을 코치, 심판, 자원봉사자 자격 인증에 포함시킨다면, 유소년 훈련에서부터 프로 무대까지

이어지는 교육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협회 차원의 독립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동 수칙에 기반 한 고위 협 직무의 주기적 재평가 및 등록 체계를 통해 법적 규제와 도덕적 통제 간의 간극을 보완할 수 있다.

4) 지원 서비스 및 심리 개입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트라 우마 인지 기반 간호(TIC)’는 다 학제 환경에서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학교, 클럽, 직업 팀 에서 ‘심리상담·법률지원’이중 개입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권리 구제와 심리 회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 더불어, 미국 국토 안 보부(DHS)가 개발한 행동위협평가모형(BTAM)을 도입하고, 통합 척도를 활용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고위 협군을 선별 및 조기 전환함으로써 폭력의 전이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5) 미디어 및 공공 교육

미디어가 폭력 행위를 ‘영웅화’하여 보도할 경우, 모방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긍정적 서사와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을 통합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 언론사의 스포츠 보도 개선 논의와 신화통신이 제안한 청소년 미디어 문해력 증진 캠페인은 ‘탈 폭력적’공공 담론 형성을 위한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가치교육 프로그램(OVEP)을 활용하여, 전 국민 건강증진과 청소년 체육대회에 ‘존중-우정-탁월’의 상황 교육을 내재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무관용’공감대를 강화할 수 있다.

6) 국제 연계 및 동태적 평가

2024년 IOC가 발표한 「대인폭력 예방 및 선수 보호 합의문」은 ‘예방-개입-피드백-개선’의 순환 형 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기 보고 메커니즘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년 주기로 「중국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표체계 및 전략을 지속적으로 평가·조정함으로써, 자국의 행정·문화 관행을 존중하는 단계적 수용 방식으로 독립조사 및 강제보고 등 국제 공통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축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스포츠 폭력 거버넌스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가치 주도·데이터 기반·다주 체 협력 중심의 종합적 보호 체계로 전환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및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최병문 (2009) 〈스포츠 폭력의 유형과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3). 스포츠 폭력 위험성과 예방.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한체육회(2019).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대한체육회.
- 包宜鑫. (2019). 競技体育中“” [碩士學位論文, 湘潭大學].
- 柴苗苗. (2018). 私泉体育暴力视听資料的合法性及邊緣化. 西安体育學院學報, 35(04), 392-399
- 陳芹. (2019). 体育暴力中刑法介入的邊界. 体育學刊, 26(02), 77-81
- 陳英杰. (2016). 体育媒体如何促進体育文化建設. 新聞戰線, (8), 36-37
- 陳永. (2015). 賽場文化与籃球賽事觀賞性的關係. 商, (52), 257.
- 陳卓,李麗芬(2023).新制度主義視野下的体育暴力研究[J].西南交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24(04):122-138.
- 程姍. (2017). 体育傳媒視角下的体育文化解讀. 電視指南, (06), 175.
- 김동규(2019). 스포츠폭력의 구조적 맥락과 향후 과제. 미간행 국내석사학위논문.
- 丁尋韜. (2015). 國際賽場暴力的刑事規制問題研究 (碩士論文). 福州大學.
- 都察. (2016). 手机媒体体育信息對高校大學生体育价值觀的影響 (碩士論文). 吉林大學.
- 段威. (2015). 体育暴力之刑法化思考——成都体育學院學報, 41(3), 25-29
- 段威. (2019). 運動員競技体育暴力刑事裁判中的事實建构. 上海体育學院學報, 43(04), 38-45
- 范峻 & 王永平. (2016). 倫理學視角下体育媒介暴力的特征与傳媒責任關係研究. 当代体育科技, 6(3), 108-109
- 高升, 常乃軍 & 李翠霞. (2017). 共情視域下的体育暴力成因分析. 吉林体育學院學報, 33(05), 28- 31

- 關於進一步加強體育賽事活動安全監管服務的意見 .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7/06/content_5622726.htm
- 國家體育總局政策法規司.(2024). 體育賽事活動賽風賽紀管理辦法 .
<https://www.sport.gov.cn/zfs/N4974/C27632721/content.html>.
- 郭明,劉欣然.异化的夏歸：競技運動异化的本質因素与路徑選擇[A].中國體育科學學會,
第十一屆全國體育科學大會論文摘要匯編[C].江西師範大學::中國體育科學學
會,2019:486-487
- 郭明. (2021). 競技本質因素的體育哲學辨析 [碩士學位論文, 江西師範大學].
- 郭正茂, 高強 & 楊劍. (2016). “观众—参与者”关系与体育暴力山東體育學院學報,
32(5), 1-6
- 國家體育總局.(2021, June 25).
- 韓健. (2015). 青少年體育暴力的個案研究 (碩士論文). 山西大學.
- 韓勇(2015). 美國體育法學發展及對中國的啓示. 體育與科學. (3):37-44.
- 洪志華 & 張麗. (2017). 芻議電視暴力對體育活動的影響及防范措施分析. 當代體育
科技, 7(10), 238-239.242
- 洪志華 & 鄭秋南. (2017). 體育傳媒暴力對青少年體育教育的影響及其防范策略分析.
當代體育科技, 7(13), 218-219
- 胡強. (2015). 中學生學校體育暴力干預實驗研究 (碩士論文). 山西大學.
- 姜川(2023).西班牙體育法研究及其啓示[D].雲南師範大學.
- 教育部.(2015,4,30).教育部關於印發《學校體育運動風險防控暫行辦法》的通知.
https://www.gov.cn/gongbao/content/2015/content_2901393.htm.
- 荊鑫. (2019). 體育觀眾觀賽行爲的倫理學研究. 當代體育科技, 9(32), 224-226.
- 康芳. (2019). 體育暴力行爲刑法規制研究. 河南科技學院學報, 39(09), 14-19

- 蘭添妃,高麗麗(2024).競技傷害行為刑法正当化問題思辨[J].中國監獄學刊,39(04):42-48.
- 李翠霞,常乃軍 & 趙岷.(2017).體育賽場中群體性暴力事件的特征研究.山西大同大學學報(自然科學版),33(02),73-77
- 李涵.(2015).我國競技體育犯罪的現象及治理研究(碩士論文).河南師範大學.
- 李佳翰.(2022).中超聯賽運動員賽場暴力識別與應對研究[碩士學位論文,吉林大學].
- 李金龍 & 葛輝.(2018).身體的武器:女性主義理論視角下的賽場暴力.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1(06),121-127
- 李向前 & 吳光遠.(2016).體育美學視角下NBA扣籃的美學特征研究.北京體育大學學報,39(3),23-26
- 李志剛 & 馬梅玉.(2018).國內體育暴力研究的可視化分析.體育科技文獻通報,26(03),138-140
- 林琮.(2015).教練員對未成年運動員泛暴力化研究(碩士論文).福建師範大學.
- 林祥芸.(2015).體育界流氓習氣盛行的社會根源分析.當代體育科技,5(4),189-190
- 劉博文.(2018).從體育暴力事件來看體育的競技性.體育科技文獻通報,26(04),134-135
- 劉廣慧.(2016).現代體育傳媒對高校體育教學的影響探究.教育現代化,3(15),132-133.139
- 劉龍.(2017).競技體育與暴力關係探析及啟示.南京體育學院學報(社會科學版),31(1),123-128
- 劉龍.(2017).體育與暴力關係的研究爭議與辨析.山東體育學院學報,33(05),20-24
- 劉龍.(2019).我國競技體育暴力研究的前沿與熱點——哈爾濱體育學院學報,37(02),83-90
- 劉銳 & 李翠霞.(2018).中國職業籃球聯賽群體暴力事件的社會學分析.遼寧體育科技,40(01),5-8
- 劉水慶.(2015).體育賽場反暴力法律問題研究(博士論文).武漢大學.

- 劉宇佳. (2022). 青少年運動員行爲失范的影響因素与矯正策略研究 [碩士學位論文, 南京體育學院].
- 劉執碩. (2020). 上海市大學生對拳擊運動“” [碩士學位論文, 西北師範大學].
- 馬小兵 & 陳眞. (2017). 競技體育中青少年暴力現象的表征及其應對策略. **體育研究与教育**, 32(03), 53-57
- 牛娜娜. (2015). 青少年體育暴力風險管理研究 (碩士論文). 山西大學.
- 龐浩琳. (2018). 體育暴力的影響因素与對策研究. **当代體育科技**, 8(27), 219-220
- 任洪宇. (2016). 刑法規制體育暴力行爲應注意的几个問題. **法制与社會**, (11), 267+284.
- 任磊(2022).我國球場觀眾行爲他律研究[D].山西大學.
- 石岩 & 高 . (2017). 我國體育暴力研究熱点、演進脉絡及發展趨勢. **成都體育學院學報**, 43(06), 1-7
- 石岩 & 韓健. (2015). 青少年體育暴力个案研究. **體育与科學**, 36(1), 52-58
- 石岩, 黃鑫(2011). 球場觀眾暴力突發事件應急管理的理論研究. **天津體育學院學報**. (2):93-100.
- 搜狐网.(2025,5,18).CBA總決賽G5罰單出爐：广厦被罰20万，孫銘徽逃過禁賽.
https://Www.Sohu.Com/a/896390919_122001004.
- 孫彤. (2020). 競技體育中運動員暴力的法律治理研究 [碩士學位論文, 河北科技大學].
- 譚紅春(2009) .對體育“暴力”的文化人類學解讀. **天津體育學院學報**. 24(3):227-231.
- 湯盈. (2017). 現代體育傳媒對高校體育教學的影響分析. **赤峰學院學報(自然科學版)**, 33(16), 153-155
- 唐文. (2018). 淺談大眾傳媒對大學生體育素質的影響. **文体用品与科技**, (10), 40-41
- 田寒. (2021). 競技體育中暴力犯規行爲的刑法規制研究 [碩士學位論文, 天津師範大學].
- 田林 & 李留東. (2019). 手机媒体在我國體育新聞傳播中的影響及發展研究. **山東體育**

科技, 41(05), 41-44

- 汪波,陳偉警(2024).競技體育中暴力行為的刑法規制[C]//中國體育科學學會體育社會科學分會.2024年全國體育社會科學年會論文集(一).甘肅政法大學;10-118.
- 王昌杰.(2020). 競技體育傷害行為的刑法評價 [碩士學位論文, 南京大學].
- 王開元.(2018). 論競技體育傷害行為的刑法規制 [碩士學位論文, 湖南師範大學].
- 王強.(2016). 體育賽場暴力的含義 分類及特征研究. **運動**, (14), 11-12
- 王偉民.(2019). 人類生命暴力的體育哲學思辨 [碩士學位論文, 江西師範大學].
- 王雪林.(2017). 大學生課外籃球活動體育暴力個案研究 [碩士學位論文, 河北師範大學].
- 王永平 & 趙岷.(2015). 批判與顛覆: 體育媒介暴力的文化學解析. **體育研究與教育**, 30(6), 34-38
- 韋沫晴(2023).近十年美國體育法學研究狀況分析[D].上海體育學院.
- 吳玉萍(2012). 競技體育行為與體育暴力行為界分的刑法考察. **中國刑事法雜誌**. 22(3):24-31.
- 西藏自治區體育局. 體育行政處罰裁量權基準適用辦法(試行) [S]. (20250103).
- 謝波飛.(2017). 試析大眾傳媒對高校大學生體育生活的影響. **中國報業**, (10), 88-89
- 謝高長 & 田俊龍.(2015). 高校校園體育暴力成因分析——當代體育科技, 5(32), 142-143
- 新華網.(2024,5,10). 中國足協處罰大連英博隊和廣州隊多人被停賽.
[Http://Www.News.Cn/Sports/20240510/Ac71907487f04f859b4561854b0dc97e/c.html](http://www.news.cn/sports/20240510/Ac71907487f04f859b4561854b0dc97e/c.html).
- 熊歡 & 王永順.(2015). 體育運動中性騷擾的界定、表現形式及類型. **北京體育大學學報**, 38(1), 37-44
- 徐芳.(2015). 淺析競技體育中暴力行為. **科技展望**, 25(35), 248.
- 徐可.(2019). 論歐茨長篇小說中的暴力書寫 [碩士學位論文, 南京師範大學].

- 徐士航. (2019). 競技體育暴力行爲的刑法教義學研究 [碩士學位論文, 揚州大學].
- 徐翔 & 謝秋凌. (2015). 競技體育暴力傷害行爲探析——*體育研究與教育*, 30(2), 23-26
- 徐翔. (2017). 競技體育傷害的社會危害性及防治對策. *體育成人教育學刊*, 33(04), 48-52
- 閔成棟. (2016). 中國體育行政行爲的秩序功能研究. *成都體育學院學報*, 42(2), 15-19+50
- 閔筱珊. (2016). 競技體育推動綠色發展的實証研究 (碩士論文). 天津科技大學.
- 央視網. 體育規則+行政處罰+公安拘留：多元懲戒成爲常態 [N/OL] . 2024-05-16.
- 央視網.(2008,10,6). 足協重罰武漢退賽：取消聯賽注冊權罰款30萬.
<https://Sports.Cctv.Com/20081006/100144.Shtml>.
- 楊海江. (2017). 我國體育暴力研究評述. *玉林師範學院學報*, 38(05), 123- 127
- 楊凱. (2015). 論我國球場暴力的法律治理 (碩士論文). 湖南師範大學.
- 楊勝余. (2020). 福州市大學生網球運動暴力行爲研究 [碩士學位論文, 福建師範大學].
- 楊詩慧(2023).體育賽場暴力的分類體系研究[D].揚州大學.
- 叶峰. (2015). 體育傳媒對我國高校體育文化建設的影響. *新聞戰線*, (3), 179-180
- 于富城. (2020). 新媒體對山東省大學生體育行爲的影響研究 [碩士學位論文, 曲阜師範大學].
- 張彩紅 & 王曉紅. (2016). 競技體育犯罪特征之刑法學分析. *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 28(4), 59-61
- 張凡濤. (2017). 奈·*成都體育學院學報*, 43(2), 20-24.36
- 張洪安. (2015). 古代西方體育的本質性暴力及其“去暴力化”*上海體育學院學報*, 39(1), 46-51
- 張建榮. (2022). 社會文化視野下的體育暴力現象研究 [碩士學位論文, 江西師範大學].
- 張凌云. (2016). 中國體育法學1984- (學位論文). 首都體育學院.
- 張瑞雪. (2017). 體育暴力形成原因及對策研究. *當代體育科技*, 7(24), 234, 236.
- 張義龍(2023).論競技體育暴力行爲的刑法規制[D].河北科技大學.
- 趙龍. (2016). 高校校園體育暴力成因分析——*現代商貿工業*, 37(30), 177-178

政策法規司.(2021,5,18).體育總局公安部關於加強體育賽場行為規範管理的若干意見.

<https://www.sport.gov.cn/gdnps/content.jsp?id=20996705>.

中國籃球協會. 中國籃球協會紀律准則和處罰規定 [S]. (20180228).

中國足球協會紀律委員會. 2023賽季紀律處罰通報匯編 [R]. 北京：中國足協, 2024.

中華人民共和國體育法 [S]. (19950829, 修訂于 20220624).

周瑞發(2022).體育媒體對中學生體育行為的影響研究[D].蘇州大學.

朱士灵. (2018). 競技體育人身傷害中風險自負原則適用研究 [碩士學位論文, 福州大學].

Anonymous. (2024, 6, 24). Olympics 2024: Morocco beat Argentina amid

fan invasion chaos. ESPN.

https://www.espn.com/olympics/story/_/id/40631533/morocco-beat-argentina-amid-fan-invasion-chaos

Anonymous. (2025). Olympic Values - Excellence, Respect and Friendship.

<https://www.olympics.com/ioc/olympic-values>.

Bowler Jr, G. (2024). A Proposed Model for Behavior Threat Assessment and Management Team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outhern University*).

European communities. (2007).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ONSPORT.https://www.aop.pt/upload/Tb_content/320160419151552/35716314642829/Whitepaperfullen.Pdf.

Feng, O., & Duncan, L. R. (2025). Canadian national sport organisations' eating disorder-related policies and practice guidelines: a summative content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17(2), 287-307.

FIBA. (2024). Official Basketball Rules 2024. <https://assets.fiba.basketball>

/image/upload/documents-corporate-fiba-official-rules-2024-v10a.pdf

Garner, B. (2004). Black's Law Dictionary; 1990. West Group, St. Paul Minn. 8th Edition at, 825.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Olympic_Agenda_2020/Olympic_Agenda_2020-20-20_Recommendations-ENG.pdf?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News/2018/03/IOC-Gender-Equality-Report-March-2018.pdf?>

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 Report.(2018,3,29):

IOC, (2014) 《Olympic Agenda 2020 - 20 + 20 Recommendations》, Articles 11 and 14.

Krug, E. G., Dahlberg, L. L., Mercy, J. A., Zwi, A. B., & Lozano, R. (Eds.). (2002).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iris.who.int/bitstream/handle/10665/42495/9241545615_eng.pdf?sequence=1

MargoMountjoy(2007,).SPORTLAW.<https://Sportlaw.ca/Ioc-Consensus-Statement-on-Sexual-Harassment-and-Abuse-in-Sport/>

Mountjoy, M., Brackenridge, C. Arrington, M., Blauwet, C., Carska-Sheppard, A. Fasting, K., & Budgett, R. (2016).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consensus statement: harassment and abuse (non-accidental violence) in sport.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0(17), 1019-1029.

Olympic Agenda 2020 - 20+20 Recommendations(2014): 제29·30·31·32호 :https://stillmed.olympic.org/Documents/Olympic_Agenda_2020/Olympic_Agenda_2020-20-20_Recommendations-ENG.pdf

Olympic Agenda 2020+5, IOC official website, 2021& Midway Report (March 2021).Nicolliello(2021), A. “The New Agenda 2020+5 and the Future Challenges for the Olympic Movement.” Athens Journal of Sports, Vol. 8 No.2

Olympic-charte: Olympic Values – Excellence, Respect and Friendship.
<https://www.Olympics.Com/Ioc/Olympic-Values?>

Pierre de Coubertin.(1934)“Philosophie du Mouvement Olympique Moderne”.

Quinney, R. (2016). “Martial arts studies: citation of violence theory.”
『*Martial Arts Studies*』, 2, 39-53.

Rossi, P. (2024, 8, 9). Ugly Olympic brawl breaks out after field hockey gold medal goal. New York Post.
<https://nypost.com/2024/08/09/sports/ugly-olympic-brawl-breaks-out-after-field-hockey-gold-medal-goal/>

Scmp reporter. (2016, March 18). WATCH: Mass Brawl Breaks out between Chinese Basketball Players and Fans Outside Team Hotel.
<https://www.Scmp.Com/Sport/China/Article/1926911/Watch-Mass-Brawl-Breaks-out-between-Chinese-Basketball-Fans-and-Players?>

Tuakli-Wosornu, Y. A., Burrows, K., Fasting, K., Hartill, M., Hodge, K., Kaufman, K., ... & Rhind, D. J. (2024). IOC consensus statement: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in sport.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8(22), 1322-1344.

Tuakli-Wosornu, Y. A., Burrows, K., Fasting, K., Hartill, M., Hodge, K., Kaufman, K., ... & Rhind, D. J. (2024). IOC consensus statement: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in sport.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58(22), 1322-1344.

UN Women & 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and UN Women sign new agreement to advance gender equality through sport,” (2023,9,18):<https://www.unwomen.org/en/news-stories/press-release/2023/09/press-release-the-international-olympic-committee-and-un-women-sign-new-agreement-to-advance-gender-equality-through-sport>



**The ‘Olympic Spirit’ and the Prevention of Sports Violence and
Protection Studies: Focusing on Applications in China’s Sporting Context**

GAO PENGCHENG

Department of Physical,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elucidate the guiding value and practical pathways of Olympism in the governance of sports violence. Theoretically, grounded in the two core principles of the Olympic Charter—namely, “mutual understanding, friendship, solidarity, and fair play” as well as the recognition of “sport as a human right”—the research explores the preventive and protective functions of these values in diverse scenarios of sports violence, including intentional injury on the field, spectator riots, and sexual harassment. It clarifies the dual significance of Olympism in conflict resolution and human rights protection.

Based on this, the study constructs a tripartite model tailored to the Chinese sports context—value embedding, mechanism upgrading, and cultural leadership. Through translating Olympic values into educational curricula, legal provisions, and public discourse, this model seeks to bridge the current gap in “soft governance” identified in the 2024 Code of Conduct for Sportsmanship and Discipline, thereby achieving an integrated loop of value, institution, and capability.

Furthermore, the paper refines a dual-path governance approach that incorporates both institutional and cultural strategi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 proposes pre-event risk assessments,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a closed-loop adjudication system. At the cultural level, it advocates initiatives such as the “Moral Gold Medal” and “Style Gold Medal,” promoted via media and educational campaigns to build societal consensus towards violence-free sporting environments.

Innovatively,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protective

governance” into major sporting events, drawing on the IOC’s 2024 Consensus on Interpersonal Violence and Safeguarding to design measures including psychological support, whistleblowing mechanisms, and preventive education. These are piloted in mass fitness programs and youth competitions, with monitoring indicators such as violence reporting rates, spectator civility scores, and rule awareness levels to assess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constructs a multi-dimensional governance framework centered on Olympism and adopts a mixed-method approach combining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comparative analysis, and action research. It first outlines the core values and ethical principles of Olympism—excellence, friendship, and respect—and analyzes their significance in preventing violent conflict within modern sports governance.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ntegrating Chinese and international sources (from CNKI and Google Scholar), the study builds a comprehensive body of literature covering definitions, governance models, and intervention pathways related to sports violence. It then conducts in-depth analyses of representative cases, including school violence, professional league conflicts, and sexual misconduct in international events, to uncover governance blind spots and practical needs.

On the comparative level, the study benchmarks international experiences, including the U.S. Center for SafeSport, Canada’s Safe Sport Action Plan, and relevant EU white papers, while analyzing China’s 2021 Guidelines on Behavioral Standards and 2024 Code of Conduct for Sportsmanship and Discipline. From this, the study derives governance strategies tailored to China’s sociopolitical context.

Empirical and action research results demonstrate that: (1) the value translation model is highly effective; (2) the Safe Sport CN governance pathway is practically feasible; (3) the cultural shaping mechanism yields significant impact; and (4) pilot feedback indicates notable improvements in inter-agency coordination.

This paper is the first to systematically explain how Olympic values can be transformed into institutional instruments and public mobilization

mechanisms in the Chinese context, thereby address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gaps in soft governance. It also aligns with the latest IOC policies and contributes Chinese perspectives to the global Safe Sport agenda. The study acknowledges existing limitations, including the lack of cross-cultural applicability testing, machine-learning-based risk prediction, and sentencing-related big data. Implementation is also constrained by administrative coordin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Future research is encouraged to expand empirical analysis and adopt digital monitoring tools.

Keywords: Olympism, sports violence, prevention and safeguarding, China

